

MAXIM

KOREA

QUEEN'S ATTACK

미스 차이나 아이상젠

게임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아름다운 신인류 SUPER XX의 완벽한 바디라인을 담다!

GAME

성인을 위한 제대로 된 MMORPG 퀘스블레이드 정식 출시 임박!

THE MAXIM PARTY IS BACK!

@BANYANTREE SEOUL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핫한 신호탄! MAXIM 풀장 파티, 그 주지육림의 현장을 대공개한다.

SUMMER BIKINI SPECIAL

MAXIM 파티:

반얀트리를 가득 메운 비키니 걸

BRIA MURPHY:

에디 머피 딸이 이렇게 예뻐어?

HOT SAUCE:

비키니 미녀의 인생상담소

GROOMING:

비키니미녀에게 선크림을 발라주재

COVER STORY:

미스 차이나의 핫핑크 비키니

신인 발굴 PROJECT:

이름부터 모범적인 걸그룹 비키니

MISS MAXIM:

이번 달 워너가 바로 그 압구정 가슴녀

SPORTS:

세계 최강 섹시 골퍼 SOPHIE HORN MAXIM GIRL과 1박2일 서핑 여행 (1박이라고)

STUFF:

해변 민박집에서 그녀와 생긴 일 MAXIM이 골라주는 물총

STYLE:

비키니&간지 슈즈

진짜 이게 다 비키니?

QUEEN'S BLADE

DIAMOND  TEARS™
 MON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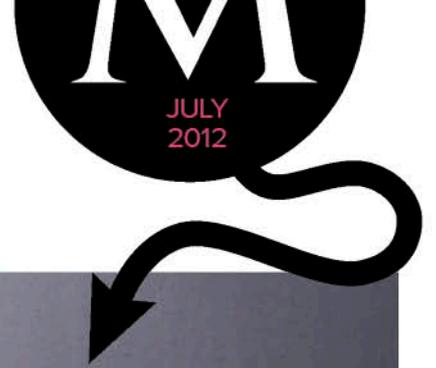


www.diamond-tears.com



Edge Like Diamond,
Smooth Like Tears

CONTENTS



82

COVER STORY

중국 최고 미녀, 미스 차이나 아이상젠이 MAXIM을 만나기 위해 날아왔다. 13억의 기적을 느껴보라!

CIRCUS MAXIMUS

- 15 뻔해도 너무 뻔한 성인물 줄거리
- 18 모기가 싫어하는 사람 되는 법
- 20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골퍼는 누구?
- 22 경찰서에서 얼굴 도장 찍은 스타, 누가 제일 예쁘나?
- 24 타투할 때 가장 아픈 부위는?
- 26 뜰보잡 라면 TOP 5

HISTORY

- 28 굽시니스트의 교양 역사 만화

RATED

- 30 박한별 나오는 페이지다!
- 32 호러 영화의 계절
- 34 책 읽어주는 여자

GAME

- 36 라라 크로프트의 가슴 변천사
- 38 죽거나 혹은 출렁거리거나: Dead or Alive 5
- 40 E3 쇼보다 핫한 추천 게임

STUFF

- 42 뭐? 79만 원짜리 선풍기?
- 44 그 여름, 비 오는 민박집에서 생긴 일
- 48 맥심 만물상화: 수지가 선택한 시디피
- 50 조준한 뒤 쓰고 적서래!

MOTOR

- 52 <이니셜 D>의 추억 팔아요, 4천만 내.
- 54 볼보가 한물갔다고 누가 그래?

SMOKE & DRINK

- 60 독일 맥주 이야기 #2: 섞으면 더 좋아!
- 62 부엉이 맥주? 부엉이 맞이나?

24 HOURS TO LIVE

- 66 인생이 이렇게도 기구한 사람이 또 있을까? 가요계 최정상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했던 롤라 이상민이 신이 되어 돌아왔다!

MISS MAXIM

- 70 이번 달엔 얼짱 박세미의 비키니 섹!

CONTENTS

DEPARTMENTS



114

BIKINI in BIKINI

신인 그룹 비키니가 비키니를 입고
MAXIM과 함께 물놀이를 했다
여러모로 따끈따끈한 신인이로세!

HOT SAUCE

74 섹시한 비키니 차림의 하와이 미녀가
세상만사에 대해 상담을 해준다!
말 잘 들으면 비키니 벗어주는 거?

LOVE

76 지상 최고의 색깔 슷눈 20마리
(귀 간지럽나?)

ICON

80 전설의 기타리스트
슬래시가 돌아왔다! 간지 폭풍 주의!
90 마냥 곱상한 도련님 같던 슈주 김기범이
일진으로 변신했다.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따라와.

FIGHT

94 러블리 옥타곤 걸 브리트니 팔머
96 한국인 최초 UFC 파이터 김동현
100 평생 X밥으로 살 순 없어!
파이터의 자기 방어 기술
104 답 없는 흑형 2탄: 존 존스

THE MAXIM PARTY

108 반안트리 서울을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달군 MAXIM PARTY. 비키니 차림의
미녀들과 강렬한 비트, 술과 담배와 댄스가
뒤섞인 주자육림의 그 현장 속으로!

NINJA WARRIOR CHALLENGE

122 নিজ 대회에 참가한 에디터가
MAXIM 명성에 통찰을 하고 돌아왔다.

SEXY SURFER ATTACK

128 쪽뺨한 MAXIM GIRL들과 함께한
1박 2일 서핑 여행. 재미있었느냐고?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다고!

MILITARY

134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

BRIA MURPHY

138 코미디언 에디 머피의 딸이 이렇게
예쁘다니! 동키, 이건 반칙이야!

STYLE

144 여름에 먹어주는 간지 슈즈
146 땀벌에 촛농 되기 싫어? 섹크림 발라!
148 잠실벌에서 만난 스타일 좋은 아빠
150 밤에 더 멋진 시계

CLUB

152 이번 달엔 두 탕 뛰었다.
여성 전용 파티와 피트니스 파티!

THE ULTIMATE SMOOTH PREMIUM BEER



IT'S *Miller* TIME.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염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BRAUN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주임 김희성 alicem@maximkorea.net
 주임 송중민 jm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옥 14k@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사원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사원 이진영 jy@maximkorea.net
 사원 조웅재 wj@maximkorea.net
 사원 서현우 july@maximkorea.net
 사원 이영환 lyh@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대영 storm@maximkorea.net
 이용수 yong24@maximkorea.net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주임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주임 신속희 ssh@maximkorea.net
 주임 천은경 eun@maximkorea.net
 일러스트 주임 전영준 ziroqoo@maximkorea.net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옥 14k@maximkorea.net
 매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매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사원 안진호 jh@maximkorea.net
 사원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WEB SERVICE / 웹

토크엔
 팀장 서경민 oreiss@town.com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가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명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팀장 김도훈
 어시스턴트 오준섭

CIRCULATION / 유통

승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PRINTING / 인쇄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석리 192-1 인쇄원 이원순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자용 / 이사 원혜진



Simply time

브라운 | (주)거노코퍼레이션
 www.brauntime.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포타입 | www.eurotime.kr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3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7월호 통권 제27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ARGENTINA Germán Pittelli	CZECH REPUBLIC Pavel Vondracek	ITALY Paolo Gelmi	RUSSIA Sasha Malenkov	THAILAND Sirote Petchjamroansuk
AUSTRALIA Santi Pintado	GERMANY Mike Bleibtreu	MEXICO/LATIN AMERICA André Félix Diaz Rojo	SERBIA Nebojša Prijčić	UKRAINE Sasha Malenkov
BULGARIA Alexander Zhekov	INDIA Vivek Pareek	POLAND Krzysztof Papliński	SOUTH KOREA Young-Bee Lee	UNITED KINGDOM Stuart Messham
	INDONESIA Ronald Adrian Hutagalung	PORTUGAL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SWITZERLAND Boris Etter	UNITED STATES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SWISS + MADE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

The Luminox F-35 Lightning II 9382: 44 mm, Stainless Steel brushed case, crown protection,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screwed case back, Stainless Steel Bracelet, 2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the F-35 Lightning II.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루미nox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미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l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미림시계) 02-772-3181 /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미림시계) 02-2143-1920 / 롯데백화점 일산점 1층(미림시계) 031-909-3181 /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미림시계) 053-660-3122 /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1층(미림시계) 051-678-4039

특약점 강변 테크노마트 1층(TM시계백화점) 02-3424-0793 /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10층(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따선존) 02-3398-7527 / 성내동(다이비스몰) 02-565-9897 / 상계동 하이힐빙상기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화차(명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라자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탑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시보) 02-2118-8075 / 대한동 APM쇼핑몰 1층(타임사모) 02-6373-7743 / 잠실 롯데월드 벨링센터 1층(제네바) 02-419-5822 / 남창동 송례문지하2층(프루워치) 02-779-6964 / 고양 입산동(M&R) 031-976-1644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자) 031-466-1014 / 부천 심곡동(독독)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크브) 031-710-1260 / 수원 그랜드백화점 1층(텐어플라) 031-201-7100 / 안산 고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평택 평택동(유빈) 031-658-6883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인천 흥플라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터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타미날점 4층(스포츠크브) 042-615-1234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와치) 043-235-1510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전주 세이브존 1층(에진시계) 063-287-2325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포항 벨류플러스(조이필)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크브) 054-480-1234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창원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05-555-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LETTER FROM MAXIM

주지육림(酒池肉林)! 뜻 처 한접!

지난해 늦여름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MAXIM 파티를 어영부영 열다 중단했다. 기차게 장사가 잘 되던 중에 갑자기 그만둔 터라 주변에선 의아해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던 MAXIM 파티가 아니었기에 과감히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모든 건 바로 지난 6월 16일에 남산 반얀트리 호텔에서 연 '진짜배기' MAXIM 파티를 위해서였다.

MAXIM 파티는 'MAXIM'하면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뜨겁고 달콤한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바야흐로 여름의 시작, 아찔한 비키니를 입은 미녀들이 즐비하고, 한 손엔 술병을 들고, 입엔 담배를 꼬나문 당신에게 잡지속 MISS MAXIM들이 다가갈 팔짱을 끼는 동안 DJ는 실재 없는 비트를 쏟아내며 여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멋진 남자가 한껏 멋을 내고 모여 일탈을 꿈꾸는 곳. 한마디로 현대판 '주지육림'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MAXIM 파티의 존재 이유다. 그런 파티를 꿈꾸는 만큼 파티 장소도 특별해야겠지? 회원권이 없으면 들어가 볼 수도 없다는 반얀트리 호텔 야외 풀장 '오아시스'. 그곳에서 MAXIM은 전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파티를 열었다. 비키니를 입은 핫한 미녀들이 차고 넘치는 MAXIM 파티를 하늘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일까? 그날 비가 온다던 일기예보는 보기 좋게 틀렸다. 하늘은 비키니 끈마저 풀어놓고 태낭을 즐기고 싶을 만큼의 뜨거운 햇살을 선사했다. 흥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 걱정도 좀 했지만 파티는 기대 이상이었다.

인기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왔는데, 굳이 MAXIM 에디터를 보러 왔다면 함께 사진 찍기를 청하던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즐겁게 놀고 뜨겁게 논탕하다 갔길 바란다.

다음 번 파티에 오면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에디터랑 스태프들 얼굴을 이번호에 다 공개했다. 혹시 그간 MAXIM 만드는 사람들 면상이 한 번이라도 궁금했다면 112페이지를 참조하길.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MAXIM 7월호의 최종 마감은 6월 19일이다. 그런데 그 3일 전에 이런 미친 짓을 벌인 죄로 지금 다들 생명을 단축시키는 살인적인 마감을 치르고 있다. 다행히 다음번 파티는 마감 직후다. 다음 달 8월호가 발행되는 7월 21일, 대전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GREEN GROOVE 페스티벌의 애프터 파티로 MAXIM의 두 번째 파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풀장 파티 했으니 그 다음은 역시 비치 파티지!

2012년 7월 편집장 *이영비*



MAXIM 편집부의 마감 노동요
파티는 파티고, 마감은 마감이다.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형준이와 대준이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김경호
- 편집장 이영비

감기라도 걸릴까, 휘성, 이승우
죽을 만큼 아파서, MC 몽
- 에디터 김희성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승기
질뻔했어, 2AM
- 에디터 송종민

훗(Hoot), 소녀시대
난 멈추지 않는다, 잼
- 에디터 박한빛누리

제자리 걸음, 김종국
시간아 멈춰라, 다비치
- 에디터 손안나

내가 만일, 안치환
늦지 않았음을, 송재호
- 에디터 이영환

OMG(Oh My God), Usher
다크서클(Feat. 박명수), 스위트소로우
- 디자이너 전은경

점점, 브라운 아이즈
웃음만... 지아
- 디자이너 신숙희

전설속의 누군가처럼, 신승훈
밥만 잘 먹더라, 창민&이현
- 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



BILLABONG과 함께하는

CASS LIGHT Surfing School



Cass Light

카스라이트 서핑스쿨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카스라이트 페이스북 이벤트에 응모하고
무더위를 날려버릴 1박 2일 서핑스쿨에 참가하세요!
www.facebook.com/Cass.kr



광고 : 지나신 음주량, 건강에나 건강을 일으키는,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Letters



✉ 흐트 버라이어티하고 알찬 잡지 MAXIM을 사랑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맨 처음 직장 동료가 MAXIM을 선물해준 이후로 매달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MAXIM 꾸러가시는 데 잠시나마 피로를 푸시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팬심이라고나 할까요? 응원합니다!

이메일 사연, 최순원

✉ 이런 순수한 만화를 그리는 독자님을 어쩐지 더럽힌 것 같아 죄책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 음탕하고 상스러운 편집부 식구들에게 유야기 이후 느껴보지 못한 순수성을 되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친애하는 MAXIM 편집자 여러분. 어 른 패드로 무려 1년치 정기 구독을 신청하고 본 첫 색션이 '자신을 위로하는 색다른 법'인데, 고객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희대의 발명품 '아오이 휴지심&고무장갑'에 도전하고 매우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뜨거운 물에 적신 그녀의 몸은 매우 빠르게 식었을 뿐 아니라, 마음껏 흔들고 싶은 휴지심은 낙타가 들어갈 바늘구멍이니, 애꿎은 고무장갑 한 짝만 잃어버린 우리 어머니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책임지세요, 우리 어머니 고무장갑..

이메일 사연, 홍군

✉ 독자님의 돌돌이가 낙타 크기 정도 된다는 겁니까? 부럽네요. 하지만 아오이 양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건 다 독자님의 스킬 부족 탓입니다. 분발하세요(신은 공평하군요).

MAXIM 2012년 5월호



✉ 6월호에 사내 연애에 대한 댓글을 보았소. 회사에 세 살 연하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수시로 카톡도 하고 술도 마시다가 어느 순간 부쩍 가까워졌소. 거의 사귀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 친구는 3년 된 남친이 있었소. 우연히 본 그 친구의 카톡엔 남친과의 애정 멘트가 가득하더이다. 나 혼자 쇼한 거요? 이메일 사연, 배기범

✉ 그 여인의 어장 관리가 강태공급이었다면 사내인 이상 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쇼한 게 맞습니다. "카톡하고 술 마신다고 사귀는 거면 저는 우리 동네 돌돌 치킨 가져싸하고도 사귀건가요?"라는 편집부 여자 에디터의 참언도 전해 드립니다. 기어이 그녀의 물고기라도 되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세컨드가 체질인 사람도 있다잖아요?



ZASPERO Cal. 3540D Z1
All stainless steel
Sapphire glass
Swiss made



Sportivo Collezione 401
Veterano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 | | | | | |
|----------------------------|----------------------------|----------------------------|-----------------------------|----------------------------|----------------------------|
| · 지 영 점(여의도) 02)783-8910 | · 롯데백화점(분점) 02)772-3124 |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7282 |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630-6734 | · 롯데백화점(청량리) 02)3707-1190 |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39 |
| · 롯데백화점(민익점) 02)842-7706 | · 롯데백화점(일산점) 031)909-3293 | · 롯데백화점(평촌점) 031)8086-9248 |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4 | · 롯데백화점(인천점) 032)450-2153 |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 · 롯데백화점(대전점) 042)601-2149 |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32 | · 롯데백화점(포항점) 054)230-1137 |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3155 | · 롯데백화점(서안점) 051)810-4138 |
|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235 |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960-4783 | · 신세계백화점(강남점) 02)3479-1291 |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 · 신세계백화점(공주점) 062)360-1934 | · AK백화점(구로점) 02)839-5128 |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 AK백화점(명덕점) 031)646-6139 | · AK백화점(원주점) 033)811-5535 |
|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 NC백화점(부산점) 051)509-7221 | · 이 와 치(명동점) 02)771-7033 | · 이 와 치(종로점) 02)737-7033 | · 세운스퀘어(종로점) 02)2272-2888 |
| · 이타인원드(신촌점) 02)313-4108 | · 외 와 치(강남점) 02)537-8977 | · 가든파이버(송파점) 02)2157-5000 | · 오해피타입(용산점) 02)2012-0625 | · 테크노마트(강변점) 02)3424-0793 | · 테크노마트(신도림점) 02)2111-1120 |
| · 두산타워(동대문) 02)3398-7527 | · 두산타워 2(동대문) 02)3398-5528 | · 헬로우APM(동대문) 02)6388-2927 | · 굿모닝시티(동대문) 02)2118-8075 | · 밀리오레(동대문) 02)3393-1062 | ·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
| · 드 와 치(왕십리) 02)220-1355 | · 워치 북(노원점) 070)4136-5090 | · 타임 24 (일산점) 031)931-5555 |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 사문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 · 랍 타임(안산점) 031)413-7856 |
|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8300 | · 워치나라(부평점) 070)7723-8253 | · 타임 편(부평점) 070)7516-4545 | · 북 북(부천점) 032)662-2026 | · 뽕 끼 뽕(부천점) 032)662-0686 | · 뉴코아어울렛(부천점) 032)624-8337 |
| · 게이플렉스(천안점) 041)564-5465 | · 엘 개(구미점) 054)451-6940 | · G-ZONE(구미점) 054)455-2410 |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 삼성시(대구점) 053)422-3002 | · 엘 개(대구점) 053)255-6940 |
|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 타임뱅크(광주점) 062)410-0110 | · 굿 타임(광주점) 062)227-3050 | · 조 이 필(포항점) 054)813-1170 |
| ·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 인터볼고(양성점) 055)911-7111 | · 불 량(부산점) 051)245-7965 | · 타임복발(부산점) 051)919-4704 | |



독자 사연 보내기



독자 사연 응모

MAXIM과 관련한 재미있는 사연이나 사진 모두 환영한다. 당신의 센스와 면상을 기대하지.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MAXIM은 독자의 방문을 쌍수 들고 환영한다. 지금 당장 서교동 MAXIM KOREA 빌딩에 방문하라.

▶빠른 방문 접수를 위한 TIP: 하루에 딱 두 번, 오전 6시 9분과 오후 6시 9분, 일면식 없는 5인 이상이 함께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세 컷의 MAXIMUS!"라고 외쳐라. 순간 이동 후 정신을 차리면 아마 당신은 편집부 소품실일 거다. 놀라지 말고 당당한 포즈로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이제부터 매 주 1인씩

당첨

아이패드 MAXIM 잡지 정기 구독자요. 중국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니 정기 구독 취소하라는 공지 사항 잘 보았소(중국 정부와 ADOBE사의 문제로 중국 정부에서 해외 서버로부터 자국 내로 들어오는 일부 앱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바람에 중국 내 MAXIM 앱 콘텐츠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됨).

하지만 그 정도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MAXIM 독자를 빙다리 핫바지로 본 것이오. 난 지금 유료 결제 VPN으로 5월호를 느릿느릿 다운로드 받았소이다!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10%도 못 받았소. 진짜! 하지만 내 기필코 다 받아서 글자 하나하나 남김 없이 봐주겠소.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눈물겨운 사연이 당첨되어도 선물 따위 필요 없소. 어차피 중국으로 국제 배송할 것도 아니지 않소! 쳇!

이메일 사연, 최가석

국제 배송을 안 할거라 생각하시다니 MAXIM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셨군요. MAXIM 경영지원팀은 독자님이 알래스카에서 겨울을 기르며 살더라도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독자님 손에 선물을 쥐여주고야 말 겁니다. 기대하세요, 커밍쑤.

마이애미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한국판 MAXIM은 해외 정기 구독 중이고 미

국판 MAXIM은 가끔 사다 본답니다. 그런데 한국판 MAXIM이 훨씬 재미있어요! 가끔 제 영어 실력이 아직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다 한국에 있는 MAXIM 편집부 때문입니다. 모바일 사연, 트리플 파이어

무릇 예로 영화만 하더라도 <엠마뉴엘>보다는 <애마부인>에 더 끌리는 법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판 MAXIM에 끌리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쓸데없는 고민 마시고 안으로는 편안하게 한국판 MAXIM을 즐기시고요, 밖으로는 파란 눈 금발 누나들에게 한국 남자의 기상을 제대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꼭 MAXIM과 함께 인생을 마라톤하는 열혈 애독자요. 독일에서 살면서 매번 앱으로 MAXIM을 구입해서 보고 있소. 그런데 아이패드로 보면 동영상에다가 뭐에다가 더욱 멋진 별천지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나자빠졌소. 나도 그 별천지의 문을 열어보고 싶소이다. 혹시 MAXIM에서 구독 7년 차에게 주는 선물로 아이패드를 나에게 하사하면 안 되겠소?

이메일 사연, 이히리베맥심

080-330-8877 애플 코리아 본사입니다. 뉴 아이패드의 가격은요...



이번 달 독자 사연 선물은 **스웨거의 스테이너 왁스다**. 강 센 막 센 왁스가 필요한 독자라면 정발력 999% 라는 이 왁스로 머리를 하늘까지 달게 하도록!

독자 이벤트 당첨자

지난달 男 아이돌 최초로 MAXIM의 백 커버를 장식한 유키스 동호, MAXIM으로 날아온 소녀팬들의 응미 총만한 인 증상을 공개합니다. 하악하악!



그 래브랑 동호 말고 너랑 가면 안 될까?



소녀의 근성이란 이런 거다.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연 세 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백 화 점] 롯데백화점 노원_더와치스 (02-950-2164) / 장실_더와치스 (02-2143-1922) / 진주_더와치스 (063-289-3191) / 대전_타임마케팅 (041-601-2253) / 대구_더와치스 (053-423-1234) / 청주_타임마케팅 (043-219-9108) 신세계백화점 인천_타임마케팅 (032-430-1486) / 광주_타임마케팅 (062-380-1291) / 천안_예진시계 (041-640-5081) AK PLAZA 수원_덕스시계 (031-240-2199) / 분당_덕스시계 (031-781-8194) / 광덕_덕스시계 (031-646-6139) / 원주_덕스시계 (033-811-5535) 갤러리아 수원_GG몰역선 (031-221-4997) 세이백화점 대전_글로벌타임 (042-257-7745)

[판 매 처]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임 (2012-0625) / 와양치 (537-8977) / 진진상사 (764-4716)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머신 (6388-2927)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퍼센존 (3398-7527) / 프르워치 (779-6964) 경기(031) 시계상자 (441-0158) / 사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타임24 (931-5555) / 티파니 (441-0158) / 타임플러스 (371-6850) 경기(032) 대성 (325-7467) / 행복통 (662-0886) / 키시모모유 (502-7138) 광주(062) 타임엔젤모 (222-3114) / 청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대구(053) 공주나라 (256-0975) / 골드&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라자 (254-3977) / 레프 (425-0157) / 신세계플렉스 (566-3316) / 주얼리아 (428-2668) / 래피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8-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신항 (253-5354) / 월드타임 (245-8359)



THIS MONTH'S HOT CLICK
 MAXIM 독자들이
 마우스 뽐사지도록 광글한
 바로 그 기사

MAXIM PARTY 미리보기? 미녀들의 촬영 현장 엿보기!

MAXIM PARTY를 위해 MISS MAXIM으로 결성된 파티플래너 3인방이 반안트리 호텔 야외 풀장에서 깜짝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 엄상미는 갑작스레 퍼부은 소나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 정신을 발휘해 비를 맞으며 촬영에 임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릿결을 바라 보던 남성 스태프들의 낯 간간 표정이 가관이였다. 한편, 최혜연은 남심을 녹이는 미소로 반안트리 내에 있던 몇 남성들의 가슴속에 방사능처럼 스며들었다. 당시 피폭된 사상자들은 수영장에 타액을 방출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참혹한 모습을 연출했다. 김지은은 으스스한 카바나를 배경으로 촬영했는데, 미니 풀 안에서 수영하는 그녀의 모습은 흡사 인어공주를 연상시켰다. 스태프들은 마치 사이렌을 바라보는 선원들처럼 무언가에 홀린 듯했다고..

풀 기사는 www.maximkorea.net으로!

MAXIM PARTY EVENT

아쉽게도 주옥같은 이번 MAXIM POOL PARTY를 놓쳤나? 눈을 두고 MAXIM 홈페이지의 EVENT 게시판으로 들어오라. 이번 7월호 속 깜짝 이벤트(59페이지 참조)에 응모하는 사람 중 행운의 1인을 뽑아 BMW MINI 바이크를 선물할 예정이다. 어서 가져가! 그래도 너무 아쉽다고? 108페이지의 MAXIM 파티 기사를 펴라. 그리고 핫한 파티걸들 사진과 색사하고 유쾌했던 그날의 분위기를 감상하시라. UV, 지나 앞에서 미취학아동들처럼 헤머거리는 MAXIM 스태프들 연상은 덤.

섭외 요청 게시판을 가장 뜨겁게 달군 그녀?



'MAXIM 표지에 현아가 나온다!' 는 상상만으로 독자를 대동단결시키다니 역시 그녀는 패왕색기의 종결자였다. 게시판에서 1100회 이상의 조회수, 찬성 32표의 위엄을 직접 확인하시라. 그녀의 MAXIM 표지를 염원하는 수컷들의 외침이 이렇게나 엄청나다. 현아님, 무릎 꿇고 연락 기다리게요.

MAXIM ONLINE POLL

MAXIM 독자들이 자기 몸뚱이에 부착하고 싶은 근육은?



1위

초콜릿이 울고 갈 식스팩 복근 (50.9%)



2위

그녀의 뱀그릇을 비빌 혀 근육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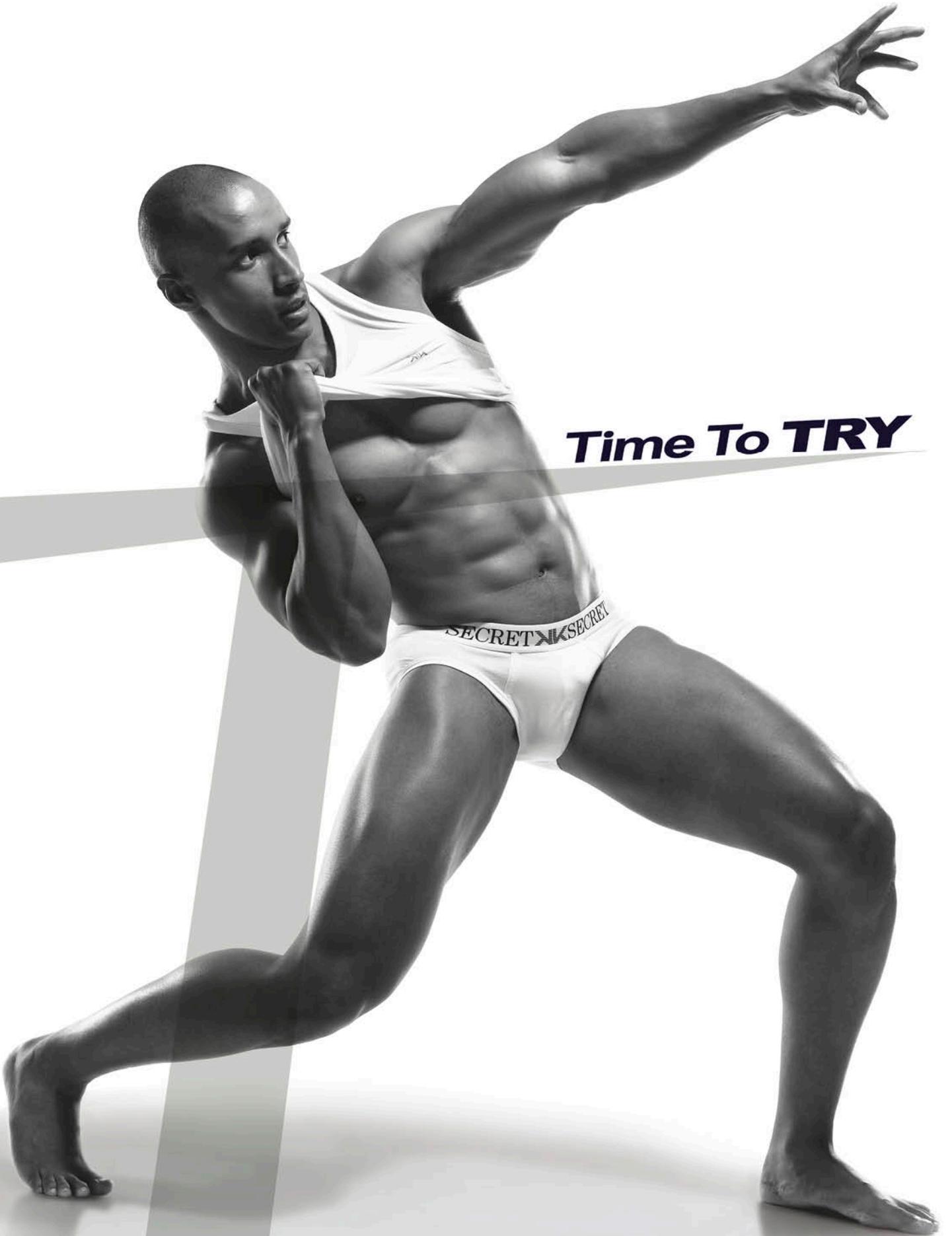
3위

소지섬이 형님 할 멋진 등판 (15%)

여름이다. 잘 감춰왔던 원뿔을 이제는 잘게 쪼개야 한다. 뱀센 운동이 귀찮다면 혀 운동도 괜찮다. 일짚아, 입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편 4, 5 위는 각각 종마의 말뚝지 (9.5%), 눈 깔게 하는 브록 레스너 승모근(5.7%)으로 나타났다. 남들 꿈도 크서.

TRY

Time To TRY



CIRCUS M

성인물의 흔한 줄거리

역시 정비공 만한
직업이 없지?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신속희

과외 선생님

1. 학생이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함.



2. 터질 듯한 숨가를 가진 교사가
알려주겠다며 학생의 옷을 벗김.

바이브레이터의
초당 진동값은...



3. "팔팔팔"



헬스장

3개월 하시면
50%입니다.



영양이를 좀 더
뒤로 빼고.



1. 근육질의 트레이너가
여자에게 접근함
2. 운동법을 알려주면서
여기저기를 더듬음.
여자는 반항하지 않음.
3. "팔팔팔"
(유독 오래함)

정비공

홍수 난 것 처럼
물이 계속
나와요.



1. 수도관이 고장나
정비공을 부름.
2. 엄청난 근육질의
정비공이 맨 몸에
멜빵바지만 입고
여주인이 혼자 있을 때
집을 방문함.
3. "팔팔팔"

병원

정밀 검사를
받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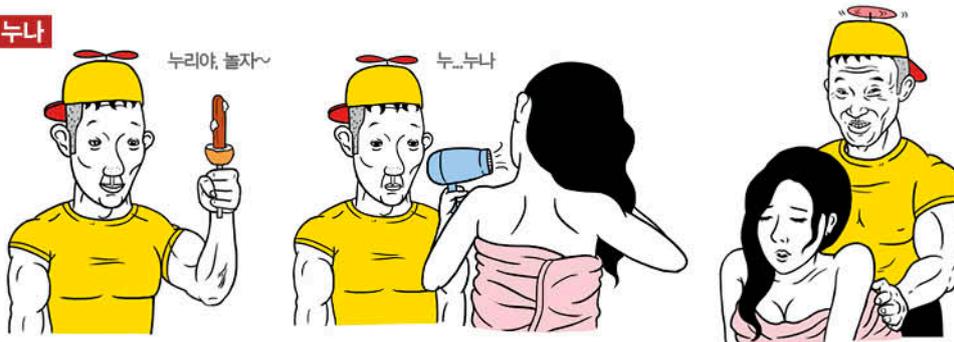


1. 초췌시 환자가 아프
다며 병원을 방문함.
2.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여자의
상의 탈의를 요구함.
3. "팔팔팔"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친구 누나



1. 친구네 집에 놀러감.
2. 친구의 누나가 샤워를 막 끝내고 머리를 말리고 있음.
3. "팔팔팔"

직장상사



1. 미모의 여직원이 결재서류를 제출하러 사장실에 들어감.
2.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재 서류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함.
3. "팔팔팔"

원주민



1. 미모의 아나운서가 미지의 섬에서 만난 원주민들을 소개함.
2. 하얀 피부의 이방인이 신기한 원주민들이 아나운서에게 달려들.
3. "팔팔팔"

원정녀

1. 전화하는 장면에서 시작. 여자를 부름.

2. 여자에게 이상한 옷을 보여주며 한번 입어보라고 강요함.

3. "팔팔팔"



번외편: 시간을 멈추는 기계

놀러볼까?



모기 공략집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자.

BY 송홍민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윤정

플래시 뱅



효과 레벨 1

모기는 파장이 짧은 푸른색, 보라색, 검은색을 좋아하고 밝은 색은 굉장히 싫어한다. 외출할 때 총천연색 티셔츠로 꾸미면 안전! 단 친구들도 떨어지나갈 수 있으니 주의.

랜턴 오브 더 살충



효과 레벨 6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모기는 물론 온갖 날벌레들을 학살할 수 있다. 전기 충격음을 듣고 있으면 등골 서늘한 타격감이 전해지며 납량 특집 효과가 있다.

약점 1. 시각

모기

임신 중인 암컷 모기. 평소에는 풀만 먹고 살지만 이때 고기 한 번 먹어야 튼튼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지 해장국을 찾는다. 알고 보면 눈물겨운 모정인 거다.



약점 2 후각(더듬이)

허브의 가호



효과 레벨 7

모기가 싫어하는 강한 향의 허브를 키워 집 안을 모기 안전 지대로 만들자. 특히 구문초는 살아 있는 모기장으로 불릴 정도로 효과가 탁월하다. 단, 일정 확률로 사람도 이 냄새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독해. 그 외에도 레몬밤, 로즈마리, 캣닢, 타임, 라벤더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안티 모스quito 엘리크서



효과 레벨 8

다 귀찮으면 모기 접근 방지제 스프레이, 로션 등이다. 1946년에 미국 육군에서 개발한 화학물질인 DEET는 가장 효과적인 모기 퇴치약으로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의 정수다. 8시간 이상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99.9% 막을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아이템.

트랩 오브 블랙 슈가



효과 레벨 9

모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감지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이용해 임의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모기를 유인한 다음 탈출 할 수 없는 끈끈이로 인생 조지는 자육의 트랩이다. 대량 살상이 가능!

피 빠는 애들이 주로 무서워 하는 마늘



효과 레벨 4

마늘즙을 창틀에 뿌려놓으면 모기가 접근을 안 한다. 단, 사람도 접근을 안 한다.

포션 오브 계피



효과 레벨 3

수정관을 많이 마시면 피부에서 은은하게 계피향이 배어나와 모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 계피 사탕을 먹고 입냄새를 풍기는 방법도 있다. 둘 다 맛없다고? 그럼 짚구 먹던가.

사워



효과 레벨 2

모기에게 땀 냄새는 상어에게 피 냄새와 같다. 입내 제거용 데오도란트를 상비하고 무엇보다 자주 씻자.

이거 효과 있는거?

없다

모기 퇴치 앱

신란 중인 암모기가 수모기를 싫어하는 점에 착안, 수모기의 날개 소리와 비슷한 주파수 120~150kHz를 발생시켜 암모기를 쫓아주는 원리의 앱이다. 하지만 곤충학자 물리 커크에 따르면 모기나 곤충은 대부분 전자 파장이 아닌 화학적 냄새에 반응할 뿐이라고 한다. 이거 켜놓고 효과 봤다면 단순한 플라시보 이펙트일 뿐. 모기는 박쥐가 아니다.

있다

천연 모기 덫 만들기



4. 페트병에 넣은 뒤 뚜껑을 닫는다

물고기 잡는 어항처럼 페트병을 질라 앞부분을 가꾸로 고정한다. 따뜻한 물(40도) 200cc에 흑설탕 50g을 섞은 다음 이스트 1g(중요!)을 넣어주면 끝! 겉에 땀 붙여 내부를 어둡게 한 다음 오숙한 곳에 놓아두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 당신은 모기 자육을 보게 될 것이다!

모기와 결국 맞짱 뜨길 원한다면

1. 진공 청소기 - 모기 흡수
2. 라이터 + 살충제 - 간이 화염 방지
3. 전기 모기 라켓 - 벌금의 타격감. 재미는 있는데 팔은 열라 아프다. 감전 위험도 있음. 집에 두었다가 얼마한테 이걸로 두드려 맞는 수도 있다.





Pure Scandinavian Style
COPENHAGE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

[연세점] 제주중문연세점 (06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장신_더와이즈 (02-2143-1922) 신세계백화점 천안_예진시계 (041-640-5081) AK PLAZA 수원_달스시계 (031-240-2199) NC백화점 강서_달스시계 (02-2667-8508) / 아람_타임에버뉴 (031-701-6841) 뉴코아백화점 일산_타임에버뉴 (031-900-5182) / 울산_타임에버뉴 (052-210-4010) 2001아울렛 중계_타임에버뉴 (02-3399-8222) 세이백화점 대전_글로리타임 (042-257-7745) 이마트 자양_타임에버뉴 (02-455-6841)

[판매처] 서울(02) 이와치 명동 (771-7033) / 타임머신 (6388-2927) / 패션존 (3398-7527) / 워치북 (070-4138-5090) / 드와치 (2200-1355) / 시도 (463-9788) / 정우상사 (3424-0794) / 타임21 (3424-7083) / 타임게드 (324-6272) / 타임시모 (6373-7743) / 타임월드 (3132-4108) 경기(031) 사본유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파니 (441-0158) / 달타임 (413-7656) 경기(032) 대성 (325-7487) / 뽕까동 (662-0686) / 카시오프유 (502-7138) 광주(062) 타임엔젤포 (222-3114) / 타임파티 (226-0305) / 골드메니아 (410-0138) 황주 보보스워치 (010-5494-5915) 대구(053) 광주나라 (256-0975) / 골드스워치 (424-4442) / 레프 (425-0157) / 스위스 (639-5252) / 신세계루스텍 (666-3316) / 주얼리아 (428-2668) / 대백프라자 (254-3977) / 해피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공복 (258-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산청 (253-5354) / 서울시계 (245-0625) / 왓웬 (919-4704) / 칠드타임 (245-8359) 김해(02) 시계백화점 (337-8166)

HOT GOLFER 소피 혼

호쾌한 드라이브 샷만큼이나 시원한 각선미를 뽐내는 섹시 골퍼가 나타났다!
 BY KEN GEE PHOTOGRAPH STEVE READ



자타 공인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골퍼'가
 당신 마음을 향해 초강력 티샷을 날리는 중이다.

MAXIM과 인터뷰하기 위해 영국에서 날아와주다니 천사가 따로 없다. 골프 역사상 당신만큼 섹시한 선수는 없었다. 진짜, 정말이다. 반갑다. 골프도 이제 좀 재미있고 섹시해질 필요가 있다. 골프는 너무 관습에 얽매어서 고리타분한 면이 있다. 특히 내가 있는 영국에서는 더한 편이다. 여자 골퍼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필드에 오르면 다들 놀라고 심지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난 골퍼가 좀 더 재미있고 아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경기를 더 아찔하고 강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드라이브 샷이지.

드라이브 샷의 비거리가 얼마인가?
 270야드(약 250m) 정도다.

제길. 여기 있는 남자 스태프 중 270야드를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자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그만큼 못 치면 어찌해야 하나? 관두거나, 아님 그냥 고추를 떼야 하나? 푸하하. 그럴 리가. 보통 남자들은 너무 세계만 치려고 한다. 그러니 비거리가 안 느는 거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골프 클럽이 공의 어딜 어떻게 때리는지에 집중해보라.

당신은 많은 PGA 행사에 참가했다. 듣자 하니 프로 골퍼도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 하우스에 들어오면 완전 퍼져서 제멋대로 빈둥댄다는데, 사실인가?
 미식축구 같은 다른 스포츠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상상에 맡기겠다.

그런 남자들도 당신 옆에선 다들 젼틀맨이 되어 능글맞게 당신을 꼬시려고 난리겠지?
 난 숙녀처럼 그들과 최소 1m 거리는 늘 유지하고 있지.(웃음) 일하는 중이야! ☹



이 화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나이스 샷'이지.



HELL DIVER

1942 SB2C



공식수입원 에이맨인터셔널 1644-3885 | 총판점 프로워치 02-779-6964



CELEBRITY & CRIME

공향패션이고 파파라치고 법 앞에선 알짱없다.
DESIGN 전은경 IMAGE Getty Image



CRIMINAL QUIZ

국내의 셀러브리티들이
출송한다면 어떻게?



- 다음 중 칩사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카칩을 좋아해서 생긴 별명이다.
 ② 이번 필리핀 체류 건이 세 번째 도박 혐의다.
 ③ 재기에 가장 큰 힘이 된 사람은 황기순이다.
 ④ 연루된 사건으로 <황금어장: 라디오스타>가 막을 내렸다.
- 다음 중 그랜드 허누의 혐의가 아닌 것은?
 ① 무면허 음주운전
 ② 대마초 흡입
 ③ 주가 조작 의혹
 ④ 미성년자 원조 교체



- 다음 중 킬러 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운전 중 뺑소니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② 1980년대의 국산 예로들에 주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③ 그의 범죄는 제45회 사법시험에 예시로 출제된 바 있다.
 ④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영화 <킬러 조>의 주연이다.
- 다음 중 류시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류승룡의 친동생이다.
 ② "나를 추월하는 차는 반드시 따라 잡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③ 드라마 <굿바이 마늘>이 종영된 뒤 실제로 이혼했다.
 ④ 파동 류씨 종손 자격으로 엘리자베스 2세의 통역을 맡았다.

1. ② 2. ① 3. ② 4. ②



마리화나 흡입 후 운전
POINT '어디서 좀 놀아본 언니'의 필수 요소인 두터운 깃털머리가 인상적인 그녀. 앞머리에 개념을 싹 싹 먹었는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미약 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 역시 약 빨고 찍어야 저런 당당한 샷이 나오는구나.



상습 음주운전
POINT 이제는 경찰서를 힐튼 호텔 VIP 처럼 드나든다는 패리스 힐튼은 니콜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만취 상태의 그녀에겐 경찰관이 브래드 피트처럼 보였는지 유혹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남자친구 폭행
POINT 현재 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AV 배우인 토리 블랙. 화보나 영상 속 능염한 이미지와 다르게 살짝 찡진 마스크라 구하라 숨기만큼 청순하다. 남자친구가 전생애 나라를 구하다 말았나 보군.



PRINCESS OF 폭행

POINT UFC 최고의 옥타곤 걸, 아리아니 셀레스티가 실마 호텔방에서 남자친구를 후려 팽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구해선 눈물 셀카를 잊게 만드는 미모와 떡볶이 같은 새빨간 입술이 마치 이쑤시개로 콧 피르면 터질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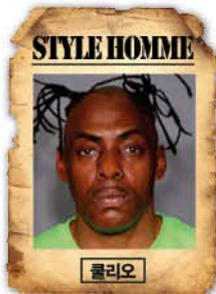
취미가 범죄
POINT 롯데리아 시절의 남상미를 보는 듯한 풋풋함이 아직 남아 있는 기쁨비적인 머그샷. 영화 <행운을 돌려줘>를 찍고 나서 정말 행운이 없었는지 하는 일마다 범죄가 되는 할리우드 최고의 '마이너스의 손'.



'4회' 졸업생



가정폭력
POINT TV에서 기어나온 사다코가 다시 우물을 찾게 만들 정도로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는 사실 잘나가는 시트콤 배우였다. 근 몇 년간 계속된 약물 복용과 음주운전 스캔들은 고영육이 탐낼 정도로 어려 보이던 그녀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신호위반
POINT 기존의 단정했던 프레데터 컷과 다르게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그의 레게 헤어는 체포 당시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하다. 매두사 같은 남자 같으니.

섹시, 상쾌함 그리고 가벼운 카스 라이트

지금 카스 라이트를 손에 든 채 당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들은 누구일까. 한없이 핫한 섹시 바디에 상큼발랄한 미소를 띤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저 두 여인말이다.

“운동하면 근육이 울퉁불퉁해질 것 같다는 건 편견이에요. 하루 4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30분의 근력 운동이 완벽한 몸매를 만듭니다. 여성의 섹시함을 완성하는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운동인거죠. 여기에 무더위를 식힐 상쾌한 카스 라이트 한잔이면 더할나위없겠죠.”

헬스 트레이너 김진주(PTMaster, 27세)

정답은 퍼스널 트레이너(PT)다. 아직 남자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지금 당신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 두 여인, 김진주와 김경아처럼 자신의 몸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몸매를 완벽하게, 그리고 섹시하게 다듬어주는 여성 트레이너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카스 라이트를 평소 즐겨 마신다며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술을 금해야한다는 편견을 산산조각 냈다. 먼저 드림성형외과에서 뷰티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경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전 여름만 되면 거의 매일 술을 마셔요. 너무 살 빼는데에만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답니다. 먹고 싶은 걸 먹되 양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즐기야만 몸매 관리에 성공할 수 있어요. 전 원래부터 카스 라이트 매니아였어요. 운동을 마친 뒤 편의점에서 카스라이트 캔을 구입해 사위한 뒤 마시면 몸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이지 더군다나 칼로리까지 33%나 줄었다니 더욱 걱정없이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PTMaster라는 에이전시 소속에 있는 김진주 또한 카스 라이트 예찬론을 이어간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지만 술 자체의 칼로리는 별로 높지 않아요. 결국 안주를 자제하는 게 문제죠. 전 토마토나 크래미같은 걸 곁들여서 양껏 맥주를 마시는 편이에요. 운동을 마치고 상쾌하게 하루를 마치는데 맥주는 필수품 아닌가요? 전 촬영 바로 전날에도, 보디빌드 대회에 나갈 때도 전날에 카스 라이트를 꼭 1캔씩은 마시고 자요.”

그녀들은 상쾌한 카스 라이트와 함께 몸매를 섹시하고 완벽하게 다듬어보라고 앞다투어 권한다. “특히 여성들이 근육이 너무 거대해질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하지만 운동을 하면 쇠골이나 어깨 라인이 잘 드러나서 훨씬 더 섹시해 보인답니다. 무엇보다 합업이 되면서 다리도 길어보이고 허리도 잘록해져요.” 김진주

“전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도 부분만 하는 편이에요. 특히 복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죠. 마시고 싶은 카스 라이트를 맘껏 즐기면서도 규칙적으로 부분 운동만 했더니 피트니스 모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맥주와 운동 함께 즐기, 정말로 쉽습니다.” 김경아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 카스 라이트를 마시며 섹시 바디를 다듬는 두 사람. 이제 당신 차례다.



“몸매 관리를 위해서는 맥주를 마시면 안될 것 같다고요? 웬걸요. 전 기회만 되면 상쾌한 카스 라이트를 마시며 몸도, 마음도 시원하게 가꾸곤 하는걸요. 칼로리가 완벽하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입술에서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상쾌함이 운동의 피로까지 완벽히 날려줍니다.”

헬스 트레이너 김경아(드림성형외과, 29세)

우리나라 대표적인 라이트 맥주, 트리플 호핑(Triple Hopping) 기법으로 맥주 맛을 높였고, 탄수화물 발효를 극대화해 칼로리를 33%나 낮췄다. 영하 4도에서 숙성시켜 상쾌한 맛이 극대화된 그야말로 스마트하고 트렌디한 맥주.

타투할 때 가장 아픈 부위 TOP 5

“조상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고통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싶다면 도전해보시든지. BY SCOTT NEUMYER DESIGN 전문경



타투리스트 아미 제임스가 '절대로 타투 하지 말아야 할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네가 아무리 마초라도 이걸 정말 무지막지하게 아프다고!"

1. 손가락 사이와 손바닥

제임스는 친구가 손바닥에 타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처음엔 참을 만했던지 약간 움찔하는 정도였지만, 타투 기계가 손바닥을 향했을 때의 표정은 정말 불만했다고 한다. 그런 오두방정 떠는 모습은 난생 처음 봤다나?

2. 몸통과 갈비뼈

갈비뼈 부분에 타투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지만 요즘 유행하는 패션 코드다. 다시 말하면 제임스는 상체를 탈의한 채 그의 손길을 암전히 받아들이는 새끼녀의 옆구리 살을 매주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오, 나도 에디터 말고 타투리스트나 할걸.



3. 후두 부분(목 뒤)

그는 어떤 남자 고객의 목에 한아(일본 도깨비) 타투를 해준 적이 있다. 그 남자는 암전히 타투를 받고 조용히 떠났지만, 문을 나서면서 "다신 이 미친 짓은 안 할거야" 라고 되뇌었다고.

4. 팔꿈치 안쪽

"이 부위에 타투를 하는 고객 대부분이 빈사 상태에서 지옥을 거니는 것 같았다"고 제임스가 말했다. 딸근이 아무리 두꺼워도 여기는 정말 개같이 아픈 부위라고 한다.



5. 무릎 뒤쪽

제임스는 다리 전체에 타투를 하고 싶다는 고객을 시술한 적이 있다. 물론 타투를 하는 60~100 시간 동안 그 인간 입에서 신음소리 외에는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최악의 헤드 타투 WORST 3

노악자나 심악자는 우리 독자가 아닐 테니 그냥 봐도 무방합니다.



뿔어뻡 헤드 타투

채권 회수율 100%를 자랑하는 뿔어뻡 타투. 근데 형님, 정말 시원하게 뿔으셨네요.



OPEN

"수지아, 오빠 못 믿나?" 타투

당신을 못 믿는 여친에게 뇌를 꺼내어 보여 주고 싶으신가? 열도 받는데 머리도 좀 식히고 싶겠지. 애꿎은 전봇대는 그만 걸어차고 이 타투를 활용하도록 하자!



Code name: 미국산 1등급 인육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야 할 때, 형님들께 진심을 보이고 싶다면 시도하라. 단, 바코드에 찍힐 때 주름 안 생기게 주의할 것.

2012년, 자신감 있는 바디 실루엣을 찾아라!

여성형 유방증,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만나보자.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운동을 통해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면 가슴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성형 유방증은 가슴 안에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운동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이 복잡했으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함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MAXIM과 누들러가 뽑은 듣보잡 라면 TOP 5

재야의 고수를 찾아서! BY 누들러 DESIGN 전은경



라면 풀여줄 여자 구해요.



누들러가 MAXIM에 처음으로 글을 신게 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존재감 없는 남자 사람에게 불год했다. 하지만 병신미에 대한 열정과, 과감히 얼굴을 파는 쪼다 근성 덕에 지난달부터 잡지 초반 페이지대로 진입하는 쾌거를 일궈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누들러처럼, 때론 라면들도 그와 유사한 운명을 지니기도 한다. 습관적으로 신라면을 사고, 일요일이라 짜파게티를 사고, 태티서가 뮤직뱅크에서 1위했다고 삼양라면을 사는 당신 때문에 재야에 묻힌 라면들을 준비했다. 그렇다. 이번 달은 듣보잡 라면 특집이다.

김면발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라면을 선호
 좋아하는 라면: 나가사끼 싫어하는 라면: 치즈라면
 없는 것: 여자친구 가진 것: 시간과 정액
 좋아하는 아동 배우: 사토미 슌지
박스프 달고 안 매운 초딩 입맛을 지향
 하고 싶은 말: "나와 같이 어린 허를 지닌 형제 자매들이여, 김면발의 주장은 다 개소리다. 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평가 기준

김면발: [5 faces]

박스프: [5 faces]

← Fuck! Bad Not Bad Wow Olleh! →

1위 팔도 즉석 라볶이

WOW!

OLLEH!

김: 김면발, 박: 박스프

B급 라면계의 이명희

김: 다소 어린 연령대의 소비자를 다분히 의식한 디자인.
박: 난 처음부터 라볶이 라면이라는 것을 본 순간, 팔도에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김: 거짓말하지마.
박: 팔도가 얼마나 무모한 회사인지 몰라? 농심이 거부한 경규 웅의 꼬꼬면 아이디어를 OK하고, 부산 밀면, 놀부 부대찌개라면 등 하여간 요상한 라면을 만들어 팔고 있는 회사잖아. 근데 이걸 그중에서도 듣보잡, 카테고리기가 기타 라면으로 되어있어.
김: 어쨌거나 수염 난 아저씨가 이걸 끓이고 있으면 발목을 잘 살펴봐야 해. 전자발찌가 있을 것 같아. 취향이 드러나는 라면이랄까.
박: 끓이는 것도 실험적이고.
김: 라볶이라지만, 비빔면처럼 물을 버리지 않지. 대신 400mL만 넣고 끓이면서, 분말스프와 액상스프 2가지를 넣어. 군말 없이 따르는 수밖에.

박: 맛은 어때?

김: 쫄쫄쫄쫄한 면발이 일품! 그동안 우리가 하얀 국물에 너무 정신을 잃고 있었어. 이 녀석이 고요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지는 구면. 일렁거릴 가슴은 없지만, 무언가 일렁거려. 근데 매운맛보다 단맛이 강해.
박: 그게 바로 내가 흥분하는 이유지. 매콤하기보단 달콤하니까 난 달콤한 게 좋아. 물을 400mL 밖에 안 넣어서 그런가? 물이 적당히 줄어들어 면에 잘 배어들어 있어.
김: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면 재발이 될 텐데 아쉬워.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흠이지. 홍보만 잘된다면 짜장 라면, 비빔 라면이 판치는 B급 라면계의 이명희가 될 수 있을 거야.
박: 이명희?
김: 작년 미스 맥심 우승자. 오! 나의 뮤즈.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 모습을 알현할 수 있다면. 되도록 화보 촬영 때, 핫팬츠를 입고 게실 때.



2위 농심 메밀소바



특 쓰는 맛이 있네

박: 면을 끊어 체에 치고, 함께 들어 있는 액상 소스와 무 블럭으로 초유(소바 간장)를 만들어야 해. 네가 만약 연애를 한다면, 애인에게 "자기는 면 만들어, 나는 소스 만들게" 이렇게 말해서 복잡한 조리 과정을 수월하게 분담할 수 있겠지. 나처럼.

김: 닥쳐, 그깟 사랑놀이, 맛이나 논하겠어. 까무잡잡한 면이 처음에는 너처럼 비호감이긴 했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나니 음식점에서 먹는 메밀과 거의 차이점이 없었지. 하지만 나는 소스가 더 좋아. 건더기도 제법 있고.

박: 근데 와사비 향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김: 그게 매력이지. 너처럼. 와사비 향이 코를 움켜쥐고는 놓아 주질 않아서 처음에 좀 당황하긴 했는데,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더 맛있게 느껴졌어.

박: 확실히 농심 홈페이지 라면 코너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을 맛은 분명 아니야.

김: 재야의 고수가 여기 있었구먼.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도.

박: 연애를 안 하는 사람도.

김: 스음...

3위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너희가 불닭을 아느냐

박: 봉지 디자인부터 오줌을 지리게 하는구먼. 오죽 매우면, 계란국을 만드는 별첨 스프를 동봉했을까.

김: 화장실은 저쪽에.

박: 그나저나 불닭볶음면이라면서, 왜 건더기가 하나도 없지?

김: 불닭볶음면이라지만 불닭 따위 없다는 게 함정이지. 조리할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이거 틈새라면만큼 매운 것 같아.

박: 그래도 단순히 매운맛만은 아니야. 매운맛에 질겁하는 나도 이 정도는 맛있게 매운맛이라는 걸 알아.

김: 네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알고 있고?

박: 네 정액이 넘쳐나는 건 알고 있고?

김: 어머? 그래서 맛이 어떻다고?

박: 맵지. 하지만, 매운맛 뒤에 감칠맛과 함께 적당한 달콤함까지 어우러져 있어!

김: 음, 그건 그래. 누군가 이걸 맵다고만 한다면 네 갓놈이 김치와 불닭과 이명희에 대해 뭘 아느냐며 따지겠지.

박: 먹기 전에 빠르게 한 통으로 위장 벽을 미리 코팅해 둔 것이 유효했어. 안 그랬으면 한 젓가락 먹고는 울며 도망쳤을 거야.

4위 MAMEE 계운한면



외국을 먹고 왔소

박: 고훈 이름 한번 빌어먹게 잘 지었네. 계운한 면이라니. 이름은 둘째치고라도, 제조사가 말레이시아 회사야.

김: 자극히 한국적인 저 말장난 숨씨 좀 보라고. 역시 FTA는 무서운 거야.

박: 말레이시아 라면이 마트 매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니 여기가 바로 What a Wonderful World!

김: 하지만 맛은 10% 부족한 꼬꼬면이지. 경규 웅의 수십 년 짝 밥을 베끼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이름만 웃긴 라면.

박: 면발도, 국물도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맛의 깊이가 없다랄까?

김: 그건 그래. 허끝에서 맛을 느끼려고 하면, 이내 맛이 사라져 버려. 개운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박: 아류의 느낌이 물씬 풍기지.

김: 원래 뭔가 하나 잘되면 비슷한 라면들이 우후죽순 나오는 법이니까. 꼬꼬면이 나오고, 나가사끼 짬뽕이 등장했듯.

박: 근데 나가사끼 짬뽕은 꼬꼬면보다 맛있잖아.

김: 닥쳐, 아무튼 FTA는 무서운 거야.

5위 (주) 독도 독도와 함께라면



이리로 먹어주마

박: "독도는 우리 땅. 그래서 우리 밀 100%로 독도 라면을 만들었다." 탄생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나만 그런 거야?

김: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은 법이지.

박: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많지. 중력 때문에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거나, 네가 병신이라 연애를 못한다거나 하는 것들.

김: 이따 위닝할 때 보자. 맛은 어땠나?

박: 독도 맛이 나. 애국가라도 부르면서 먹어야 할 것 같아. 독

도 사랑이 일본 총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면발은 차차하고라도 국물이 너무 탁해. 라면 국물이 아니라, 순대 국밥 같아. 시원한 느낌보다는 맛없이 진하기만 한 느낌.

김: 우리 말을 썼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렇다고 면발이 일반 라면보다 더 쫄깃하거나 식감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라면을 애국심으로만 살 수는 없는데.

박: 밀은 국산인데, 감자 전분은 독일산이라는 것도 특이 사항.

김: 내가 말했지. FTA는 무서운 거라고. 🇰🇷

이달의 별첨 스프
산타 라면친구 해물



편의점에서 쉽게 마주했던, 동시에 쉽게 지나쳤던, 라면에 넣어 먹는 별첨 스프의 한 종류. 그러나 300원 짜리라고 알았다가는 큰일 난다. 파와 새우는 중국에서, 복어는 러시아에서, 오징어는 페루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 작은 별첨 스프 안에 아시아도, 유럽도, 남미도 들어 있다네! 지구촌이라는 말은 실재하는 것이었어!

참고사항: 꽤 맛있다.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핵심** 교양강좌
 위대한 러시아 백마 **에카테리나 여제**
Ekaterina II
 1729~1796

이번 호 이야기는 어쩌지 지난호의 프리드리히 대왕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군요!

엘리자베타 여제의 죽음 이후 러시아 황제가 된 포트르 3세는 다 이긴 전쟁을 포기하고 프로이센에 유리한 강화조약을 맺어준다!

프리드리히형님 저 잘했어?
 ㅋㅋ

당연히 러시아 군부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짜르를 짜르자?

부부 클리닉 사랑과 반란 (근데 사실 이 여자도 독일인)

포트르 3세의 마누라인 에카테리나가 그런 불만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더 이상은 NAVER 바보남편 OUT!

포트르3세는 퇴위후 독살 당함

남편을 죽이고 황제가 된 에카테리나 2세는 부국강병에 힘쓰고 투르크 제국과 싸워 영토를 크게 넓힘.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

어제가 굶어모은 보석과 명품들을 쌓아둔 곳이 오늘날의 에르미타주 미술관

된장질도 이 정도 레벨이면 역사적 업적이지

그런 여제도 결국은 여자였으니, 제위기간동안 수백명의 남자들이 침실로 호출되었고... 여제의 애인들은 매우 후한 보상을 받았다.

사실 쿠데타 도와준 장군들도 내 애인들임 ㅋ

여제의 남자 공금채이었던 대물 포템킨 공작

조루는 시베리아행이다

난 폴란드 왕 시켜주심, 난 육군원수 연음

노년에 접어들수록 여제의 영색행각은 판타스틱슈비두바 마침내는 숫말과 관계를 맺다가 말을 매달아둔 줄이 풀려서 깔려 죽었다는 얘기도 있다. (물론 정적들이 퍼뜨린 괴담)

아~ 아~ 으악!!!

엄마한테 질릴대로 질린 아들 파벨 1세는 이후 여자는 황위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법으로 못박았다.

긴급출동SOS죠? 우리 엄마가 아바 죽이고, 애인들한테 계산 퍼주고 이제는 말이랑 그것들 -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doctor.co.kr

R A T 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세븐,
나 세 번하고 영화 찍었잖.

본격 폐쇄 호러 영화의 서문을 열다 두 개의 달

박한별과 한집에 고립됐는데 뭐가 공포스럽다고
이리도 호들갑이실까. DESIGN 신숙희

※ 어느 날 문득 눈을 떠 보니 낯선 집 지하실에서
깨어나게 된 박한별(소희)을 포함한 세 남녀.
이런 영화가 늘 그렇듯 애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낯선 집에 오게 됐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지하실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시간은 멈춰있고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제자리만 맴돌 뿐이다.
(〈큐브〉가 떠오르는 건 기본 타이트했지)
따지고 보면 낭랑 18세 여고생과 미모 포텐 터지
는 여자 소설 작가 그리고 20대 남학생 한 명이
고립된 상황인데, 끊임없는 탈출 시도라니...
이런 한심한 수컷 같으니라고. 황혼에서 새벽까지
즐거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이 어찌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란 말인가 이 어이없는 폐쇄 호러
영화는 오는 7월 12일 개봉 예정이다.

박한별의 호러 필모그래피

여고괴담 3



이때도 아마 이름이 '소희'였지?

요가학원



이건 뭐,
무서워하라는 거야,
S라인 감상하라는 거야?

두 개의 달



어.. 언니,
두피 마사지는
다음에 할게요.

※ 이리다 박한별 신들리겠네.

예고편 보고
오출 지리면
곤란해!



모든 예측이 무너질 것이다!

천재적이고 매혹적이며 독창적이다!
Radio Times

특별한 쾌감을 가져다 준다!
New York Times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마스터피스
The Playlist

기가 막힐 정도로 재미있다!
UGO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최신작은 없다!
Film school rejects

〈어벤져스〉 조스 웨던 제작군단

캐빈 인 더 우즈

THE CABIN IN THE WOODS

수입 (주) 조이엔터테인먼트/ KROG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씨네21i 청소년 관람불가

6월 28일, 영화가 끝나는 순간 열광이 시작된다!

시즌 오브 더 호러

호러 영화의 계절이 돌아왔다
역시 최고의 피서지는 극장이지! BY 송종민 DESIGN 서윤정

호러
농도 지수
↓



안 돼! 캠프 와서 뽀뽀하면 죽어!

캐빈 인 더 우즈

나홀로 집에서 호러 어벤저스를 본 것 같은 느낌
호러 영화 같은 의례적인 도입 부분 때문에 그저 그런 공포 영화로 생각하기 쉽지만 <캐빈 인 더 우즈>라는 제목만큼이나 뭘 말인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시나리오 보안을 위해 배우 오디션은 가짜 대본으로 봤을 정도. 한 가지 아쉬운 건 귀신도 때려잡을 번개신(크리스 햄스워스)이 주인공이라 긴장감이 한층 덜하다는 것. 하지만 그러다가 감놀하기 쉬운 거지! 골수 호러 팬들만 알 수 있는 수많은 패러디 코드들 찾는 재미도 쏠쏠. **6월 28일 개봉**



안 돼! 가슴 크고 섹시하면 죽어!

피라냐 3DD

내가 고자라니!
팔딱팔딱 뛰어오르는 자연산 활어회 같은 피라냐와 3D는 제법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피라냐가 당신을 향해 달려든다! 그런데 전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물속에서 출렁이는 켈리 브룩의 거대한 가슴... 후속작은 아예 작정하고 거대한 D컵 가슴이 연상되는 3DD가 됐다. 업그레이드된 피라냐는 물어뜯기만 잘 하는 줄 알았더니 파고들기도 잘한다. 새끼 피라냐가 여친 몸 속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매직 스틱을 들이미는 장면은 등줄기가 서늘. **8월 2일 개봉**



안 돼! 포스터 가장 자리에 있으면 죽어!

아웃사이드

당신의 이웃, 믿을 만한가요?
인기 작가 강풀의 동명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 열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바로 우리 동네 이웃일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다뤘다. 생활 호러 <데스티네이션> 시리즈에 비견할 만. 김윤진이 딸을 잃은 엄마로, <아저씨>의 김새론이 살해당한 여자아이로 나오는 등 출연진도 빼방하다. 그런데 강풀 원작 영화는 성공한 게 한 편도 없어... 과연 그 징크스가 이번에는 깨질지. **7월 19일 개봉**



안 돼! 비행기 타면 죽어!

무서운 이야기

호러 버전 아라비안 나이트
<기담>의 정범식 감독, <스승의 은혜>의 임대웅 감독,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를 연출한 김곡, 김선 형제 감독 등 호러 마니아 감독들이 뭉쳐 만든 옴니버스 호러 영화. 살인마에게 납치된 여고생이 살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는 전래 동화 스타일로 진행된다. 평소에 <오싹 오싹 공포 체험>이랑 <공포 특급> 같은 책 좀 읽었나 봐? 옴니버스라 큰 기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무서운 이야기는 이렇게 짧고 굵어야 한다고. **7월 26일 개봉**

비명 소리에
놀랄 준비해!



MAXIM 편집부가 지린 영화



에디터 송종민 **이벤트 호라이즌**
명대사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선 눈이 필요하지 않아.



에디터 이진영 **폐가**
교훈 폐가망신한 집에는 다 이유가 있는겨.



에디터 조용재 **서터**
토마 도구 귀신 찍는 카메라. 민트급. 네고 없이 팔아요. 꺾말 주셈.



디자이너 서윤정 **디 아이**
영화를 본 후 이식받은 눈이 불량품 일 줄이야. 눈알도 반품이 되나요?



에디터 손안나 **엑소시스트**
교훈 교회를 다니자.



GREEN GROOVE FESTIVAL 2012

0721 SAT > 0722 SUN DAECHUN BEACH

greengroove.net



국내 유일의 해변 페스티벌!

불꽃 축제와 결합된 환상적인 공연!

해외 빅 뮤지션과 국내 뮤지션의 특별한 콜라보!

당신이 상상하는 페스티벌, 그 이상!



음악 뿐 아닌 다양한 장르의 공연!

친환경 캠페인과 재생 컨테이너 부스!

대한민국 대표축제 보령 머드축제와 함께 진행!

TICKET

coupan^g 6월 15일 금 ~ 6월 21일 목

AUCTION 티켓 6월 22일 금 ~ 7월 20일 금

주최 Hanwha

주관 Hancomm

협찬 Asiana Airlines

FamilyMart

MAXIM

오파셀 미디어 bling Edm

Edm 그린 그루브 페스티벌

책 읽어주는 여자 무릎베개 할래?

BY 김희성 DESIGN 신숙희 COOPERATIONS (주)코리아하우스콘텐츠(031-955-1057~8), 시공아트(02-2046-2843)



✳ 예전에 소개팅으로 친해지게 된 남자 사람이 있었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개그 욕심이 좀 과했다는 거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예전에 존나 웃긴 일 있었는데...”로 시작하는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에피소드가 엄청 길고 재미없어서 억지로 웃느라 좀 힘들었다. 근데 더 최악인 건 그 이야기들이 다 <마음에 소리>에 나온 에피소드라는 거다. 박XX,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어때, <유주얼 서스펙트> 같지 않아? “아냐, 조석 좀 미친 거 같애 ㅋㅋㅋ”

하면서 본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다가 그렇게 지루하게 썰을 풀 줄이야... ‘지금 그 얘기 <마음의 소리>에서 본 거거든?’이라는 마음의 소리가 몇 번이나 입 밖으로 나올 뻔했는지 그때 그 소개팅남은 모를 거야...

EDITOR'S SCAN

(각 장 구성 방향으로 읽어)

> 미래인간은 우리 중에 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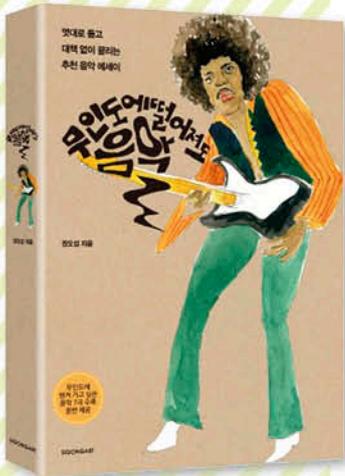
가을 미래에 가보기도 한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디게 오는 미래란 한지만...



시상 우리 주변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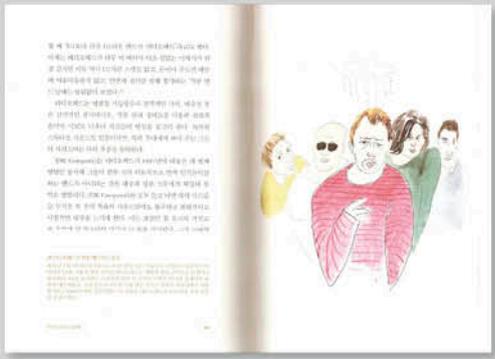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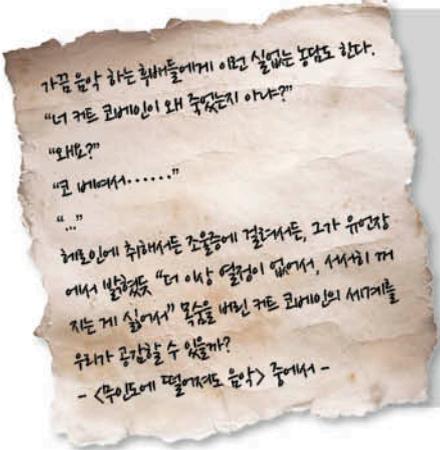


✳ 좋은 음악을 판별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일단 좋은 음악이 나오면 방 안에 공기가 팍 들어차는 느낌이 든다. 공기 밀도가 높아지고 선율이 공간 전체를 에워싸는 기분이 드는 곡을 만날 때면 땀 잠은 기본인데, 이 책에서 추천해주는 음악을 찾아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 이런 기분이었다. 득템한 거지.

이 책은 무인도에서 가족이 그리울 때, 친구가 생각날 때, 연인의 손을 잡고 싶을 때, 고독을 즐기고 싶을 때로 상황을 나눠 음악을 추천해주는데 무인도나 다름없는 자취방에서 적격함을 달래기에 딱 좋다. 첫절판 무인도 송을 추천해준 작가에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더 대박인 건 무인도에 챙겨 가

고 싶은 음악이 수록된 CD도 책 안에 부록으로 붙어 있다는 거다. 누군가 에디터에게 음악을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섹스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마감 때 폭풍 원고를 쓰게 해주는 ‘노동요’ 같은 걸 잔뜩 알려줄 수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 쩌.

EDITOR'S SCAN





GREEN GROOVE FESTIVAL 2012

0721 SAT > 0722 SUN DAECHUN BEACH
greengroove.net

AKON

INFECTED MUSHROOM

델리스페이스 | 10cm | 마이티 마우스 | 킹스턴 루디스카
House Rulez | Geeks | 라이너스의 담요

and **MANY MORE**



그린 그루브 페스티벌의 또 다른 MIDNIGHT STAGE
한여름 해변가에서의 MAXIM PARTY!!



GAME

CHARACTER OF THE MONTH

TOMB RAIDER: CROSSROADS

수많은 양덕의 가슴을 설레게 한 그녀. 라라 크로프트가 제대로 회춘해서 돌아왔다. 어디 데려갈 소속사 없나? DESIGN 신숙희



TOMB RAIDER

제작사: CRYSTAL DYNAMICS
플랫폼: XBOX360/PS3/PC
발매 예정일: 2013년 3월 15일

고생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섹시하다



LARA CROFT'S BOOB JOB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섹시해지는 라라 크로프트의 변천사를 살펴보자.

Tomb Raider 1(1996)

개발자가 풀리곤 치수 작업 중 실수로 만들어낸 저 미사일 승가는 유저님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Tomb Raider 2(1997)

뽕족했던 승가를 다듬고 새글 라인까지 만들어낸 제작자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1998

Tomb Raider: The Last Revelation (1999) & Chronicles(2000)

7등신이었던 캐릭터가 그냥 등신이 됐다. 얼굴을 수박만 하게 만들다니, 가슴골만 만들어주면 땡이나?



0번에도 여전히 라라 크로프트는 생존왕의 패기가 흘러넘쳤다. 게다가 더욱 탱글탱글하고 풋풋한 모습으로 돌아오다니. 스토리 초기화를 밥 먹듯 하면서 유저들에게 욕도 신명나게 얻어먹은 제작사지만, 라라 크로프트를 스물한 살로 돌려놓았다는 소식에 유저들은 만세삼창을 쳤다고.

'CROSSROADS'

부제가 원래 예정된 'TURNING POINT'에서 'CROSSROADS'로 바뀌었다. 뭐가 되었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을 암시한다는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셈.

따라서 게임은 20대의 라라 크로프트가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외딴섬에 추락하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물론 유저들은 설정상 백지 상태의 순수한 어린 라라를 조작해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긴박한 '서바이벌' 형식의 똥줄 타는 플레이를 즐기게 되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Man vs. Wild〉 우정출연
한번 하는 건 어떨까.



그냥 게임 화면이니
바지 내리지 말 것

Tomb Raider: The Angel of Darkness(2003)

여전히 비대한 가슴과 허리의 비율. 하지만 이제 좀 섹시한 느낌이 난다.

2006

2007

Tomb Raider: Underworld(2008)

40세라는 것을 의식했는지 미시의 농염함이 물씬.

Tomb Raider: Crossroads(2013)

어려진 탓인지 볼륨이 조금 줄었다지만, 소희나 현아랑 동갑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잖아.



어디 보냐?

나도 얼굴
나오려고

출렁은 종이로
느낄 수
없으니



죽거나 혹은 출렁거리거나 DEAD OR ALIVE 5

원작 디렉터(이타카기 토모노부)를 잃은 팀닌자의 또 하나의 망작 vs. 꽃 단장한 신작.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과는? 이제 세 달만 기다려봐!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완전히 새로워진 캐릭터 모델링

전작이 어여쁜 여자 인형 같은 분위기였다면 새로운 작품은 부드러운 동양인 인상의 실사풍 그래픽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달라진 얼굴과 분위기 때문에 복장과 헤어스타일이 아니었다면 "누구세요?" 할 만한 변화 거기에 격투로 땀에 젖는 맨살과 머리칼,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굴러서 더러워지는 몸과 옷, 단단한 근육과 부드러운 피부의 유연성까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인간적인 매력의 그래픽을 추구했다.



보르통하던 특유의 표정이 느껴지지 않잖아! 카스미짱 ㅠㅠ

진화한 데인저 존! 다이내믹 어트랙션

《DOA》 시리즈에선 다른 격투 게임에는 없었던 추락에 따른 스테이지 변화, 폭발하는 바닥, 달리는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데미지 등 '데인저 존'이라 불리는 스테이지 특수효과로 독특한 전술과 타격감을 연출한 바 있다. 최신작에서는 한층 진화해 지뢰밭으로 등을 떠밀거나 서커스 호랑이 밥으로 던져 주는 등 굴욕감을 선사할 다이내믹한 기믹들이 준비되어 있다! 새롭게 추가된 필살기 파워 블로를 사용하면 상대방을 다이내믹 어트랙션으로 자유 자재로 밀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으아

까울

카스미

사랑하는 오빠를 찾기 위해 당주의 자리를 버린 도주닌자

아야네

평생 카스미의 그림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불행한 운명의 쿠노이치



레이광



모든 것은 태극 안에 있는 별



히토미



천재 유도 소녀 히토미



크리스티



치명적 사관

코쿠로



팔극권 정면 대결



9월 27일 XBOX360, PS3 동시 발매

통상판 8,190원
초회 한정 가스미, 아이네 섹시
코스튬 다운로드 시리얼

컬렉터즈 에디션 11,340원
오피셜 비주얼 북
오피셜 사운드트랙 CD
DOA 캐릭터 엽서 8종
특제 캐릭터 메달 플레이트 10종
프리미엄 섹시 코스튬 12종 다운로드 시리얼



※ 상기 섹시 코스튬들은 발매 후 별도 유료
DLC로도 판매 예정

» 그 외

베이런



하야테



하야부사



잭



아키라



사라

뭐? 우리가 왜 그 외에!

세가의 긴관 격투 게임 <버추어 파이터>의 두 영웅,
격투마보 아키라와 돌가슴 사라 브라이언트도 게스트 참전!

HOT GAMES

E3쇼 소식에 방구석에서 마우스 붙잡고 군침만 삼키던 당신을 위로해줄 타이틀을 소개한다.
DESIGN 전은경

XBOX360



중철기

제작사: 캡콤 장르: 액션
본격 1인칭 (메탈 슬러그)라고나 할까. 모션 인식기인 키넥트를 이용해 허공에 손을 휘휘 저으며 엔진의 시동을 걸고, 포를 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 옆에서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8비트로 허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온다.



XBOX가 없다면:
모던 컴뱃 시리즈 그래픽은 중철기 안 부럽지만, 액정을 깨버리고 싶은 조작성이 문제. 가격: \$6.99 (앱스토어)

PS3



인디안~뽀!

버추어 파이터 5: 파이널 쇼다운

제작사: 세가 장르: 대전액션
국내에서는 항상 철권에 비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호쾌한 타격감과 고유한 조작감은 여전히 마니아들을 매료시킨다. 다만 조금 부족한 그래픽의 디테일이 아쉽다. 하지만 여캐가 이쁘니 10점 만점에 1억 점.



학생, 이것 좀 만져봐.



PS3도 없다면:
퍼더 바운드 파이팅 최초의 스마트폰 3D 대전액션에 뭘 기대했나? 낫다 편지만 누르자. 가격: \$0.99 (앱스토어)

PS VITA



알 고나 메이큐 맨스

메탈기어 솔리드 HD COLLECTION

제작사: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장르: 잠입 액션
우려먹기임은 분명하지만, PS VITA로 발매되는 첫 (메탈기어) 시리즈라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드래그를 통한 장비 교체, 줌인과 같은 모드를 도입해 기기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VITA마저 없다면:
얼티밋 어쌔신 잠입 액션은 맞는데... 의외로 재미있다는 사실이 더 기분 나쁘다. 가격: \$0.99 (앱스토어)

PC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판다리아의 안개

제작사: 블리자드 장르: MMORPG
새로운 대륙을 추가했고, 쿵푸 좀 할 것 같이 생긴 종족 판다렌을 플레이할 수 있다. 또 새로 추가한 클래스 수도사는 방어, 공격, 치유의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다양한 육성이 가능하다.



PC도 없다고?:
오더 엔 카오스 PC게임은 아니지만 파티 플레이까지 지원하는, 될 건 다 되는 게임. 가격: \$6.99 (앱스토어)

WORST GAMES ON E3 2012

그래도 억울하다면 이것들을 보고 위안 삼자.

1. New Super Mario Bros. U (Wii U)



이건 Wii U 자체가 문제다. 패드에 디스플레이를 넣은 건 단지 왼손 악력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2. Sing (Wii U)



“스크린이 아닌 친구들을 보면서 노래하세요”라니, 차라리 그냥 노래방을 가라.

3. Wonderbook (Sony)



모니터 속의 환상 세계와 판매가와 스틱을 잡고 흔드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

스캔하고
티켓받자!



“그대...
꿈꾸고 있습니까?
꿈꾸고 있다면 당신은...
돈키호테 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키호테 役 **황정민**

브로드웨이 불후의 명작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MAN OF LA MANCHA

샤롯데씨어터 Now Playing



Daum

뮤지컬 맨오브라만차

S+UUFF

다이슨 에어 멀티플라이어 타워 팬

자, 먼지 쌓인 선풍기를 꺼낼 시간이 왔다.
그런데 내 선풍기가 이렇게 못 생겼었나?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신숙희 ASSISTANT 이진영 MODEL 최혜연
COOPERATION 다이슨(www.kr.dyson.com),
에잇세컨즈(070-7130-2272)

흐흐, 아이스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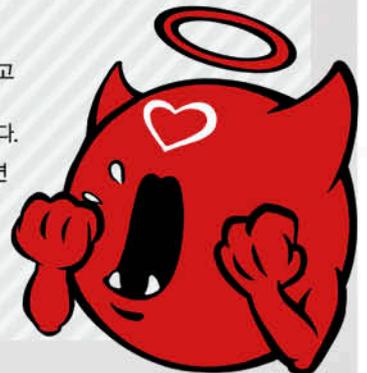
매년 여름 오로지 살기 위해서 선풍기를 꺼냈던 당신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졌다.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생긴 데다가 팬 없이 바람이 쏟아져나오는 것이 아주 신기한 다이슨의 에어 멀티플라이어가 바로 그것! "대체 바람이 어디서 나오지?"라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손을 넣어봐도 알 리 없는 당신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회전하는 하단 모터가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비행기 날개와 닮은 '에어호일(Airfoil)' 내부를 통과시키며 강력한 제트 기류를 만든다. 이 제트 기류가 만들어내는 강한 기류의 흐름이 바로 바람의 정체다. 어때, 가... 간단하지?
가격 79만 8천 원

좋은 점

- 예쁘다.
- 팬이 없어 청소가 간단하다.
-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한마디씩 해준다.
- 애기들한테 선풍기 팬에 손가락 잘린다고 겁주지 않아도 된다.
- 볼륨 방식이라 바람 세기 조절이 디테일하다.

아쉬운 점

- 선풍기에 입을 대고 "아아아아아" 소리를 내지 못한다.
- 강풍으로 작동하면 제트기 이륙 소리가 난다.
- 가격이...



원피스 에잇세컨즈

연극연 4 세 번째 작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헤롤드 핀터 作
현대 문학 사상 가장 지적이고 센스있는 연극

결혼 후, 더 욕망하라!

* 19세 이하 관람 불가

THE BEST PLAY LOVER

스캔하고
러버보자



2012.6.28 - 8.13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작 헤롤드 핀터 연출 오경택 출연 송영창 이승비 김호진

제작 (주)연극열전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SAC Ticket 02-580-1300 문의 02-766-6007

연극 열전
수요로 없이 원문 판매

www.thebestplay.co.kr

프리뷰할인 30% 공연 첫 주 6/27-7/1 공연 예매자 모두 적용 | 할인가_ 일반석 28,000원 / 자유석 21,000
모닝티켓 30% 매주 수요일 11시 공연 예매자 모두 적용 | 할인가_ 일반석 28,000 / 자유석 21,000

그 여름, 민박집에서 생긴 일

휴가지에서 때 아닌 비를 만나더라도 하늘을 원망치 말지어다.
민박집 방 안에서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교영은 MODEL 엄성미
DESIGN 서울청 ASSISTANTS 서현우, 이진영, 조종재
COOPERATIONS 세파스(goprohd.cafe24.com), 소니코리아(080-777-2000),
슈가포인트(070-7731-3596), 휴먼파워(www.diamond-tears.com),
한국닌텐도(www.nintendo.co.kr)



애플 뉴 아이패드

두꺼운 전국 지도를 대신할 지도 앱, 막히는 길을 피하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여행길을 도왔다면, 로맨틱한 배경음악을 선사할 뮤직 플레이어와 고화질 영화를 볼 수 있는 동영상 플레이어, 수천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기로까지 변신하는 뉴 아이패드야말로

궁극의 민박 엔터테인먼트 머신이다. 사과 마크의 친리가 어디 가겠나. 비 온다고 징징대는 그녀를 한 방에 잠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너무 몰입해서 당신과 놀아주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가격 32GB 기준 74만 원





**소니 HDR-PJ260/B
프로젝터 캠코더**

요즘에 누가 캠코더 따로 쓰느냐고 비웃던 그녀, 전면에 장착된 100인치 프로젝터를 보여주면 본능적으로 군침을 흘리게 된다. 평평한 벽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촬영 영상을 다 같이 볼 수 있다. 찍고 바로 보는 재미에 그녀가 카메라를 놓으려 들지 않을걸? 의외로 밝기가 좋아 낮이라도 실내라면 꽤 선명한 영상을 보여준다. 아직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지 못했다면 프로젝터로 로맨틱한 이벤트를 준비해도 좋겠다. 인생 한 방 바로 오늘 밤이다!

가격 99만 9천 원



파나소닉 루믹스 TS4

고프로의 강력한 헬멧 마운트 기능이 필요 없고 동영상보다는 사진을 더 많이 찍는다면 루믹스 TS4를 추천. 비닷가 모래를 막아주는 방진 기능과 12미터 방수는 기본이고, 길길대다가 2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괜찮은 터프한 카메라다. 아이폰처럼 GPS를 통해 촬영 장소를 쉽게 기록할 수 있고 거기에 3D 촬영도 된다! **가격 49만 9천 원**



고프로 HERO 2 익스트림 스포츠 캠코더

소녀시대가 흥가 체험을 하면서 팩팩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베어 그릴스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고프로 덕분이다. 하지만 이런 그럴듯한 영상만 찍어야 하는 건 아니지, 여자친구와의 사적인 영상을 찍는데도 딱이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을뿐더러 완전 방수기 때문에 어떠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뽑아준다. **가격 45만 원**



닌텐도 3DS

그녀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녀석을 의심해봐야 한다. 거추장스러운 안경을 쓰지 않고도 볼 수 있는 3D 화면은 누구나 "우와!" 하고 입을 벌리게 된다. 신기한 3D 세상 안에서 마리오를 이리저리 굴리다보면 지금 화장실에 뭐 하러 온 건지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할 지경. 큰일 치를 때 이 녀석을 들고 가는 건 명백한 치질 방조 행위다. **가격 22만 원**



마리오카트 7

그녀가 혼자 노는 꼴을 못 보겠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고르자. (마리오 카트 7)은 (카트 라이더)류의 게임이라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닌텐도 3DS 본체만 여러 대 있다면 게임 하나로 최대 8명까지 멀티 대전을 즐길 수 있다. **가격 4만 4천 원**

시디 듣고 싶은 날, 소니 디스크맨 D-777

〈건축학개론〉의 수지가 들던 시디피를 듣는다고 수지를 만날 순 없지만, 이제훈의 마음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지.

BY 송종민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운정 HELP 최창원

보조 배터리

껌 건전지는 부피는 얇았지만 저장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가 필수였다. AA 타입 건전지 2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다.

본체

경쟁 제품이 30mm가 넘는 시절, 19.8mm를 자랑했다. 작은 창을 마련해 CD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리모컨

일반적인 3.5 파이 단자가 아니라 마이크로 플러그 타입을 채용해 리시버(이어폰)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이 유일한 단점.

D-777의 Bass Boos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모컨이 필요했다.



소니 최초의 휴대용 시디플레이어인 D-50의 출시 10주년을 기념하는 모델. 이 제품을 마지막으로 〈디스크맨〉 브랜드의 시대가 끝나고 〈CD-WALKMAN〉 브랜드로 통합 된다. 32,800엔이라는 고가인 만큼 당시 최신 기술이 아낌없이 투입되었는데, 흔히 껌 건전지라고 불리는 얇은 배터리를 처음으로 도입해 19.8mm라는 초박형 사이즈를 자랑했다. 당시 경쟁 제품이 대부분 30mm가 넘었으니 업계 리더였던 소니의 기술력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0초에 달하는 일종의 버퍼 메모리 기술인 튜닝 방지 기능(Electronic Shock Protection)을 지

원해, 걸어가면서 들어도 음악이 끊기지 않게 되었다. 배터리를 대박 잡아먹긴 하지만 이 기술 덕분에 디스크맨이 워크맨이란 이름을 다는 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D-777이 명기로 추앙받는 것은 높은 출력에 기반한 고음질 기기였기 때문이다. 매우 힘 있는 저음역 재생과 또렷한 음색은 팝과 록 음악을 훌륭히 재생했다. 때문에 발매 18년이 지난 지금도 찾는 사람이 많아 높은 중고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거기에 최근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수지가 들고 나와 때 아닌 가격 폭등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우리는 그때

1. 행정 개편으로 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뀜
2. 케이블 TV 본방송 개시
3.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삼풍 백화점 붕괴 등 대형 참사 발생
4. SBS 개국
5.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세계는 그때

1.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5천여 명 사망
2. 음전리교가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 살포
3. 오를라호마시티 미연방 건물 폭탄 테러
4.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5 출시

지구촌 영상 음악



1995년 빌보드 싱글 차트

1. Coolio - Gangsta's Paradise
2. TLC - Waterfalls
3. TLC - Creep
4. Seal - Kiss From A Rose
5. Boyz II Men - On Bended Knee

가요톱10 5주 연속 1위 곡

1. 롤라 - 비밀은 없어
2. 김진모 - 잘못된 만남
3. 롤라 - 날개 잃은 천사
4. 노이즈 - 상상 속의 너
5. 박미경 - 이브의 경고
6. 서태지 - Come Back Home

그땐 몰랐지. 같은 소니라고 다 같은 소니가 아닌 것을

“찰라, 웅웅위위이이.... 이젠~ 버틸 수 없다고~”
조그만 창으로 CD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니 이내 맑고 깨끗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카세트테이프와 비교도 안 되게 선명한 음질을 듣자마자 저절로 “우와”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당시 국내에서 대중화된 것은 휴대용(이라고 하기에 무척이나 거대했던) 카세트 플레이어 위에 뚜껑을 열면 시디플레이어가 나타나는 형태(일명 CD 카세트)였다. 물론 이것만 해도 디지털 CD의 위력을 느끼기에 충분했지만 친구의 소니 시디피는 극단적으로 작은 크기임에도 무척이나 흥미로운 소리를 들려줬다. 단번에 소니 시디피는 나의 로망이 되었다. 그 후로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그것을 사는 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그만큼 소니는 도도한 가격을 자랑했다. 하지만 정작 구매 당일,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말았다. 비싼 가격에 망설이는 나에게 직원이 10만 원이나 저렴한 제품을 추천해줬는데 덜컥 그것을 구매하고 만 것이다. 그것도 물론 소니 제품이었고 디자인도 예뻐서만 소리는 천지 차이였다. 당시로서는 보급형 제품과 고급형 제품이 따로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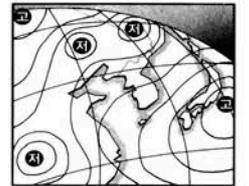
을 알 리가 없었다. 특히 친구가 쓰던 소니 디스크맨 10주년 기념 모델 D-777(1995년 4월 21일 발매)에 투입된 자원들은 대단한 것이었다. 비록 발매된 지 6년이나 지난 모델이었지만 나의 최신 시디피였던 D-EJ888보다 훨씬 나은 소리를 냈으니 말이다. 조금 더 얇고 배터리는 오래갔지만 고음역대의 답답함 때문에 많이 실망했더랬다. 하지만 나만의 시디플레이어가 생겼다는 기쁨은 여전했다. 문방구에서 산 플라스틱 케이스를 CD로 꽂 채운 다음, CD를 척척 넘겨가며 선풍하는 내 모습이 왠지 멋있게 느껴졌다. CD를 고르고 찰라 소리가 나도록 넣은 다음 빙글빙글 CD가 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속자를 꺼내 남들은 모르는 작사와 작곡가를 외우는 것, 스타의 스페셜 땡스 투를 보며 은밀한 친근감을 느끼는 것, 이 모두가 요즘은 느낄 수 없는 CD 시대의 로망이다. 비록 수지 같은 컷사랑과 이어폰을 나눠 듣는 로맨스 따윈 없었지만, 야간 자습 시간에 몰래 소매 사이로 뺀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떡볶이 리모컨을 돌리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만으로도 <건축학개론>은 이미 소중한 추억을 들려주었다.

萬物商會

만물상회

오후늦게 비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다. 아침기온은 2~10도로 20일보다 높겠고 낮기온은 13~21도로 비슷하겠다.



다양한 정수방식 / 최소의 설치공간!
에넥스 R/O 정수기

(주) 나경문화
(02) 273-1113

PC통신 일주일만 하면 일주일만 하면 일주일만 하면

낮놓고 지역지만 알아도 PC통신을 할 수 있다.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전유성이 담배를 끊고 이룩한 3가지 업적

- 1 컴퓨터를 겸손하게 만든 한국인
그 무서워서만 컴퓨터를 일부만에게 곁들이는 디 무서운 컴퓨터로 오셨나. 이제 컴퓨터는 평간이 아니라 겸손한 여한간입니다.
- 2 전유성 컴퓨터, 베스트셀러 돌풍
알려지지 않았던 - 개그맨이 은 컴퓨터 제 95 대한민국 출판계의 달인인 출판 무지!
- 3 컴퓨터 통신계의 새로운 스타 탄생
컴퓨터계의 3년째 전유성의 스타로 부상! '전유성의 개그담', '예는 국민들의 딱딱한만 재미있어 줄일 날이 없습니다.



전화걸줄 알아요?
컴퓨터로 전화하는게 PC통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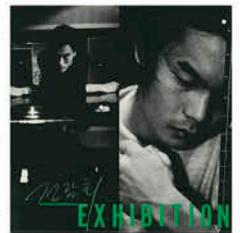
신간 전유성 컴퓨터 세리즈 제2권



전유성 PC통신의 국가적 사명(?)
지 지 지
유세성은 없고, 후표일은 가까워라...
후표지와 인방에서 인나는
PC통신 선가 운동 서비스
박길리도, 고무신도 이런 인방 ~
(전유성 PC통신 일주일만)으로 정식 선전국 앞당김시다.

값 7,500원

최근 각종 가요 차트에서 전담회라는 신에 남상 듀엣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률(연세대 건축학과 1년), 서동욱(연세대 사회학과 1년)으로 이뤄진 전담회는 지난해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실력파. 이들의 데뷔 앨범 <기억의 습작>은 발매 3개월 만에 7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남형 얼굴도 아니고 화려한 춤을 써줄 자랑하는 것도 아닌 평범한 두 대학생의 노래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유로는 신세대 가수답지 않은 꾸밈없는 창법과 진솔한 가사, 뛰어난 가창력 등이 꼽히고 있다. - <동아일보> 박철



WATER WARS!

그녀를 적셔버리고 싶은, 당신의 총질 본능을 자극하는 무기



튼튼한 보디, 힘찬 물줄기. 이봐, 전립선 이야기가 아니다!



Water Warriors Colossus

들고 있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사나이의 무기. 무려 2kg 이상의 물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다. 3개의 물총 구멍이 돌아가며 발사돼 람보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자, 일단 그녀에게 흰색 티셔츠를 입게 하라!

\$20, buzzbeetoy.com



Nerf Super Soaker Lightning Storm

비록 사거리는 8m를 넘지 못하지만, 폭풍같은 물줄기를 단번에 쏟아대는 천둥같은 녀석. 물벼락 맞고 정신 못 차리는 그녀를 보는 재미는 보너스.

\$25, Hasbro.com



Water Sports Double Barrel Stream Machine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물총 계의 스나이퍼 라이플. 물줄기의 힘은 약하지만, 전방 20m 바깥의 그녀를 흠뻑 젖게 할 수 있다. 물레 숨어서 그녀를 맞추기에 제격.

\$20, sportsunlimitedinc.com

MAXIM 뽐뿌질

아빠, 백 원만...

타치하라! 캐논 EOS 650D

EOS 650D는 캐논 DSLR 카메라 최초로 터치패널과 회전형 LCD로 최고의 편의성을 갖추었다. 게다가 초점 잡는 속도를 높여 움직이는 피사체도 정확하게 포착하는 촬영 기술을 도입했다. 역동적인 사진과 영상 촬영이 쉬워졌으니, 당신을 향해 초당 오만가지 표정을 지으며 애교와 교태를 부리는 깜찍한 여친을 캐논 650D로 예쁘게 담아보자(장당 만 원씩 받아라).

문의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www.canon-ci.co.kr)



3D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KP500 마하와 함께 떠나요!

팅크웨어(주)가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3D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KP500마하를 출시한다. 입체적인 3D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복잡한 도시 골목골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운전할 수 있다. 또 CPU 능력을 향상시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거둬 터치하는 위험한 행동을 줄여줄 것이다. 시원하게 길 안내를 도와줄 아이나비 KP500 마하, 이번 여름 휴가는 이 녀석과 함께해보자.

가격 319,000원(8GB 메모리) 문의 아이나비(www.inavi.com)



작지만 강한 미니 노트북, 에이스어스피어 원 756

에이스어스가 새롭게 출시된 인텔의 중앙처리장치 샌디브리지를 탑재한 미니 노트북 에이스어스피어 원 756을 한정판매한다. 최대 4.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에 1.38kg의 가벼운 무게, 빠른 처리 속도로 기존 미니 노트북에 비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니 구미가 당길 수밖에. 인터파크와 제휴해 299,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100대만 판매한다. 발빠른 다른 사람들이 한정판을 모두 소진시키기 전에 얼른 구매를 서두르자.

가격 299,000원 문의 에이스어스(www.acer.co.kr)

젠하이저의 RS220 헤드폰으로 안방에 극장을 차리자

젠하이저가 최고급 유선 헤드폰과 견줘도 손색 없는 음질을 자랑하는 홈엔터테인먼트용 무선 헤드폰 RS220을 출시한다. 비압축 방식의 새로운 무선 전송 기술을 사용해 유선 헤드폰과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압축 방식 무선 헤드폰의 음질과는 비교할 수 없어 출시 전부터 오디오 애호가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최고급 벨벳 이어패드를 넣어 착용감도 좋고 디자인도 멋지다.

가격 690,000원

문의 젠하이저코리아

(www.sennheiskorea.co.kr)



컨트롤러 없이 동작과 음성으로 작동하는 윈도 PC용 키넥트

센서를 통해 동작과 음성을 인식하는 키넥트가 윈도 PC용으로 국내 출시된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작동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다. 게이머라면 MAXIM 직원들도 이제 기사 작성, 디자인 작업, 제안서 작성을 온 몸으로 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단체로 돈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가격 298,000원

문의 키넥트포윈도우즈
(kinectforwindows.com)

내 귀에 블루투스, 모토로라 HK250으로 통화하자

모토로라 HK250 블루투스 헤드셋은 소음 감소 기술을 통해 상대방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최대 9m 범위까지 끊김없이 통화가 가능해 남들에게 "미친놈, 벽 보고 혼잣말하고 있네" 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착용감도 좋아서 헤드셋 끼고 샤워하기, 통화 중인지 모르고 방귀 끼기 등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가격 54,000원

문의 모토로라

(www.motorola.com/kr/consumer)



MOTOR OF THE MONTH

토요타86, 이제는 스포츠카도 감성 마케팅?

애플만 감성 마케팅 할 줄 아는 게 아니다. 토요타도 한다. 당신의 레이싱 본능을 자극할 고갯길의 전설 AE86의 후계자, 토요타86이 MAXIM 이달의 차다.

BY 서현우 DESIGN 전은경



컷

시 전부터 토요타86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오랜만에 등장한 토요타 스포츠카로 6단 수동 변속의 후륜 구동 쿠페이며, 일본 애니메이션 <이니셜D>의 주인공 두부 배달 차 AE86을 계승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AE86이 누구인가! 과거 일본 자동차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80~90년대에 일본 젊은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바겐세일 스포츠카가 아닌가! 게다가 <이니셜D> 열풍과 함께 전세계 고갯길 마니아의 가슴을 설레게 한 젊음의 전설이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경제 침체가 시작되고 실용성 있는 전륜 구동 세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AE86을 비롯해 잘나가던 일본 스포츠카들은 모조리 단종되는 비운을 맞았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토요타가 뜬금없이 후륜 구동의 수동 변속 스포츠카를 다시 세상에 내놨다. 왜?

토요타86의 주요 타깃은 30~40대 자동차 마니아다. 토요타86을 통해 그들의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AE86을 보게 되고, 한 시기를 풍미했던 고갯길 드리프트의 추억 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신차이면서 그리움을 자극하는 모델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토요타86은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20대에게도 젊음의 한 번 더 보고 싶은 전설의 스포츠카라는 생각을 심는 데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런 감성적 배경이 깔려 있다 해도 답이 없는 가격은 토요타86의 구매를 망설이게 만든다. 기본 6단 수동 모델이 3,890만 원. 자동 변속 모델은 4,690만 원으로 이것저것 옵션을 붙이면 5천만 원에 이른다. 아우디 A3, BMW 1시리즈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국산 후륜 구동 차라는 점에서 자의 반 타의 반 토요타86의 라이벌로 꼽히는 제네시스 쿠페는 어떤가. 제네시스 쿠페는 200 터보 모델에 풀 옵션을 채워도 3천만 원대 초반이고, 상위 모델인 380GT도 4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단지 <이니셜D>의 추억 때문에 토요타86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지나간 첫사랑이 지금 당신의 눈 앞에 있다. 비싼 추억의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

세상 참 좋아졌네.



SPEC : 토요타86		
	수동	자동
전장x전폭x전고 (mm)	4,240 x 1,775 x 1,425	
형식	가솔린 4기통 수평대향 16밸브 DOHC	
배기량 (cc)	1,998	
최고 출력 (PS/rpm)	203 / 7,000	
최대 토크 (kg·m/rpm)	20.9 / 6,400~6,600	
구동방식	후륜구동	
연비 (km/L)	11.8	11.6
가격 (만 원)	3,890	4,690

토요타86의 경쟁자들, 같은 가격이라면 당신은...



제네시스 쿠페 후륜 구동 쿠페라는 점에서 토요타86의 실질적인 라이벌. 지난해 말 부분변경 모델로 내놓은 뉴 제네시스 쿠페 3.8은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5.9초로 국산 차 중 가장 빠르다. 가격 2,620~3,877만 원



폭스바겐 골프 AE86이 20세기의 놀이 도구였다면 21세기에는 골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총 567대를 팔아 치우며 폭스바겐 코리아가 월간 최대 판매 실적의 기록을 세우는데 일등 공신이 됐다. 가격 3,140~4,330만 원



아우디 A3 실용성을 갖춘 해치백으로 독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스테디셀러. 올해 출시 예정인 뉴 A3는 초경량 구조와 연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쿠페 모델이다. 가격 3,960~4,310만 원



BMW 1시리즈 2008년 출시된 바 있지만, 애매한 타깃과 2도어의 불편함으로 저조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BMW 특유의 흥미로운 핸들링은 여전히 하반기 실용성을 갖춘 해치백 모델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가격 4,010~4,430만 원



MAXIM 시승기 #16

볼보 하면 당신의 대뇌 피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안전의 상징 중장비, 각불보? 아이고, 웬 송장이 잡
지를 보시나? 대체 언젠적 애길 하는 건가!

BY 유승민 ILLUSTRATION 전영준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VOLVO KOREA, 할애프터너스
MODEL 손안나 DESIGN 서윤정



4,480만원

엔진 형식	직렬 5기통 터보 디젤
연료	디젤
배기량	1,984cc
최고 출력	163hp
최대 토크	40.8kgm
공인 연비	140km/L



올해 가장 경쾌한 차

이번 달 MAXIM 시승기의 주인공으로 일찌감치 낙점된 볼보의 S60의 시승 기간이 다가오면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매달 느끼는 거지만, 이번 달엔 이 차에 대해 또 뭐라고 쓸을 풀어야 하나... 하고 말이다. 타보지 않고 시승 약속만 잡아도 대중 어떤 이야기를 쓰면 될지 사이즈 나오는 차도 많은데, 볼보 S60은 디젤엔진을 엮었다는 애깃거리 빠른 너무도 평범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디젤엔진을 엮었다. 연비도 좀 좋아졌고, 품격이 남다르며, 승차감이 훌륭하고, 유려한 디자인이 어찌구 저찌구... 이딴 얘기를 써야 하나?' 라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S60에 관해 전혀 사전정보가 없었던 거다.

하지만 4일간의 S60시승을 마친 지금, 에디터는 지난 1년간 MAXIM이 시승한 신차 중 감히 '가장 경쾌한 차'라는 수식을 붙이는 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다. 두어 달 전, 볼보에서는 자동차 전문 기자들을 강원도 태백 레이스 파크까지 불러서 디젤 다이내믹 드라이빙 행사를 열었다. 볼보에서 MAXIM은 초청하지 않았기에(“흥!”) 태백 서킷에서의 행사 소식을 뉴스로만 접했지만, 그 소식을 듣고 '무슨 디젤차를 가지고 랩타임까지 재가며 서킷 레이스를 하라고 그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두 달 뒤에야 S60의 운전대를 잡게 된 우리는 볼보가 서킷을 빌린 이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칼치기의 명수

“어쭈구리?”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몸에 전해지는 의외의 가속 압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뭐야, 배기량 2,000cc, 163마력 아니었어?” 복잡한 도심에서 앞쪽에 공간이 생길 때마다 옆의 다른 차들을 제치고 삭삭 치고 나가는 가속 성능이 보통이 아니다. 클래식한 우드 그레인 인테리어나와는 전혀 다른 스포티한 달리기 성능이 당황스러울 정도다.

사람들은 보통 “몇 기통이나, 몇 마력이나, 최대 토크가 몇이나, 배기량이 몇이나” 하며 숫자상의 절대치만을 놓고 차를 논하기를 좋아한다. 요즘엔 TV에서 <탑기어 코리아>의 얘기만 어썰피 주워들고 8기통이 아닌 차는 차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초짜들도 많아졌다. 그 기준에 놓고봤을 때 배기량 1,984cc, 163마력의 S60은 어쩌면 4천만 원대 중반의 가격표에 비해서는 다소 소박한 수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제원표상의 숫자와 전혀 다른 주행감을 주는 이유는 뭘까?

그건 S60의 최대 토크가 낮은 엔진 회전수(1,500~2,750RPM)에서 발휘되기 때문이다. 도시에 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저속 주행 상황, 다시 말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한가운데서 S60은 다른 차보다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S60은 굳이 실력 발휘를 위해 고속도로로 나가지 않아도, 혹은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복잡한

시내에서 잠깐만 몰아봐도 “엄청 잘 나가는데요?”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다.

어떤 차가 있을 때, 최대 토크가 아무리 높다 한들, 그 토크가 RPM을 잔뜩 끌어올렸을 때에나 발휘되는 것이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도시 드라이버들은 최대 토크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게 되버린다. <분노의 질주> 주인공처럼 밤마다 네온을 번쩍거리며 드래그 레이스를 펼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래서 에디터는 S60에게 올해의 BEST ‘칼치기 명수’ 같은 타이틀이라도 씌워주고 싶을 정도다. 안전성을 최고 가치로 두는 볼보와, 일신의 안전을 제일로 여기는 에디터지만 S60의 가속페달을 밟다 보면 자꾸만 난폭한 공도의 레이서로 변하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린다.

소리 또한 한몫한다. 디젤엔진을 탑재한 탓에 그리 정숙한 편은 아니지만 디젤 특유의 “달달달달” 하는 소리가 실내에선 전혀 들리지 않는다. 마치 다기통 스포츠 머신을 끌 때 느꼈던 “바바바방”하는 소리에 가깝다. 과장 조금 보태서 마세라티의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비슷한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배기음이 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고 다시 들으면, 웅달차에서 들던 전형적인 디젤 소리가 들리지만, 차창을 닫고 달리면서 듣는 소리는 전혀 디젤스럽지 않다. 대체 반응시스템에 어떤 마법을 쓴 걸까.



GIRL TALK ABOUT S60

희성: 볼보 S60을 타는 남자는 어떤 이미지야?

안나: 웬지 잘나가는 엔지니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볼보는 차 좀 알고 기계 좀 만져봤다... 하는 남자들이 선택할 만한 차잖아? 브랜드가 주는 허세를 최고로 치는 사람은 볼보를 안 사지.

희성: 공대 나온 남자... 나쁘지 않지.

진영: 설마 남중, 남고에 공대인 건 아니겠지? 음, 생각만 해도 암울하다.

안나: 난 좋은데? 주변에 여자가 많이 없을 거 아냐.

희성: 그런 남자가 여자를 철저히 암컷으로만 보지.

진영: 맞아, 나도 여고 때 미팅 제일 많이 했어.

안나: 나쁜 건가?

희성: 나쁜단 얘기는 아냐. 넌 너를 철저히 암컷으로 바라보는 남자 싫어?

안나: 스음... 나쁘지 않은데?

진영: 키는 평균 이상일 것 같아.

안나: 체형은?

진영: 음, 찌꺼 갈라진 근육이 붙어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뭐랄까...

희성: 그냥 타고나길 어깨 넓고 등뺨 좋은 스타일?

진영: 딱이다. 그리고 농구를 잘해. 담배는 안 피워.

안나: 이런 남자 너~무 좋아.

진영: 되게 건강을 챙기는 타입일 것 같지 않아? 볼보 하면 '안전하다'는 이미지잖아.

희성: 운동도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건강을 위해서 하고.

진영: 자기애가 강한 건가?

안나: 맞아. 이런 남자 전에 한 번 만나봤는데 자존감이 강해. 자존심 말고.

진영: 둘이 다른 거야?

안나: 미묘하게 다르지!

진영: 자존감이라... 그럼 웬지 화목한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랐을 것 같다.

안나: 엄마, 아빠는 교사고 여동생이 한 명 있을 거야.

진영, 희성: 왜?

안나: 그 남자가 그랬거든!

희성: 아, 그럴 땐 '있을 거야'가 아니고 '있었어'지.

안나: 엄마, 아빠는 교사고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

희성: 옳지. 스타일은 어땠어?

진영: 안전한 헤어 스타일에 테니스 라켓이 든 스포츠백을 들고 등뺨 좀 있는 남자가 차에서 내리겠군?

안나: 비슷해. ㅋㅋ

희성: 맞아. BMW나 아우디를 끄는 남자는 자기 차장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볼보가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

안나: 남들 시선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스타일?

진영: 응, 그냥 유니클로나 기타 SPA 브랜드에서 깔끔한 피케셔츠를 사 입는 거지.

희성: 잠깐. 이 차를 타는 남자, 휴대폰은 웬지 블랙베리를 쓸 거 같다는 생각... 나만 드는 건가?

진영: 블랙베리는 갑자기 왜?

희성: 이 차 센터페시아를 좀 봐봐.

진영: 오, 이런 건 참봐. 전화기 번호판?

안나: 되게 특이하다. 근데 나쁘지 않아.

희성: 바로 그게 블랙베리스럽다는 거야. 되게 특이한데 나쁘지 않은거.

진영: 볼보가 그래. 주류는 아닌데 추종 세력이 있지.

안나: 맞아. 생각해보면 볼보에는 다른 차에선 너무나 일반적인 기능이 없기도 한 반면, 굉장히 독창적인 볼보만의 기능이 달려있었어.

희성: 그러네. 차간 거리 유지기능이나, 사각 지대에 다른 차가 접근하면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안나: 다른 차에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기능도 어딘지 모르게 버튼 위치가 달라. 있어야 할 곳에 그 버튼이 있질 않고 의외의 위치에 붙어 있는 듯.

진영: 그렇지. 뭔가 천재 한 명이 '세상 다른 차들이 어떻게 만들든 알바 아니고, 너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낸 차' 라는 느낌이야.

희성: 딱 아까 말한 볼보와는 남자네. 좀 멋진데?

안나: 근데 블랙베리 쓰면 카톡 확인 잘 안 하겠네. 우리 편집장이 그러잖아.

희성: 그건 좀 싫다. 밀고 당기기의 달인일지도.

진영: 제길, 차간 거리 유지 기능인가.

안나: 열리어답타는 아니고... 그러면 이 남자는 어디에 돈을 쓸까?

희성: 옷은 신경 안 쓰지만 시계에는 힘을 좀 줄 것 같아. 가늘고 클래식한 시계 말고 격식있는 자리에서나 일터에서나 두루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 있잖아.

안나: 예를 들면?

진영: 태그호이어?

안나: 너무 비싸잖아.

진영: 그냥 그 비슷하게 생긴 거.

희성: 아무래도 직업이 엔지니어니까, 취미는 메커니한 것과 상반될 것 같아.

안나: 게임은 안 하겠네. 좋다. 그럼 스포츠?

진영: 응, 스쿼시 같은 거.

안나: 축구나 야구는 어때?

희성: 주말에 사회인 야구단에서 야구를 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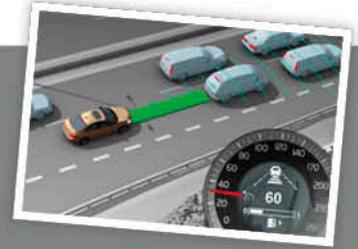
진영: <신사의 품격>에 나오는 장동건처럼?



희성: 아니, <신사의 품격>에 나오는 김수로처럼!
안나: 맞아. 여자들은 잘생긴 정동건보다 몸 좋은 김수로 같은 타입에 더 끌리긴 하잖아.
진영: 근데 이 남자 몇 살인 거지?
희성: 난 한 30대 초반으로 상상했어.
안나: 난 30대 중반. 클럽같은 데 싫어하고, 여자친구랑 오붓하게 펜션에 갔다 오는 거지, 볼보를 끌고.
희성: 클럽에 오시면 곤란하지.
안나: S60은 겉으로 보기에 YOUNG한 느낌인데 내부 인테리어는 클래식하네 연애 스타일도 비슷?
진영: 음, 막상 사귀고 나면 보수적인 타입이겠어.
안나: 여자친구가 짧은 치마 입는 것도 싫어하려나?
희성: 그럼 나는 못 사귀겠다.
진영: 이 남자, 섹스할 때도 보수적일까?
안나: 보수적인 섹스는 어떻게 하는 섹스야?
진영: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패턴으로만 하는 거지.
희성: 아니야. 아까 말한 천재의 의외성이 여기서 발휘될 거야. 의외의 장소, 의외의 스킬, 의외의 체위.
안나: 오, 손재주도 있을테니 전히 테크닉도 화려한 거 아니?
진영: 역시 엔지니어구만! 🚗

무인 운전에 도전하다

누가 그랬나, 볼보가 한 물 갔다고



S60의 경쾌한 주행감이 주는 뒷맛이 아무리 강렬했다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기능이 있다. 바로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 기능이다.

30km/h 이하 주행 상황에서 앞차와 간격이 좁아져 충돌 위험이 생기면 스스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멈추는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 기능은 매일매일 아군에 지쳐 음주 운전보다 위험하다는 졸음운전에 능숙해진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리고 인도 위의 쪽방한 암컷들을 끊임없이 스캔하고, 심지어 훌륭한 뒷태를 가진 여자를 발견하면 꼭 임질러서 얼굴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수컷들에게도 꼭 필요한 기능이다.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도심 주행 성능만큼이나 도심에서의 안전 운전에 대한 배려가 탁월하지 않은가? 이제 완전히 실용화된 안전거리 확보 기능은 볼보가 도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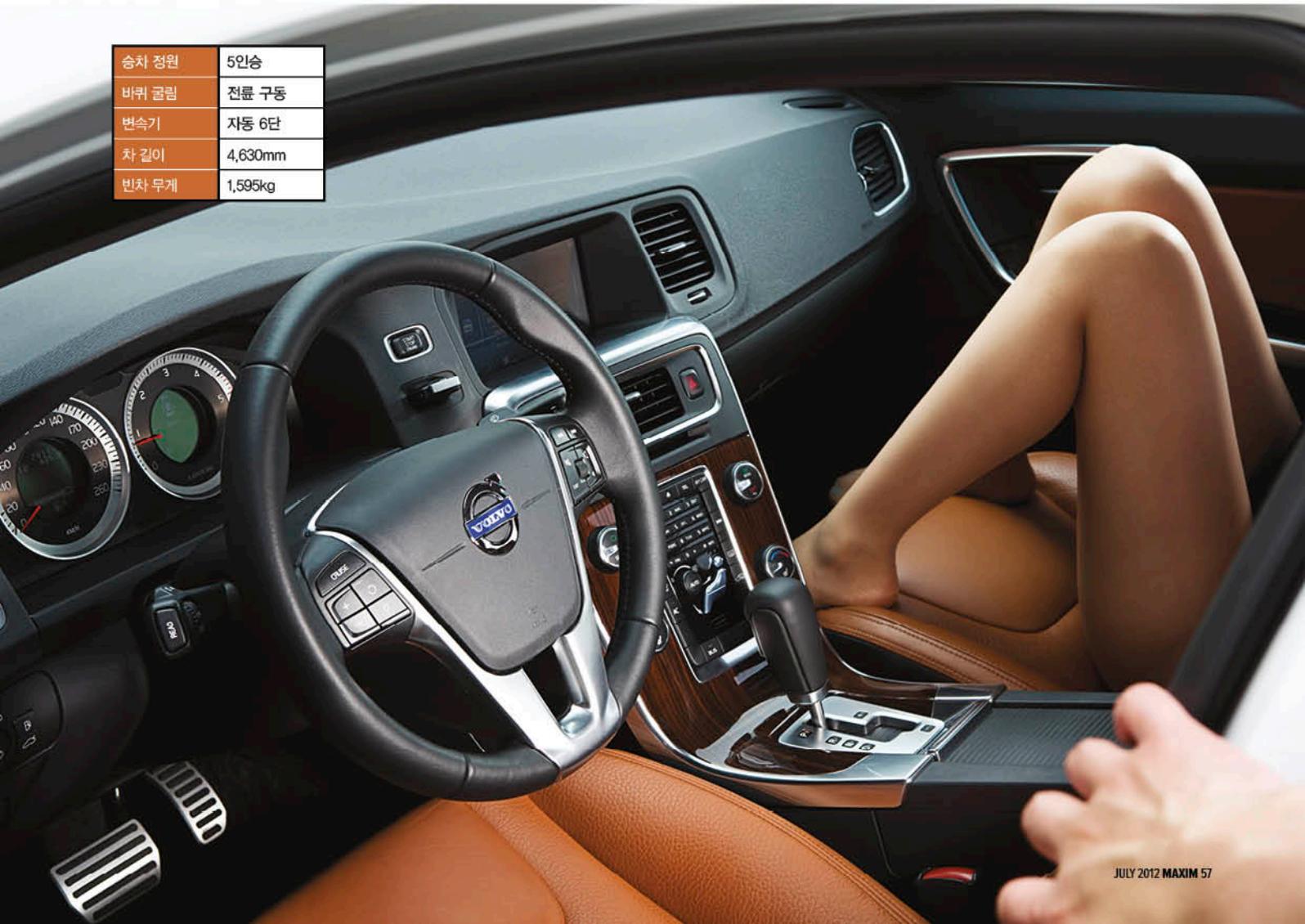
다들 말한다. "볼보 차가 안전하다는 거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다 그 정도는 안전해." 충돌사고 시 충격을 최소화해 탑승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볼보는 한때 이 세상 떠나기가 너무 아까운 부자들의 필수품이기도 했다. 하지만 치열한 자동차 시장 속에서 '안전성'이 상황 평준화되면서 볼보의 메리트는 많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한 도전의 종착역은 바로 무인 운전이다. 다들 '볼보가 하는 만큼' 안전한 차를 만드는 동안 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예 운전대에서 손을 놓게 하는 거대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거다. 무슨 말이 필요해? 그 실체를 영상으로 확인하자.

무인 운전
주행 영상
보기



승차 정원	5인승
바퀴 클림	전륜 구동
변속기	자동 6단
차 길이	4,630mm
빈차 무게	1,595kg



MOTOR NEWS

현대자동차, 고객 대상 여름 휴가 지원 이벤트 실시
 현대자동차는 2012년 현대차 출고 고객에게 강원도 평창군 흥정계곡에 소재한 펜션을 2박 3일 동안 이용할 기회를 주는 휴가 이벤트를 마련했다. 당첨 고객은 8월 1일~25일 중 2박 3일간 펜션을 이용할 수 있다(4인 기준). 또한 물놀이 용품 등 부대 시설도 무료로 제공된다.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7월 21일까지 응모하면 되니 차 사는 것을 미뤘었다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자. 성수기에 공짜 휴가라니 좋겠다!

문의 현대자동차(www.hyundai.com)



MAXIM POOL PARTY

AFTER EVENT with

MINI FOLDING BIKE.
 WEIGHT: 11Kg, FRAME: LIGHT-WEIGHT ALUMINIUM, WHEEL: 20 Inch, SCHWALBE, PRICE: ₩850,000

반안트리 야외풀에서 열린 MAXIM 파티의 최대 경품이었던 85만원 상당의 MINI 자전거의 주인공은 끝내 탄생하지 못했다. 자 이제 MAXIM 독자에게 던이 돌아왔다.

▶ MISSION

MAXIM 파티 현장에서 게스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MINI 삼총새 이 세 녀석의 모델명을 맞춘다! 어때? 쉽지?

▶ 응모방법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댓글로 정답을 적으면 행운아 1명을 추첨해서 MINI 자전거를 투척한다.

정답맞추고
자전거
가져가기



걸그를 화보촬영에 사용된 두경 열리는 이 녀석은 바로 : MINI □□□□



광활한 적재함에 CASS LIGHT를 잔뜩 싣고 나타난 녀석은 : MINI □□□□



MAXIM의 김모 에디터가 잔뜩 팀내는 새빨간 오 녀석은 : MINI □□



**페라리가 어울리는 남자 배우 연정훈,
페라리 FF(Ferrari Four) 홍보대사로 위촉**

국내 페라리 공식 수입사 FMK는 배우 연정훈을 페라리 최초의 4륜 구동 4인승 차량인 FF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페라리가 특정 모델의 공식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연정훈은 페라리 FF의 강력한 성능과 스포츠카에선 찾기 힘든 넓은 뒷자리 공간 등 FF의 다양한 매력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FF는 660마력의 파워를 자랑하고 V12 엔진을 탑재해 무려 최고 속도 335km/h를 자랑하는 꿈의 스포츠카. 연정훈은 모두 다 가졌구나!

가격 4억 7,000만 원 문의 페라리 코리아(www.ferrari.co.kr)



크라이슬러 뉴 300C 프리스티지 출시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기존 300C 라인업에 한층 정제된 스타일의 인테리어와 진보된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아메리칸 럭셔리 세단 뉴 300C 프리스티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뉴 300C는 최고급 가죽 소재로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프리미엄 인테리어를 통해 품격 높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테리어에는 크롬 액센트 링으로 멋을 더한 스티어링 휠과 쉽고 빠르게 기어변속이 가능한 패들 시프터가 새롭게 적용됐다. 286마력의 최고 출력과 8단 자동변속, 9.7km/L의 공인 연비로 성능 또한 뛰어나다.

문의 크라이슬러 코리아(www.chrysler.co.kr)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바로 그 130년 전통의 명품,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모 기간:** 2012. 6. 22 ~ 2012. 7.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틴팅 시공 (전면 시공, 측·후면 제외)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쁜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연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MOTOR
EVENT

**제15회
MAXIM 무료 틴팅
당첨 독자는?**

MAXIM과 정기 구독의 인연을 맺고 챙겨본 지 2년, MAXIM을 통해 어른이 됐고 남자가 됐다. 동네 형처럼 솔직하게 조언해 주는 MAXIM을 보며 많이 배웠다. 그 중 자동차 기사들과 시승기는 차에 대한 무한한 관심이 생겨나던 내게 동불같은 존재였다. 특히 수입 차에 대한 이야기는 20대인 내가 차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그릴과 얼마 전 아버지께서 타고 다니시던 그랜저를 내게 물려주셨다. 지금 모으는 월급이 목표금액에 이르면, MAXIM을 보며 꿈꿔온 그 차를 전시장에서 데려올 거다. 그 때까지 이 그랜저를 끌고 다녀야 하는데 앞 유리가 눈부셔 다닐 수가 없다. 이제 완전 여름 아닌가. MAXIM을 형처럼 여기는 동생이 눈이 부셔서 운전을 못하겠다. 틴팅을 투척해 달라. 당첨되면 MAXIM에 간식 보따리를 던져 주겠다. 당신들이 먹을 것에 약하다는 것 알고 있다. 연락기다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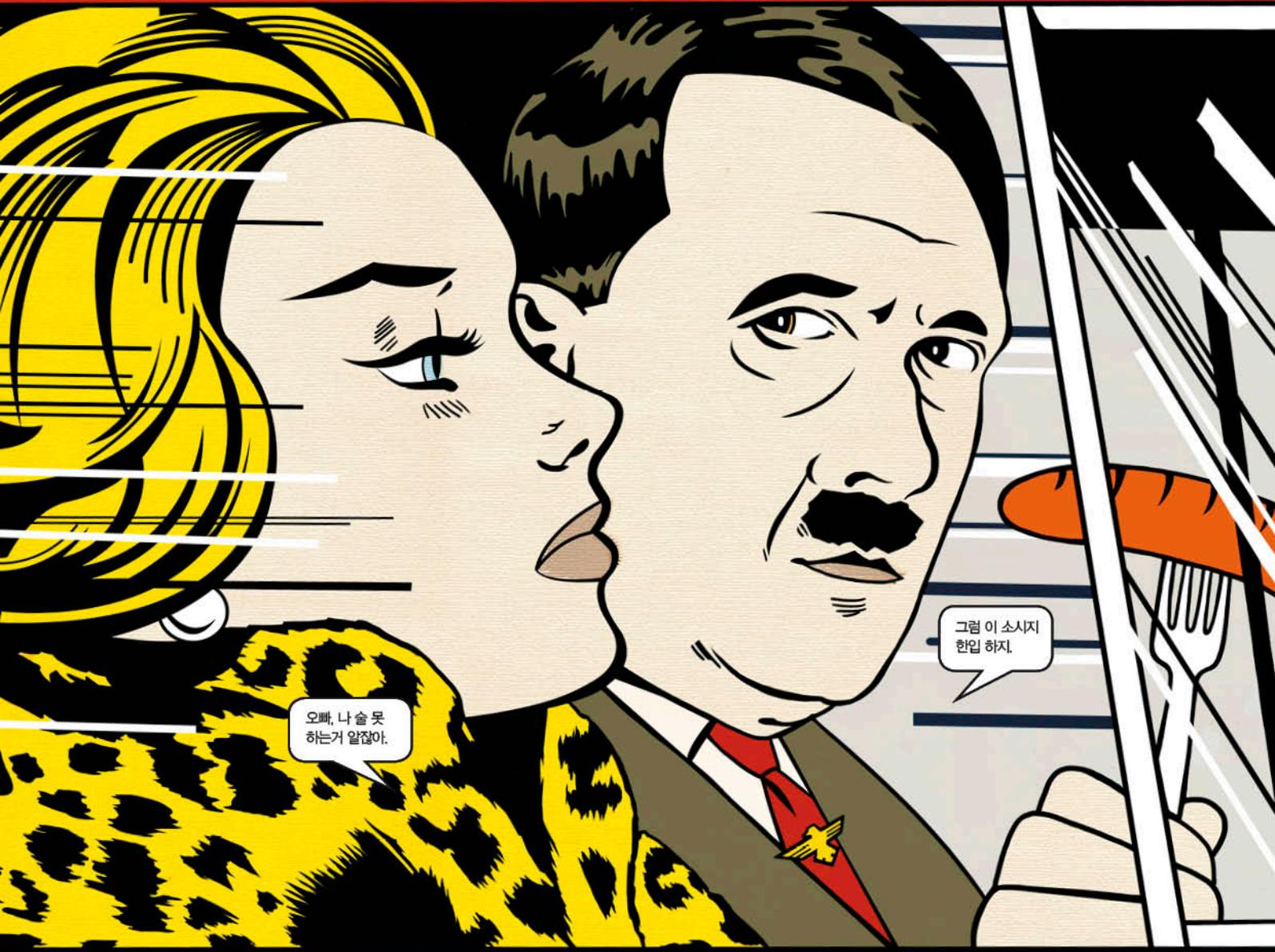
- 밤낮으로 MAXIM을 훑는 잠실 조랜저



솔라가드 이벤트 당첨자 틴팅 후기 보기



이봐 잠실 조랜저~ MAXIM을 형이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밀도 끝도 없이 간식 줄 테니까 틴팅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 그깟 간식에 MAXIM이 넘어갈 것 같... 다. 젠장. 간식 때문에 당첨시킨 것은 아니다. MAXIM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보이는 사연인자라 당첨을 주지 않고서는 눈물이 앞을 가려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나도 딱 그 나이 때 자동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나이가 또 자동차를 처음 사게 되는 때가 아닌가. 앞으로도 MAXIM을 꼼꼼히 살펴봐도 록 해라. 유용한 자동차 정보들과 이벤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틴팅해서 멋진 여름 보내도록, 그럼, 그대의 간식 보따리를 기다리고 있겠다.



세계 맥주 기행: 독일 편 No.2

경고 이번 달 맥주 칼럼을 읽다가 종이에
침을 줄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드러...)

BY 이효백 (대표이사 / www.wabar.co.kr)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신숙희

환상적인 독일 밀맥주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다는 지난달 약속,
기억하는지? 냉장고 문 열고 시원한 맥주 한 캔 따서 벌컥벌컥
들이킬 때의 쾌감은 말해 무엇하겠느냐만은, 아름다운 그녀와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맥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어때, 씬나 죽겠지 아주?

요즘 제일
질나가는
맥주는?



맥주 카테일: 과일과 허브로 연출하는 다양한 맛과 색
“Red or Green?” 여름철 베를린에서 밀맥주를 달라고 하면, 아마 이런 말을 들을 거다. 과연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날까?

레드(Red)는 슈스(Schuss), 즉 나무딸기로 만든 시럽을 넣은 맥주를 가리킨다. 사실 빨간색이라기보다 복숭아색에 가깝다. 그린(Green)은 *선갈퀴(woodruff) 추출액을 넣은 맥주로, 향이 매우 짙고 시며 상큼한 레몬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맥주 카테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나무딸기와 선갈퀴는 모두 베를린 인근의 숲에서 자라는 것으로, 소프트 드링크를 만들거나 미네랄워터에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맥주의 나라답게 독일 사람들은 다양하게 맥주를 즐기는데, 시럽을 넣어 카테일처럼 마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혹시 맥주에 과일이나 허브로 만든 시럽을 넣으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지 않나?

*선갈퀴(Woodruff) 흰색을 띠는 야생 꽃의 일종.

밀맥주에서는 강한 신맛이 난다. 맥주 카테일에 쓰는 과일과 허브 시럽은 맥주의 신맛을 완화시키면서 달콤함을 더한다. 단맛으로 시작해 신맛으로 끝나는 거다. 특히 슈스(나무딸기)가 안겨주는 즐거움이기가 막힌데, 맛뿐 아니라 맥주 거품의 색깔까지 바꾸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맥주에 넣는 슈스의 종류에 따라 그 색도 다양하다. 맥주의 신맛을 베이스로 두고 여기에 슈스를 첨가해 맛과 색을 다양하게 연출하는 베를린 밀맥주는 일종의 ‘맥주 카테일’이라 할 수 있다. 겨울에는 맥주를 레몬 주스와 함께 뜨겁게 마시기도 하는데, 베를린 토박이들 사이에선 감기 특효약으로 통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가 들어 있는 신 음식을 먹으면 효과를 보는 원리와 같다. 신맛이 나는 음식은 간을 보충해서 피로 해소를 돕기 때문이다.

젖산 발효의 비밀

다양한 카테일로 만들어 먹기에 좋은 베를린 밀맥주의 신맛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갓 짜낸 레몬즙처럼 강렬하지만 우유처럼 부드러운 그 기본 좋은 신맛의 비밀은 발효에 있다. 베를린 밀맥주 역시 독일 다른 지방의 밀맥주들처럼 상면 발효 이스트를 사용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젖산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알코올 발효와 젖산 발효가 함께 일어나며 단점을 서로 보완한다고 보면 된다. 이런 과정은 와인이나 샴페인에서 볼 수 있는 2차 발효 과정과 유사한데, 와인의 경우 사과산이 젖산으로 변하면서 신맛이 한층 부드럽고 복잡미묘한 맛으로 바뀐다. 아, 침 고여.

젖산 발효라...
훌륭한 이름이로구나.



학생,
이것 좀 꺼내봐~

도자기 용기: 탄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2차 발효를 하는 맥주는 대부분 목할수록 맛이 좋아진다. 특히 베를린 밀맥주는 창고에 묵혀 젖산 발효를 시킨 뒤 병 숙성, 즉 2차 발효를 거치기 때문에 더욱 맛이 좋다. 창고에 수년간 묵힐 수 있는 맥주는 많지 않다. 베를린 밀맥주는 그 몇 안 되는 맥주 중 하나로, 저장한 지 최소 18개월이 지나야 제맛이 나기 시작한다.

과거 펍의 주인들은 밀맥주를 담은 도자기를 지하 저장고의 바닥에 묻고 모래로 덮어 숙성시켰는데, 이는 온도를 낮추어 혹시 모르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이 도자기 병은 유리병을 사용하기 이전 맥주를 담아 팔 때도 썼는데, 코르크 마개로 입구를 막고 끈으로 단단히 고정해 내놓은 이유도 맥주의 높은 탄산 함량 때문에 마개가 튀어나갈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베를린 밀맥주를 더 맛있게!

독일 베를린의 밀맥주는 현재 베를리너 킨들(Berliner Kindl)과 슈타이스(Schultheiss), 이 두 곳의 양조장에

서 생산한다. 킨들과 슈타이스의 맥주를 비교해보자면, 슈타이스의 베를리너 바이스가 좀 더 가벼운 맛이 난다고 보면 된다. 보다 상쾌하고 꽃향기가 두드러지며 첫맛이 신선하다. 반면 킨들에서 만든 맥주는 절제된 듯한 맛이 일품인데, 신맛이 좀 덜하고 과일 맛이 풍부하다. 어찌됐든 신맛을 베이스로 하는 베를린 밀맥주에는 역시 신맛 나는 음식이 어울린다. 딸기같이 새콤달콤한 제철 과일과 함께 마시면 더욱 환상적인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하나 더. 밀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릴에 구운 청어에 피클을 얹어 한입 베어 물어봐라. 맛이 끝내주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신맛의 요구르트와도 훌륭한 궁합을 자랑하니 알아두면 유용할 거다.

이제 맥주는 목젓 꿀렁거리며 재빨리 들이켜야 제맛이라는 편견을 버려라. 술 못하는(그렇다고 우기는) 그녀와 함께할 땐, '맛있고 예쁘고 신기한' 술이 진리다. 술에 뭘 섞는 게 영 당시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밤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여봐라. "우리 얘기... 이런 맥주 본 적 있어?"

이달의 맥주 시음: 부엉이 맥주

부엉이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조류 맛은 안 난다.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윤정



MAXIMI
붉은
부엉이!



일명 '부엉이 맥주'라 불리는 히타치 노 네스트가 출시된다. 맥주 주제에 가격은 7천~9천 원대로 비싸지만 디자인부터 엄청 감쪽한 것이 암컷 사랑 한몸에 받게 생겼다. 일본에서 7대째 술을 빚고 있는 기우치 주조가 사케 아닌 에일을 만들어 내놓았는데, 맛이 독특하다 하여 일단 MAXIM 스태프들 위장에 강제 투여했다. 그 결과는?



진저 에일
평점: ★★★★★☆

건강해지는 느낌! 굿! -에디터 서현우
달고 맛이 강함. 알코올이 톡 쏜다. 하지만 난 생강이 싫어. -마케팅 김진욱
맥콜+알코올? -경영지원 최인영
약 먹는 느낌. -에디터 이진영
맥주보다 생강 맛이 강함. 생강 씹었을 때 기분 나빴던 기억이 떠오른다. -마케팅 정진선

개인 취향을 많이 뒀다. 그만큼 개성이 강한 녀석. 가격 9,500원



재패니스 클래식 에일
평점: ★★★★★☆

달고 꿀 냄새도 가득. -마케팅 김진욱
입안에 부루펜(감기약)의 여운이... -경영지원 안진호
나무 껍데기 씹어 먹는 느낌. -에디터 손안나
묵직, 향긋! 맛있다! -에디터 이진영
맥주 과음한 다음 날 아침의 입안 느낌? -경영지원 장선영
민들레? 하여튼 길거리 풀때기 뜯어 우린 맛. -마케팅 정진선

달콤하고 진한 꿀, 신선한 풀과 삼나무 향이 특징. 가격 8,500원



화이트 에일
평점: ★★★★★☆

상큼 발랄하고 가벼운 과일 음료수 같다. -에디터 조웅재
풍미가 좋다. 의외로 끝맛은 씹새하다. 많이 먹긴 어려울 듯. -경영지원 최인영
맥주다운 느낌이 가장 확실하다! 가격 대비 맛은 끝세... -경영지원 장선영
첫 느낌이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다. -디자이너 서윤정
히히. 좋아 좋아. -디자이너 신숙희

어린이 입맛을 가진 스태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격 7,500원



DRINK NEWS

SMOKE NEWS

뭘 마셨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



1

쏟아진 여름 맥주 패키지 속속 등장

모기, 수박, 열대야. 여름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는 주류 회사에서 내놓는 여름 패키지다. 버드와이저는 킹 오브 비어답게 아무진 여름 한정 콜라백 패키지를 내놓았다(사진 1). 캔 12개와 다용도 콜라백으로 구성됐다. 저녁에 친구들과 야구장에서 치킨 뜯으면서 시원하게 맥주를 즐기길 좋겠지?

코로나 비치 아이스 버킷은 맥주 6병과 아이스 버킷을 한데 묶었다(사진 2). 선베드 옆에 놓고 맥주를 즐기면, 그곳이 하와이가 아닌 부곡하와이일지언정 마음만은 레일 남극에 가 있을 터. 호가든 역시 캔 맥주 8개와 콜라백으로 구성된 쏟아진 패키지를 출시했다(사진 3). 아이고, 이 착한 녀석들!



2



3

카스 라이트, 서울의 밤 점거 사태

저칼로리 맥주 카스 라이트가 흥대 클럽가에서 펼쳐지는 '서울 나잇(Seoul Night)'의 공식 맥주로 선정됐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프리버드, 스팟, 고고스2, 명월관 등 클럽 10곳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개운한 카스 라이트를 함께 즐길 좋은 기회다.

한 대에 730원

일본 도쿄에 유료 흡연소가 생겼다. 1회 이용료는 50엔으로 우리 돈 730원 정도다. 흡연 장소가 줄어가는 도쿄에서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카페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가 커피 값보다 싸니 찾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게 해당 업체의 설명.

우리나라도 곧 생기려나?

강남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무는 거 알지? 주변에 이걸 때문에 피 토하는 사람 여럿 봤다. 앞으로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를 버리면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다. 이 추세면 국내에도 곧 유료 흡연소가 생기지 않을까. "담배 피우면 세금도 많이 내는데 봐주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금연자 눈치 안 보고 담배 피우는 공간이 생기는 것도 썩 나쁜 일은 아니다. 그래, 우리 아랑 피우는 거 매너 있게 피우고 덜 구박받자. 영영.

홈런 페스티벌 2012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야구 테마파크

7.13 ~ 9.2 **aT** Center



홈페이지 : www.homerunfestival.co.kr 예매 티켓링크 : 1588-7890 관람료 균일가 15,000원 (24개월 이상)

주최 : **MBC** 플러스 **DMB** 한국 **DMB** **QBS** 주관 : 홈런페스티벌 사무국 제작지원 : **맥스무비** 티켓링크

후원 : **KBO** **KIBF** **MBC** 스포츠 **스포츠서울** **AM7** **SEOUL NEWS**

협찬 : **C-DIC** **SKLZ** **KINECT** for **XBOX360** **아카데미** **IB6** **GS25** **JAWON** **GAMEONE** **이피에스에스엔엘**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33,600원	▶ 할인가 30,600원	3 천원 할인 + 1000씩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67,200원	▶ 할인가 60,200원	7 천원 할인 + 2000씩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134,400원	▶ 할인가 119,400원	15 천원 할인 + 4000씩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201,600원	▶ 할인가 171,600원	3 만원 할인 + 6000씩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268,800원	▶ 할인가 218,800원	5 만원 할인 + 8000씩 적립

요모조모 참 쓸쓸한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아싸 흥구내!

사은품 확인
하러 가기




스웨거 헤어 스테너 왁스



마누스 그립 컬렉션



맨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BB크림



소유스킨 네츄럴 콤플렉션 릴리버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MAXIM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버튼을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딱=1원)



WWE YES! YES! YES!

NO WAY OUT

FX
남자의 모든 것



A.J. AND DANIEL BRYAN

스캔하고
MAXIM 받자



WWE Monthly Special

2012 노 웨이 아웃

7월 7일 (토) 밤 10시 국내최초방송

t.cast

Echannel SCREEN DRAMACUBE F FesmasN cinef CHM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24 HOURS TO LIVE

이루마,
보고 있나?

음악의 신 이상민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이 처음은 아니잖아?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MAKEUP 이현정 DESIGN 신속희
ASSISTANTS 조웅재, 손안나, 이진영, 이영환
MODELS 이상민, 이수민, 백영광



“
어떤 고통이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



24시간 뒤면 당신은 죽는다. 어떻게 죽을 건가?

계속 글을 쓸 거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글을 하
염없이... 그러다 죽고 싶다.

**다른 것 안 하고 글만 쓰다 죽는다
고? 너무 소박한데.**

그동안 안 해본 게 없는데 뭘.

<음악의 신>이 완전 상승세다.

**최정상과 밀바닥을 경험한 사람
로서 요즘 사는 기분이 어떤가?**

<음악의 신>이 잘되고는 있지만

내가 잘돼가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m.net이 찍어주는 대로 무아
지경으로 촬영할 뿐이다. 나 자신
을 놔버렸다. 대신 <음악의 신> 덕
분에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
람과 친해진 건 참 좋다.

죽기 전 정리할 스캔들은 없나?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것.
사실 후회는 없다. 1심 무죄 판결
을 받고 2심 유죄 선고를 받고 나
서 매형이 돌아가셨다. 그 사건에
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증언을
해주셔야 할 분이였다. 하늘 가면
매형이랑 소주나 한잔 하고 싶다.

**연관 검색어가 화려하다. 백지영,
이혜영, 자살 시도, 유인나, 동맥...**

이 중에서 지우고 싶은 게 있다면?

다 지우고 싶다. 모조리!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나?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나서서 해명해본 적이 없다. 그렇
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지만... 나
스스로가 아니면 되는 거 아닌가?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 아닌 건
아닌거다.

연예인이 된 것을 후회하나?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게 많을 줄 몰랐다. 그렇지
만 꼭 해보고 싶었던 분이였으니 후회는 없다. 연
예인이라는 직업에는 마력이 있다. 그 마력에 빠져
나오지 못해서 이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
르겠다.

**틀라 시절 김지현이 고영욱에게 "너 양아치니?"라고
했다지? 20~30대를 돌아보면 당신도 양아치였나?
양아치였다. 가만히 있어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

는 모습 자체가 양아치다. 내 모습이 딱 그랬다. 그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와서 생각해보
면 그렇지 않은 게 많더라.

지금도 그런가?

사실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진짜 날 모르는 사
람들이 "이상민이 여자 좋아하게 생겼다"고 하지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중 하나
가, 내가 여자에 관심이 없다는 거
다.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하지는 않
는다.

**도박, 표절, 마약 등 정말 많은 사
건에 연루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본인을 지켜준 아삼육
이 있나?**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 어렵다. 사실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성격이
다.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이해...

아, 뭐 잘살고 있는 사람 얘기를 꺼
내고 그러나. 하지 말자.

**정말 음악의 신이 돼서 정상에 우뚝
선다면 어떤 그룹을 만들고 싶은가?**

99년에 내가 키우던 가수가 총 7팀
이었는데 그들의 음악을 나 혼자 다
만들었다. 1년 동안 100곡이 넘게
작곡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지쳐
서 다른 일을 선택했는데 그게 뜻대
로 안 풀렸다. 예전에 샤크라나 디
바, 롤라를 만들 때는 내 생각이 정
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곡을 만들고
프로듀싱 했지만, 지금은 많이 정
돈된 상황이다. 이 머리에서 나오
는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일지 나도
궁금하다.

이상민에게 음악이란?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라는 존재
는 큰 산이자 뱀 같은 존재잖나? 아
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강하
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롤라'
가 마치 큰 산처럼 나를 든든하게
만들었다. 왜 웃나? 난 진지한데.

**예전에는 잘나갔지만 지금 망가진 사람들에게 한 마
디 한다면?**

즐거라. 어떤 고통이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
할 수 있다. 그 고통을 즐기지 못하면 그 고통에 눌
려 죽는다.

묘비명은 뭐라고 하고 싶은가?

음악의 신. 



**<라디오스타>에서 "식욕이 줄어 성욕도 줄었다.
그래서 재혼 생각이 없다."고 한 말은 아직도 유효
한가?**

평생에 안 해본 게 딱 두 개 있다. 금연과 운동. 죽기
전에 꼭 한 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닭 가슴
살과 고구마만 먹고 운동했다. 몸무게가 22kg 빠졌
다. 오감 중에 식욕을 잃으니 성욕이나 다른 재미를
찾을 수도 없게 되더라. 하지만 딱히 재혼하기 싫다
고 한 건 아니었다.

이 정도면
표지모델감 아닌가?



MISS OF THE MONTH MAXIM

2012 MISS MAXIM CONTEST
THE 4TH
SEMIFINALIST

박세미

MAXIM 독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2012
MISS MAXIM 콘테스트! 7월 미스 맥심
도전자는 각종 방송과 뮤직비디오에서
신인 연기자로 발돋움한 박세미다.

BY 박정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김다예나
FILM 송종민 DESIGN 전은경
ASSISTANTS 아진영, 장찬선, 이영환, 서원우, 조종채
COOPERATIONS 코데조컴바인 이너웨어
(02-217-7000), 룩시(02-546-7764), 락리바이벌
(02-515-1513), 뉴에라(070-4411-5950)

비키니 코데즈컴바인
쇼트 팬츠 락리바이벌
모자 뉴에라

그녀와
야외 수영장
데이트



박세미

생년월일: 1989년 7월 18일

직업: 연기자

신체: 169cm, 47kg

주요 서식지

압구정, 대치동

별명

매력 일등 박세미

이성에게 자주 듣는 말

웃는 게 예쁘다. 솔직해서 좋다.

나의 매력

눈웃음, 털털한 성격, 애교, 노래

집에 혼자 있을 때

연기와 노래, 요가

고민거리

좋은 배우가 되어 인기를 한 방에 얻고 싶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뤄지겠지?

내가 해본 가장 나쁜 짓

친한 언니가 맞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혼내준 일

내가 해본 가장 착한 짓

불우 이웃, 장애우 돕는 봉사활동. 나 교회 다니는 여자다.

주량

소주 1병

첫키스

고1 때

팔에 새긴 타투의 의미

나비. 내 노력으로 허물을 벗고 먼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비가 되고 싶다는 의미

자주 가는 휴가지

비닷가. 요즘 통 여행을 못 갔다. 앞으로 도 한동안 무척 바쁠 것 같은데 올여름은 포기했다.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

레이싱 경주. 이만큼 시원한 게 어디 있나?

올 여름 휴가 계획

해외 화보 촬영을 미끼로 할 수 있는 해외여행

MAXIM 독자들에게 한마디

모든 것에서 인정받는 연기자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다음번엔 표지 화보 촬영을!

GO TO
MAXIM
iPAD
마공개킷



세미의 연애관

나를 이용해 이득을 보려고 접근하는 남자는 질색.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쉽게 사귀지 않는다. 연애는 진심이 느껴져야 한다.

남친이 생기면 받고 싶은 선물
진심이 담긴 이벤트나 직접 만든 선물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
성격, 눈웃음

마음에 드는 아성이 나타났을 때
그저 웃지요.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필살기
눈웃음, 애교

비키니 특시

2012 MISS MAXIM CONTEST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2011
MISS MAXIM
WINNER
이명희

1.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탭프
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2.

온라인 예선 통과시 MAXIM 다음호
한국판 화보 촬영

3.

MAXIM의 PARTY 플래너로
투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부여!

4.

총 상금 6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5.

최종 우승 시 1년 동안 매월 MAXIM의
각종 화보를 촬영하며 본격적인 모델
활동을 하게 되며 세계 34개국의 MISS
MAXIM 우승자가 경험을 벌이는 MISS
MAXIM WORLD Online Contest 참가
후보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MAXIM 홈페이지에서 15일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
인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거
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www.maximkorea.net 참조)
매 회차 예선 통과자는 2012 MISS MAXIM 준결
승(또는 준준결승) 콘테스트에 진출하며 단계가 높
아질수록 온라인 콘테스트 상금도 가파르게 올라
갑니다!

참가 신청 방법

1.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MAXIM 홈페이지에서 미스맥심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 ▶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섹시함을 잘 표현
한 사진을 10장 이상 업로드 ▶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끝~

2. 이메일로 신청하기

홈페이지 신청도 귀찮다면 간단한 프로필, 연락처,
본인 사진을 alice@maximkorea.net으로 보내주
세요. 사진은 10장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문의 이메일: alice@maximkorea.net 전화: 02-323-1182



The Helpful Hottie

알로하! 하와이에서 온 아름다운 그녀, AJA가 알려주는 연애와 기타 잡상식에 관한 화끈한 팁!

PHOTOGRAPH JOE MCCONNELL
DESIGN 신숙희

남자가 울어도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 LUCA NORTON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면 언제든 괜찮아요. 난 감성이 풍부해서인지 남자들이 진솔한 감정을 표출하는 게 오히려 좋던걸요?

여자친구의 친구 중 정말 밥맛인 여자가 있어요. 이걸 여친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 DANNY JONES

그 애길 좋게 포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여자친구

기분이 최대한 덜 나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요.

팝콘은 왜 '아재'가 아닌가요? 식물이잖아요?

- KYLE DAVENPORT

아해! 나 왜 그런지 알아요! 옥수수가 튀겨지고 난 다음엔 이미 본래의 영양 성분을 잃거든요. 그래서 팝콘은 더 이상 식물성 음식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트와일라잇〉 시리즈를 보다 문득 궁금해서 여쭙니다. 전 흡혈귀 에드워드 편에 서야 할까요.

HOT SAUCE

Women,
Dating,
Sex, and
More Sex!

아님 늑대인간 제이콥을 응원해야 할까요?

- BRENDAN GREEN

이런 질문을 하다니! 미안하지만 당신 고추를
당장 분리수거해야겠네요.

사전에 나온 단어의 철자가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전이 다 맞는 건지 어떻게 판단
하죠?

- DERRICK COLL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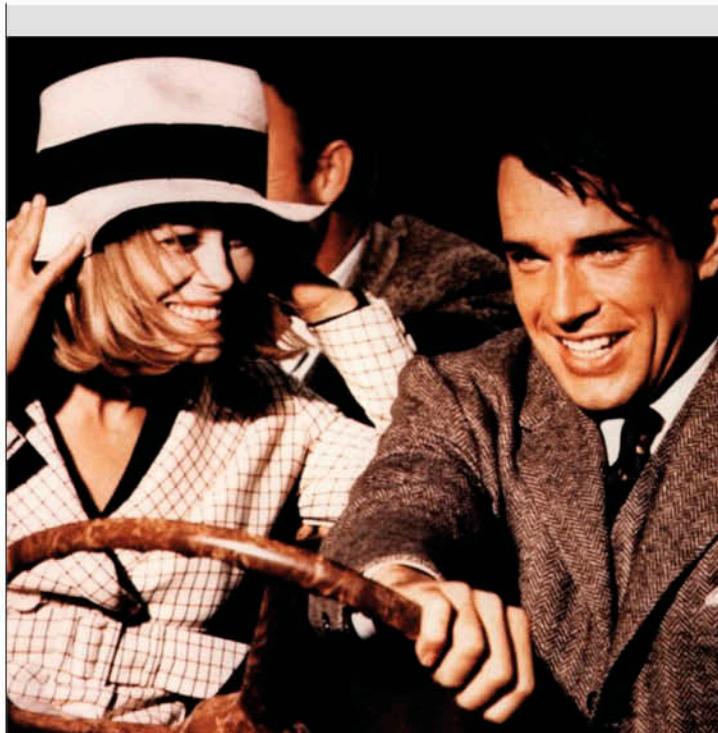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우리가 한
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사전 만드는 편집자들이 술과 마약에 떨어서
손을 달달 떨면서 타이핑을 하지 않았을 거라
고 그냥 믿어봅시다.

서츠 THE SOCIAL DEPT
비키니 하의 CRYSTAL JIN



20 WORLD'S GREATEST LOVERS

세상에서 여자를 많이 밝히기로 소문난 수컷들!
BY 김희성 DESIGN 신숙희



워런 비티
직업: 영화배우

19

엘리자베스 테일러, 브리짓 바르도, 다이안 키튼, 심지어 마돈나 등 수많은 여자를 침대로 불러들이고, 미녀 여배우 아네트 베닝의 남편이 된 20세기 최고의 카사노바. 그의 리즈시절은 1970~80년대였는데 워런 비티와 섹스를 하기 위해 헐리웃 진출을 꿈꾸는 배우 지망생들이 넘쳐날 정도였다. 이제까지 잔 여자의 수가 총 1만 3천 명 정도라는데, 매일 여자를 바꿔가며 하루에 한 명씩 같이 자도 3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롤프 에덴
직업: 독일 한량

젊은 시절 나이트 클럽을 여러 곳 운영했는데 현재는 돈 많은 백수다. 가장 창피한 베를린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여자를 3천 명도 넘게 고셨는데, 80세가 넘는 지금은 자신을 황홀한 섹스로 죽여줄 최후의 섹스 파트너를 찾고 있다. 복상사에 이르게 해주는 여자에게 약 2억 원을 준다는데, 안 죽으면 땀 한 톨 안 준다는 거잖아? 머리 한번 잘 썼네...

20

18 **바이런**
직업: 시인



천재 미남 시인 바이런은 어릴 때부터 잘생겼던 건지 아홉 살 때 보모에게 섹스를 하자는 제안을 받는다. 선천적으로 다리에 기형이 있었지만 인기에는 별 지장이 없었다. 역시 세상은 얼굴인가! 이후 성가대 남자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배 다른 누이와 근친 상간을 하는 등 36년 동안 300명의 여자와 200명의 남자(!)와 사랑을 나눴다.

17 **펭귄**
직업: 동물



귀여운 얼굴(?)로 동성애를 즐기고 어린 펭귄을 성폭행하기도 하고, 폐심을 즐기는 건 물론 심지어 죽은 암컷과 교미를 시도하기도 하는 사기 캐릭터이다. 100년 전에 펭귄의 번식 주기를 연구하던 과학자 레빈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이 내용을 그리스어로 기록해 일반 독자들은 못 읽게 해냈다(그리스인은 어쩌라고...). 이놈들은 똥속부터 털 끝까지 고회환으로 되어 있나?



찰리 채플린
직업: 희극배우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여자와 4번이나 결혼했던 찰리 채플린은 73세에 8번째 자식을 봤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지. "사랑의 행위는 숭고한 예술로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로 그는 죽는 날까지 지속적인 연습을 했다. 근데 73세에 낳은 건... 아마 찰리 채플린 아들이 아닐 거야.

16

13 김생
직업: 조선 시대 소금 장수



카사노바와는 반대로 곳곳에 씨앗을 뿌리고 다닌 농부 같은 사람. 하루라도 안 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력이 대단했다. 그래서 서른 살이 되기 전에 낳은 자식이 10명이었다. 그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소금 장수가 됐는데 소금을 팔러 가서 과부들과 또 했다. 2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팔고 나니 아들만 83명이 됐다.

12 고무 오리
직업: 장난감



목욕용 장난감이라선지 노랑도 말랑말랑한 감촉이 꽤 야하다. 디자이너 토니 레빈이 고무 오리에 엔진을 장착한 이후로는 방수 바이브레이터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여자와 목욕을 한 이 오리는 2002년 에로틱 어워드에서 최고의 섹스 토이상을 수상했다. 아젠 오리카지 경쟁 상대라니...



12 카사노바는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남겼는데 그 수가 12권이었다.

19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맨스필드 캠퍼스의 심리학자 테리 피셔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남성은 하루에 19번 섹스 생각을 한다.

10 반면 젊은 여성은 하루에 10번 섹스를 떠올린다. 음식 생각은 15번, 잠에 대한 생각은 8.5번 한다.

96 19세 여고생과 29세 주부는 12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은 남자를 사정시킬 수 있는지를 겨뤘는데 역시나 열 살이나 어린 여고생이 이겼다. 그녀는 사정시키는데 평균 7분, 총 96명을 KO시켰다.

12 세상에서 가장 큰 고무오리의 높이는 12m다.

15 짱구
직업: 유치원생



지나가다 예쁜 누나들이 보이면 "아가씨, 피망 좋아해?"라는 멘트를 날린다. 피망이라니...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멘트를 날려도 짱구는 어리다는 이유로 누나들의 귀여움을 받는다. 불공평하다!

11 프랭크 애버그네일
직업: 사기꾼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았던 역할의 실존 인물이다. 파일럿이라고 뺑을 치고 공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960년대 당시 슈퍼모델과 동급이었던 스튜어디스들과도 자주 호텔을 들락날락거렸다. 파일럿 외에 의사, 변호사, 교사로도 행세하면서 여자들을 따먹고 다녔다.

14 카사노바
직업: 카사노바



여자들을 많이 후리고 다닌 것보다 더 대단한 건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여자도 임신시키지 않았다는 거다. 카사노바는 삽입할 때마다 황금 구슬을 상대 여성에게 삽입해 구슬이 정액을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라는데 알고 보면 정자가 빠졌던 거 아니냐? 카사노바 말고도 바람둥이는 술하게 많았지만 그가 바람둥이계의 전설이 된 건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당신도 써라. 새로 여자를 꼬실 때마다 그녀의 직업, 나이, 가슴 사이즈, 직업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 당신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09

갑각류
직업: 동물



지구에서 페니스를 맨 처음 단 동물이다. 초기 갑각류의 거시기 사이즈는 안타깝게도 겨우 1mm에 불과했지만 번식 능력만큼은 끝내줬다. 본인 몸보다 10배나 큰 정자를 생성하는 당신이 진짜 정자왕!

10

휴 헤프너
직업: <플레이보이>
창업자



무려 3천 명의 여자와 섹스를 했고, 플레이 보이 맨션으로 잘 알려진 그의 대저택에서 예쁘고 심지어 어린 여자들과 함께 살며 꿀 빠는 삶을 살고 있다. 올해 86세인 휴 헤프너는 첫 번째 부인, 동생, 동생 부인 이렇게 넷이서 폐심을 하려고 했으나 첫 번째 부인이 포기해 대신 동생 부인과 섹스를 하기도 했다. 얼마 전 예순 살이나 어린 약혼녀와 헤어졌다가 재결합했다.



08

제우스
직업: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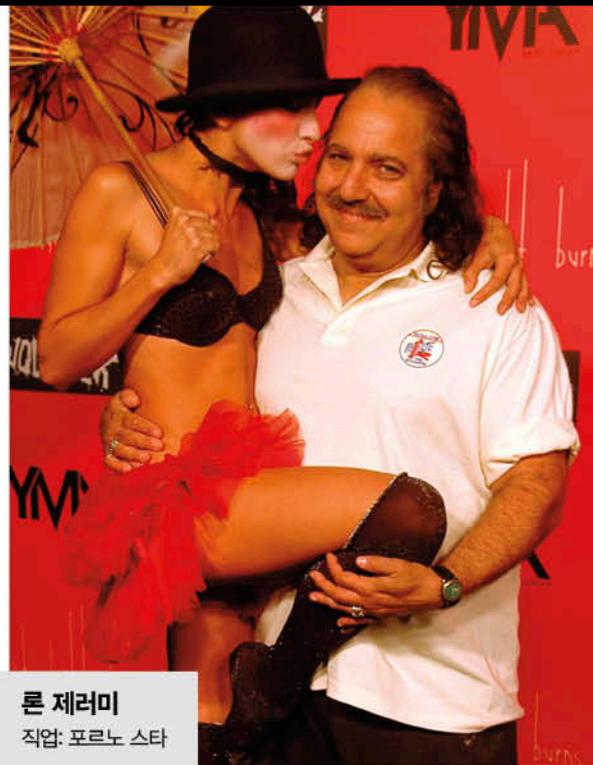
번갯불에 콩 볶으면 위험하니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답게 수많은 여신과 인간 여자, 님프들을 돌아다며 꼬시고 다녔다. 제우스는 작업 스케일도 제일 컸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암컷을 유혹하는 걸 취미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람피우는 현장을 들켜지 않기 위해서도 변신 능력을 사용했다. 하지만 가끔 역효과가 난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천둥, 번개로 변신해 연인 세멜레를 태워 죽이기도 했다.

07

약 2천 편이 넘는 작품에서 4천 명이 넘는 여자들과 합을 맞쳤다. 168cm에 80kg라는 자질 몸매지만 자극히 일반인 같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열광했다. 몸 좋고 잘생긴 수컷을 TV에서도 보는 건 싫으니깐. 하지만 아랫도리의 발육만큼은 남달랐으니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는 오토펠리치오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럴 것까진 없었잖아?



론 제러미
직업: 포르노 스타





50

올해로 81세가 된 독일 최후의 플레이 보이 로프 에덴과 현재 부인의 나이 차이

7000

칭기즈칸이 거느린 처첩의 수

19

체플린은 자기보다 열아홉 살이나 어린 16세 소녀 리타 그레이와 결혼했다. <롤리타>가 이를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30

여성의 성욕에 관한 연구인 '하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30%만이 삽입을 통해 오르가즘을 경험한다.

70

나머지 70%의 여성은 다른 걸로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40%는 손의 자극에 의해, 30%는 오럴섹스를 통해 오르가즘에 도달한다. 거기가 잘 안 서면 손과 입으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잖아?

3

첫사랑과 결혼까지 걸 확률은 3%에 불과하다.

05 엔젤스
직업: 매춘남

스위스 최초로 문을 연 여성 전용 매춘 업소 '엔젤스'에 가면 화려한 서비스와 스킵을 보유한 남자들을 만날 수 있다. 금액에 따라 단순 마사지에서부터 스트립쇼, 섹스까지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동차 정비공 출신의 한 남성은 "수많은 고물 자동차를 상대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교훈을 전해주었다.

02 헨리 8세
직업: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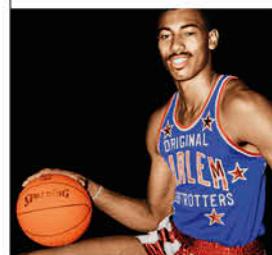
6명의 아내로는 부족했는지 왕비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들쭉시키고 다니며 난잡하게 놀았다. 그의 네 번째 부인은 무려 스무 살 이상 차이가 나는 영계였는데, 초상화와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녀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소개해준 토머스 크롬웰을 사형시켰다.

04 밍크
직업: 동물



동물의 왕은 사자라 하지만 섹스의 왕은 밍크다. 전희 빼고 오로지 삽입만 8시간 동안 가능하다. 이제부터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으면 "밍크 같다"고 하면 되는 거다. 교미 도중 수컷이 암컷의 목을 깨물어야 배란을 하기 때문에 섹스 도중 피를 흘리는 암컷이 많다는 게 단점. 밍크가 SM 플레이를 즐길 줄이야...

03 윌트 체임벌린
직업: 농구 선수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센터로 꼽히는 윌트 체임벌린은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기고 심심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세운 기록 중 레전드급은 2만 명의 여자와 잤다는 거다. 2만 번이라고 해도 부러울 따름인데 2만 명이라니... 체임벌린의 키가 2m 16cm 였는데 혹시 큰 키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06

주왕

직업: 은나라 마지막 왕

하룻밤에 10명과 섹스를 해도 만족하지 못했다. '주자육림'이라는 말이 그에게서 비롯됐으니 알 만하지? 단단해진 아랫도리로 상대를 받쳐든 뒤 자신의 허리를 휘감게 하고 방안을 걸어 다니는 것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체위. 그러다 나라가 망했지만 후회는 없으리.

01

브리검 영

직업: 모르몬교 지도자



헨리 8세는 새밭의 피다. 사람들을 이끌고 황무지를 개척해 마을을 모른 공동사회를 만든 브리검 영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일부다처주의자다. 1824년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한 이후 총 27명의 아내를 뒀는데, 지식만 무려 56명에 달했다. YOU WIN!

SLASH

GUITAR LEGEND

기타의 전설 슬래시는 죽지 않는다.
다만 더 신나게 헤드뱅잉을 할 뿐이다.
여전히 그 과감한 모자를 쓴 채로 말이다.

BY DAVID SWANSON DESIGN 신숙희

ICON

우선 축하부터 해야겠군! 건즈 앤 로지스가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르다니.

사실 2007년 *벨벳 리블버가 그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할 때까지도 건즈 앤 로지스가 명예의 전당에 오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내 기억엔 더 밴드(The Band)의 멤버 로비 로버트슨이 "장담하는데 당신은 분명 2012년에 수상자로 오를 거다"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난 그런 걸치레식 칭찬 따위는 정말 싫다고 생각했지.

*보컬 액슬 로즈를 제외한 건즈 앤 로지스의 멤버들이 모여 2004년 결성한 헤비 록 스타일의 밴드.

하지만 비스티보이즈나 레드 핫 칠리 페퍼스 같은 굉장한 밴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니 대단한 일 아닌가?

그렇지. 레드 핫 칠리 페퍼스와 건즈 앤 로지스가 함께 수상한 것은 굉장한 일이다. 사실 나와 플리(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베이시스트)는 우리가 처음 기타와 베이스를 잡았을 무렵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뭐, 보통 열세 살쯤엔 BMX 자전거를 탄다든가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가 하면서 지내잖아. 우리는 기타나 베이스를 갖고 논 셈이지.

그 시절 당신들은 록 스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음, 믿기진 않겠지만, 당시 플리는 굉장한 실력의 트럼펫 연주자였다. 그는 길거리를 오가며 트럼펫을 불곤 했지. 그 멋진 친구와 함께 지내는 일이 즐거웠고, 그래서 이번 공동 수상도 내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페이스(Faces)가 함께 수상한다는 사실도 그렇지.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 로니 우드도 내가 열세 살 무렵부터 알고 지낸 친구다. 사실 그들은 나보다 한참 전에 이미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야 했다.

그런 말은 다른 밴드에도 할 수 있는 뻔한 얘기 아닌가?

정곡을 찔렀군. 사실 수상은 커녕 후보 명단에 오르지도 못한, 하지만 이 상을 받아 미망한 수많은 밴드 사이에서 이런 커다란 영예를 누가 받을지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키스도, 칩 트릭도, 딥 퍼플도 이

상을 받지 못했다. 물론, 건즈 앤 로지스도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영예를 누리야 했던 밴드도 많다는 소리다.

로니 우드와의 친분을 언급했는데, 과거 롤링스톤스와 건즈 앤 로지스가 함께 공연하던 시절에도 잘 어울리곤 했나?

알다시피, 난 그 시절에 굉장히 미친놈이었던지라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용하다고 생각한다. 쇼가 끝나면 나는 리무진으로 뛰어들어가 모습을 감추는 걸로 공연을 끝내곤 했는데, 당시의 뻔한 신비주의적 로큰롤 클리셰였다고나 할까.

그래서 당시 건즈 앤 로지스와 롤링스톤스 멤버들이 모두 모여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나만 늘 빠져 있다.

요즘은 새로운 밴드 멤버들과 함께 이번 앨범 <APCALYPTIC LOVE>의 투어를 돌고 있다. 최근 6년간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는데, 멤버들과의 불화가 적어진다는가 하는 이점이 있었나?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속한 그룹이나 처한 상황에 자신을 맞추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술과 담배를 끊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멤버들과의 불화를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다만 내가 쓰고 녹음한 곡을 연습하고 그것을 청중에게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는 일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노래를 하고 싶다는 유혹에 흔들린 적은 없나?

아, 절대로. 노래하는 건 정말 싫다.

딱히 노래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음악의 특정 가사에 감정을 쏟아 붓는다는 일 자체가 나한테 너무 오글거리는 일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우리 팀 보컬 *마일스 케네디는 그쪽 방면으로는 무척 탁월한 친구다. 그의 훌륭한 실력은 전부터 정평이 나 있었지. 하여튼 우리가 만든 노래를 들어봐라. 정말 끝내준다.

*현재 미국의 얼터너티브 메탈 밴드 얼터 브리지(Alter Bridge)의 보컬리스트. 출중한 실력으로 레드 제플린의 차기 라이브 투어에서 로버트 플랜트를 대신해 보컬 픽업 후보 1순위에 꼽힌 적이 있다.

당신은 영국 태생이고,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러면 어린 시절의 당신은 영국 악센트를 썼나?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을 녹음한 테이프를 들어주셨는데, 영국 북부의 딱딱한 발음을 하고 있더라고. 처음 LA에 왔을 때는 정말 걸처 쇼크였다. 억양 때문인지 난 학교에서 왕따였다. 그래서 영국식 발음을 뜯어고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

당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그 높은 모자는 '실크햇'이라고 불리더니, 요즘은 가족으로 되어 있더군.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모자를 갈아치웠는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것도 1980년대 후반부터 쓰던 것이다. 위에 가족을 덮은 것뿐이지, 사실 안에 있는 것은 존나 싸구려모자다! 아마 낡아서 버린 모자는 두 개 정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새것을 사본 기억이 가물 가물하다.

역시 당신은 록 역사상 가장 개성 있는 사람이다. 헬러윈 데이엔 슬래시 코스튬을 하는 인간도 많은데, 그런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나?

몇 년 전 시카고에 있을 무렵, 유령의 집 같은 곳엔 간 적이 있다. 무슨 사고 파티의 일종이었는데, 거기서 나랑 똑같이 차려입은 사람을 보았다. 그때 아마 그런 사람을 처음 봤던 것 같다.

내 도플갱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 이후로도 이상한 자리에서 나를 따라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다. 심지어 처음 봤던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더라고...

아마 당신도 자신처럼 슬래시 추종자라고 생각했겠지.

한번은 누가 너더러 "진짜 슬래시 같네요!"라고 한 적도 있다. 아참, 작년 헬러윈 이브에 큰 파티에 갔는데 거기엔 슬래시 세 명이 심지어 액슬까지 있었다. 그 날도 나는 평소대로 입고 갔으니 슬래시가 네 명이 된 셈이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뭐 나중엔 그들과 어울려 밤새 즐겁게 놀았다. 🍷

“
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용하다.
”

조심해!
폭풍 간지다!



QUEEN S BLADE

아이상젠

얼마 전 신상 MMORPG 게임 <퀸스블레이드>의 게임 속 캐릭터로 빙의한 것 같은 완벽한 코스프레로 화제에 오른 중국 최고 미녀, 미스 차이나 아이상젠이 MAXIM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자, 보라. 13억의 기적이란 이런 거대!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주연 MAKEUP 고영은 WORDS&FILM 송종민 DESIGN 서윤정 ASSISTANT 송안나
COOPERATIONS 스와치비쥬(02-3149-9549), 제이티아라(070-8747-5001), 지피엑스(02-3438-5694), 코데즈컴바인 스타킹(02-2117-7000), 케이트앤컬리(02-337-1514), 슈즈원(02-3443-1703)

GO TO
MAXIM
iPAD
마공캐컷



중국
최고
미녀의
도발





아이상젠

생년월일: 1988년 9월 9일

키: 180cm

태어난 곳: 중국, 충칭

몰매 비결: 수영과 요가

별명

섹시 아신, 내가 지은 거 아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루고 싶은 목표

세계를 대표하는 건강함, 열성, 눈부신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것. 너무 미인대회
멘트 같나?

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많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 시간을 보낸다.(웃음)

최악의 작업 멘트

너무 오버하면서 들이대는 모든 말.
진실해 보이지 않다고!

여가 시간

긴 휴가를 얻는다면 여행을 떠날 거다.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책도 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늦게 자고, 게임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거다.
당신과 똑같지?



갈씨는 모두 스와치비주



한국은 몇 번째 방문인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은 아름다우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나라다. 또 올 때마다 환영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언제나 좋은 인상을 받는다. 이번에도 친절하게 보살펴줘서 다시 한 번 감동했다. 이리니 내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우리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나저나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기 힘든 몸매다. 하지만 당신도 감추고 싶은 콤플렉스가 하나 정도는 있겠지? 내 몸매와 키에 아주 만족한다. 사실 이걸 모두 유전이다. 아버지 키는 193cm, 어머니도 키가 크고 몸매도 무척 좋으시다. 그걸 고스란히 나한테 물려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콤플렉스? 그건 먹는 건가?(웃음)

큰 키 덕분에 세계적인 모델이 됐지만 남 모를 고충도 많았을 것 같다.

버스를 탈 때 항상 어른 요금만 냈다는 것. 아무도 어린이라고 생각해주지 않아서 슬펐다. 또 눈에 잘 띄다 보니 그만큼 있어도 주목받는 일이 많아 어렸을 땐 그런 게 너무 싫고 두꺼웠다. 하지만 모델이 된 이후로는 키가 큰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요즘엔 키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 다리가 길어 의자에 자주 부딪쳐 멍이 많이 생긴다는 점 빼고(웃음)

2008년, 친구 따라 우연히 국제중화미인대회에 참가했다가 열석 3위에 올랐다고 들었다. 이런 건 한국에서도 가장 흥한 미인대회 입상 스토리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나? 혹시 미용실 원장님...?

(웃음) 당연히 가족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니까.

미인대회 입상 후 연예계의 러브콜도 있었을 텐데 학교로 돌아갔다. 그때 바로 데뷔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모델이라고 단순히 걸모습만 가꾸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외모보다 중요한 건 모델 일을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의상이나 액세서리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내면의 교양과 이해 능력이다. 중국에는 "배울 수 없을 정도로 늙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학업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특이하게도 2009년에 대전까지 와서 청소년 가요제 1위를 차지했다. 낯선 한국 땅까지 와서 가요제에 나간 이유가 궁금하다.

평소 한국에서 방영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행에 줄곧 관심을 두고 있던 차에 우연히 대전에서 가요제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열석 참가를 결심하게 된 거다.

팔씨 케이트앤켈리
반지 스와치비주얼

스타킹 코드즈컴바인 스타킹
목걸이 제이티아라
반지 스와치비주얼



예쁜데 노래까지 잘하다니 신이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닌가? 하지만 당신도 자신 없는 분야가 있긴 있겠지? 있을 거야...

선천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것 같지만 노래 실력은 별로였다. 그래서 매일 노래 연습을 했다. 마찬가지로 익숙하지 못한 것들은 잘 못하는 편이다. 요리를 배울 시간이 없어서 주방에만 들어가면 허둥댄다. 그리고 면허증을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할 때 긴장을 엄청 많이 한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뭔가?

가요제 나갈 때 실력이 출중한 참가자들이 아주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대회가 열리는 7일 내내 쉬는 시간마다 참가 곡을 연습하고, 늦은 밤 숙소에서도 옆방에서 노래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한국인의 의지와 열정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중국과 한국이 가장 달랐던 점은?

성형에 대한 생각. 중국인은 성형에 대해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다.

성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당신도 성형하고 싶은 신체 부위가 있나?

내 외모는 순수 자연산이다. 심지어 치아 교정도 안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마다 고유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성형으로 모습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굳이 바꿔야 한다면 내 교양을 업그레이드해 인격적으로 더욱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다.

게이머들에게 친필로 쓴 편지를 봤다. 한글은 언제 배웠나?

사실 한국어를 배운 적은 없다. 한국에 올 때마다 몇 마디 배운 게 전부다. 이번에도 한국 친구가 번역해 준 걸 베껴 적은 거다. 거의 그랬지 뭐.(웃음)

한국 남자는 어떤가? 키가 워낙 크니 호빗족은 눈에 차지 않겠지?

외모 이상형은 원빈과 비. 하지만 외모보다는 마음이 깊고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 좋다. 유머러스하면 더 좋겠지! 키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와 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웃음)

내가 당신보다 3cm 더 크다.

남자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실함과 앞으로의 전망이다. 키가 아니라니깐!





름 지지피엑스
금색 팔찌 케이트앤켈리



“
내 몸매는 글래머러스한
게임 캐릭터와 닮았다.
”

얼마 전 <퀸스블레이드>의 게임 캐릭터 의상을 실제로 입고 나와 화제가 됐다. <퀸스블레이드>의 모델로 발탁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퀸스블레이드> 게임 캐릭터의 몸매가 나와 흡사해서?(웃음)

게임 캐릭터들이 비정상적으로 팔다리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니 이해가 된다. 여섯 캐릭터 중에서 가장 당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뭔가? 또 실제 이 게임을 한다면 어떤 클래스를 고를 건가?

내 외모와 몸매가 '쉐도우 워커'와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쉐도우 워커의 글래머러스한 몸매, 곡선미가 특히 아름다운 것 같다. 가장 높은 레벨에 아주 강력한 장비로 게임을 한다면 아주 즐거운 것 같다. 나한테 최고 등급 계정 하나 주면 안 되나?

남자친구와 게임 때문에 싸워본 적이 있나? 한국은 남자들끼리 PC방에 몰려다니며 게임에 집중하다가 여친의 분노를 사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어떤가?

난 대체로 집에서 놀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게임 때문에 싸워본 적은 없다. 하지만 중국에도 게임 때문에 싸우는 커플이 많다. 커플이 함께 PC방에 간다고 해도 여자는 그냥 남자친구 따라와서 할 게 없으니 결국 소외감을 참지 못한 여자친구가 화를 내게 되는 식이다. 중국 남자도 한국과 똑같지 않나?(웃음)

중국에선 어떤 게임이 인기 있나?

<크로스 피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가장 인기 있다. 특히 한국에서 만든 <크로스 피어>는 2012년 새로운 캐릭터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이라 인연이 깊다.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든 거다. 가입자 수만 3억 명이 넘는다. <퀸스블레이드>도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게임을 즐기는 편인가?

마음을 가벽게 하고 심을 때 게임을 한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좋다. 특히 RPG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속 아름다운 배경과 충격적인 스토리, 멋진 캐릭터 디자인과 화려한 액션은 게임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도 하루 빨리 <퀸스블레이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전형적인 마지막 질문. 앞으로 뭘 하고 싶나?

영화를 찍는 게 최근에 생긴 목표다! 사회에 이익이 되는 공익 활동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당신은 진짜 완벽한 여자다! 

김기범

학창 시절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다는 김기범이 조명이 켜지자 뺨속까지 일진으로 빙의했다. 언제까지 곱상할 수만은 없잖아?

BY 박찬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김현애 MAKEUP 고영은 STYLING 김여정
DESIGN 서윤정
ASSISTANTS 이영환, 손안나, 이진영
COOPERATION KTM(02-790-7999)

촬영하는 내내 표정이 너무 리얼했다. 학교 다닐 때 좀 놀았나?

사실 이런 콘셉트의 촬영을 처음 접해봤다. 그동안 순수하고 착한 역할만 해왔으니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최면을 걸었다. '난 논놈이다.'

그럼 주변 친구들이 침 좀 뱉던 무리였었나?

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다. 내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착한 학생이었다. 영화와 만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친구>, <상남 2인조>, <반항하지마>를 무척 재밌게 봐서 어렵진 않았다. 지금도 악귀 영길이의 팬이다.

미국 불량학생들은 대한민국과 급이 다르다고 들었다. 열 받으면 총으로 쏘고 그러나?

총을 갖고 다닌 친구들은 없었다. 딱히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다든가 하는 정도? 총격전 같은 건 영화에서나 그런 거다. 중·고등학교 애들이 사람을 어떻게 쏘겠나?

싸움은 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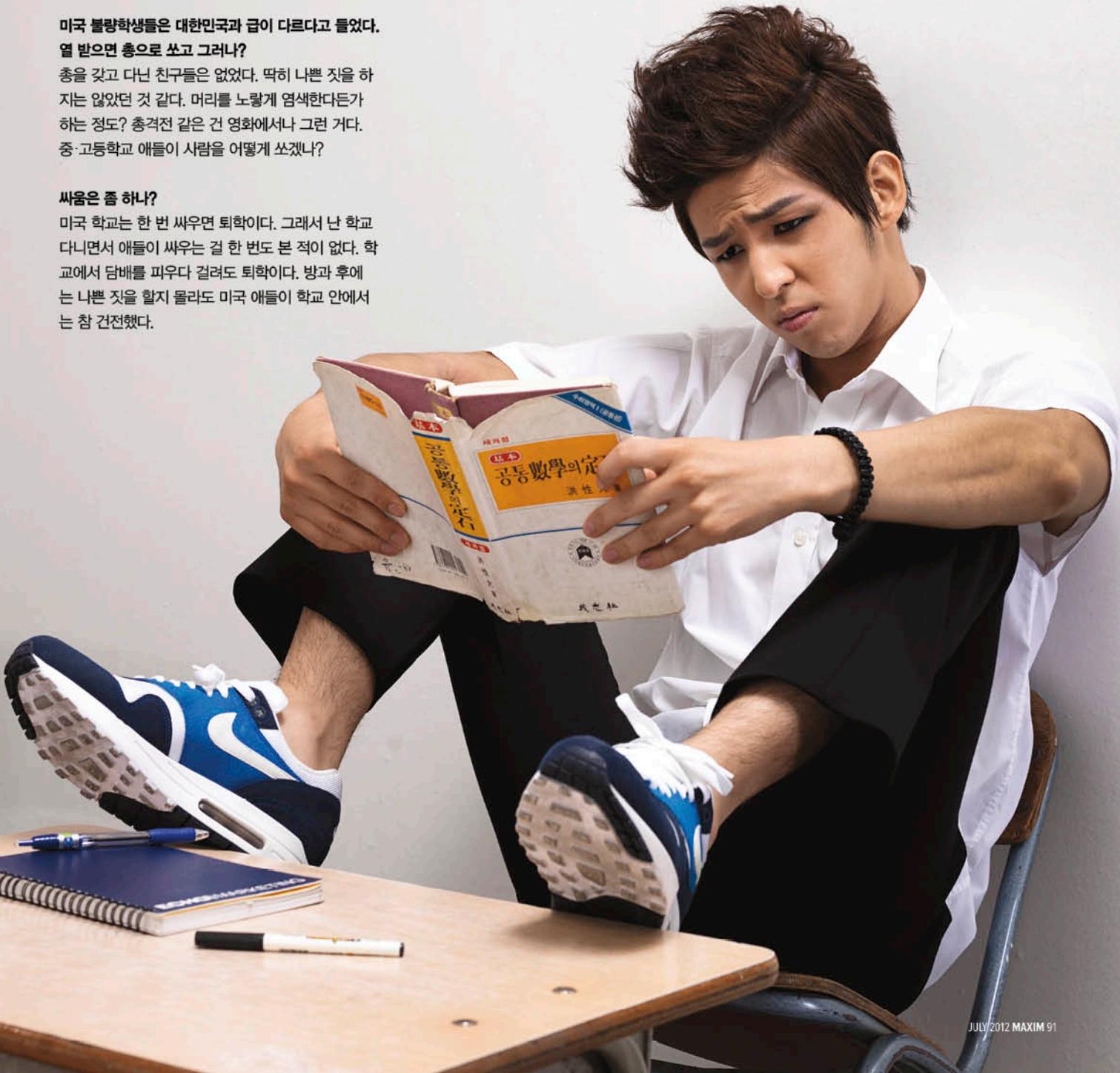
미국 학교는 한 번 싸우면 퇴학이다. 그래서 난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퇴학이다. 방과 후에는 나쁜 짓을 할지 몰라도 미국 애들이 학교 안에서는 참 건전했다.

짹짹 길라진 근육이 눈에 띈다. 운동을 대체 얼마나 한 건가?

운동을 한 지는 꽤 됐다. 영화 <주먹이 운다>에서 실제 복싱 트레이닝을 하는 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복싱을 배운 지 벌써 7년 됐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러브 이태리>를 시작하면서 수영 선수 역할로 몸을 보여주는 신이 많아 6주 동안 빠르게 하드 트레이닝도 했다.

이렇게 떡 벌어진 어깨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 달라.

어깨 넓히는 데는 수영만 한 게 없다. 점영만 죽어라 했더니 이렇게 됐다.



키에 대한 논쟁이 많다. 실제로 보니 소문처럼 작아 보이지 않는다.

정확히 177.7cm다. 다른 배우들에게 비하면 작은 편이지만 난 내 키가 너무 좋다. 보통 여자 배우들이 163~165cm정도 되니까 호흡 맞출 때 딱 적당하다. 개인적으로 흰칠한 배우보다 이병헌 선배님이나 원빈 선배님처럼 자기 매력이 풍부한 연기자를 좋아한다.

〈반올림〉 때문인지 당신은 아직도 고등학생 같다.

어렸을 때는 귀엽다는 말이 참 별로였는데 지금은 동 안이라고 불리는 게 매우 좋다. 〈아이러브 이태리〉도 어려보이는 이미지 덕분에 섭외가 들어왔다. 일거리가 들어온단 말이다.

박예진씨랑 나이 차이가 꽤 난다. 호칭은 뭐라고 하는가? 누나? 이모?

선배님, 혹은 태리씨. 내 대사 중에 제일 많은 게 “태리씨”다. 대사 앞에 항상 붙어있다. “태리씨, 이것 좀 해주세요.”, “태리씨, 밥 먹었어요?”

촬영 중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

주비(써니힐) 씨에게 따귀를 맞는 장면이 있었다. 요령껏 소리만 크게 내게 때렸어야 하는데 서로 신호가 잘 안 맞았다. 따귀를 맞는 순간 턱이 빠졌다. 복싱 7년 하는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턱이 말이다. 입이 안 다물어져서 그날 촬영이 다 취소되었다.(웃음)

대체 키스신은 언제 나오는가?

미리 받아본 대본까지 아직 키스신이 없다. 언제 나오나 하고 있긴 하다.(웃음) 박희순 선배님이 보시고 혼내시진 않겠지?

실제 첫키스는 언제인가?

열여섯 살 때 교회에서. 주위 조명은 다 꺼져 있고 피아노 쪽에만 조명이 딱 켜져 있더라. 기회다 싶었다. 물론 중등부 예배 드리는 작은 예배당이어서 아무도 없는 게 더할 나위 없는 찬스기도 했다.

연예인 중에는 누구와 가장 친한가?

연제욱. 〈반올림〉에서 내 짝꿍 역할을 하던 친구다.

SM 식구 중 친한 사람은 없나?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고아라. 우리는 같은 시기에 연습실에서 연습생 시절을 보냈다.

소녀시대랑 친구라니... 소속사에서 연애를 통제하지는 않나?

내가 공개 연애에 대해서는 쿨한 편이라 숨기지 않는 편이다. 여친이랑 같이 클럽을 간 적도 있다. 일부러 사람 많은 명동 찾아가고, 사진 찍힐 일은 피하지만 당당하게 만나는 편이다.

오~ 여자를 많이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많이는 안 만났던 것 같다. 사실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뿌리 깊은 나무〉는 거의 다 남자, 할아버지, 아저씨들만 나왔다. 이제는 소개를 받지 않는 이상 연애하기가 어렵더라.

지금 외로운가?

무지하게 외롭다. 진장.

트위터를 영어로 많이 남긴다. 신중 허세인가?

해외 팔로워가 많다.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겠으니 영어로 좀 써달라고 요구하더라. 그래서 홍보도 할 겸 좋은 드라마라는 걸 영어로 썼을 뿐이다. 허세는 무슨. 미국에서 살다 온 거 아는 사람은 다 안다.(웃음)

김기범에게 MAXIM은 어떤 잡지인가?

참 '김구라'스럽다. 쉽게 하지 못하는 질문을 〈라디오스타〉에서 막 던지잖나?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되게 솔직한 잡지다.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구먼. 





김기범

생년월일: 1987년 8월 21일

신체: 177cm, 60kg

소속 그룹: 슈퍼주니어

대표작

〈반올림#2〉, 〈꽃미남 연쇄 테러사건〉,
〈뿌리깊은 나무〉, 〈아이러브 이태리〉

롤모델

한석규, 최민식 선배님. 연기 공부엔
이분들이 최고!

아이들의
일진만행
보러가기



SEXIEST OCTAGON GIRL

브리트니 팔머

UFC를 보다가 심봉사는 번쩍 뜨듯
앞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나? 링걸 브리트니
팔머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MAXIM이 그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BY No Keeho, Jhonathan Morel(몬스터짐)
COOPERATION 몬스터짐(www.monsterzymb.com)
IMAGE Getty Images DESIGN 신속희

이대로는
아쉬워!



Brittney Palmer

생년월일: 1987년 6월 24일

고향: 미국 샌디에이고

최악의 작업 멘트: "당신이 목욕하고
난 물을 마시고 싶어요." 너무 역겨웠어!

홈페이지: brittneypalmer.com

여기서 내 작품들도 구경할 수 있다!

트위터: @brittneypalmer



들리는가? 지금 한국 MAXIM 편집부 사무실에선 당신을 향해 "사랑해요!"라고 과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고맙다. 나도 당신들을 완전 사랑한다!

지난 5월호 MAXIM에서 한국계 UFC 라이트급 챔피언 벤 헨더슨에게 가장 예쁜 링걸을 뽑으라고 했더니, 고민 없이 당신을 뽑았다. 어머, 친절하셔라! 옥타곤 걸의 진짜 매력은 다양성에 있는 것 같다. 아리아니는 매끈하고 섹시한 이미지가 아니라, 나는 좀 더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할리우드 핀업 걸 스타일이다. 어찌 보면 옥타곤 걸은 보이 밴드 같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자기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타입을 찾을 수 있으니까.

몸매는 끝내주게 섹시하고 얼굴도 예쁘다. 게다가 스마트하고 재능이 넘치니 분명 학창 시절에도 인기 절정이었겠지?

너무 비행기를 태우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무척 내성적이었고 음악과 미술에 빠져 있었다. 그 나이 애들이 대부분 그렇듯, 심지어 조금 우울하기까지 했다.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예쁜 금발의 치어리더 타입과는 거리가 멀었지.

그림 솜씨도 수준급이다! UFC 회장 대나 화이트에게 직접 초상화를 그려 선물했는지? 물론 그는 대머리니까 남보다 그리기 쉬웠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머리가 수북한 지미 헨드릭스보다 말이다.

솔직히 와일드한 아프로 스타일의 지미 헨드릭스 머리보다 대머리 화이트를 그리는 게 더 까다롭다. 얼굴을 그릴 때 최대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 그려도 그걸 가려줄 머리카락이 전혀 없으니까.

그림 외에 또 다른 취미나 창의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다면?

물론 내 집에 있는 아트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걸 가장 좋아한다. 하지만 UFC와 함께 투어를 해야 하니 바쁘고, 그리겠다고 약속한 것들도 마쳐야 하니 가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마구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방구석 페인처럼 집 밖으로는 안 나오나?

스튜디오에도, UFC 투어에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베니스나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스케이트보드나 서핑을 즐기는 여자를 찾아보라!

옥타곤 걸들도 어느 정도는 격투 트레이닝을 한다고 들었다. 파이트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당신 앞에서 까부는 남자를 혼내줄 정도는 되겠지?

꽤 열심히 하긴 했다. 물론 링에 오르기 위한 건 아니고 주로 건강과 몸매 관리를 위해서지만, 보통 트레이닝을 하면 무에타이, 주짓수, 킥복싱, 복싱과 러

닝머신, 사이클, 거기에 요가까지 한다. 주먹 쓰는 방법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예스'. 하지만 누군가 내 앞에서 예의 없이 군다면, 주먹보다 내 입이 먼저 불을 뿜을 거다.

지난 12월 마크 호미닉과 정찬성 경기는 정말 흥미로웠다. 현장에서는 어땠나?

한국인 파이터 경기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 마크 호미닉의 고향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미닉을 꺾다니! 그것도 6초 만에 사상 최단 기록의 KO로 말이다. 코리안 좀비의 경기는 늘 무진장 흥분된다. 가장 최근 경기도 아주 재미있게 봤다.

그런 경기를 코앞에서 보다니 정말 부럽다.

정말 행운이다. 정찬성 같은 멋진 파이터들이 자기 체급에서 점점 주목 받는 모습을 매번 라이브로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자꾸 정찬성 얘기만 하니 김동현 선수가 섭섭해하겠다. 데미언 마이아와의 큰 경기를 앞둔 김동현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날려달라.

"가드를 올리고 턱을 내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살면서 부딪치게 될 모든 일에 통용되는 말이다.

당신은 어떤 남자에게 끌리나?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좋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내 호응이 아주 좋겠지만, 내가 관심 없는 골프 얘길 한다면 우리의 대화는 몇 초 만에 끝날 거다!

만약 누군가가 길을 가다 당신의 엉덩이를 슬쩍 만졌다면. 마침 당신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를 목격한다면. 그가 이 새끼를 어떻게 조져주길 바라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은 뒤 파운딩으로 마무리?

물론 MMA가 컨택트 스포츠긴 하지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옳지 않다. I'm a lover, not a fighter! 데이트 상대가 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한다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그전에 내가 먼저 쓰아붙일 테니, 내 남자친구는 입을 열 틈조차 없을 걸!

지난 UFC 146 경기 때 벨라스케즈가 안토니오 실바의 얼굴을 찧어서, 피가 팔팔팔 쏟아지는 장면은 남자가 봐도 섬뜩했다. 실제로 보니 어땠던가?

맨 앞줄에서 경기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척 긴장하게 된다. 매 경기가 그렇다. TV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 경기는 덜 끔찍하다. 물론 그런 경기를 보면 약간 비위가 상하는 게 사실이다.

피를 보면 흥분하는 사람도 있다면, 당신은 아닌가 보다.

기술적인 정밀도가 높은 경기가 더 재미있다. 직접 훈련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명 기술들이

얼마나 힘든 훈련과 과정을 거쳐 탄생하고, 실제로 링 위에서 그걸 구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니까.

UFC 유니폼은 정말 섹시하다. WEC에서 입던 유니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당신만 아는 차이점이 있나? 더 타이트하거나 짧거나?

똑같대! 둘다 주파(Zuffa)의 소유고 그 유니폼을 만드는 제작사도 같다. 글씨랑 색깔만 다를 뿐이다. 내가 입던 파란 WEC 유니폼도 좋았는데, 빨간 UFC 유니폼도 예쁜 것 같다!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신이 와서 한국에 섹시 토네이도를 일으켜줘야 하는데, 한국에서 활동할 생각은 없나? 오면 한국 음식을 쏘겠다.

섹시 토네이도라니 한번 일으켜보고 싶다. 물론 피해가 너무 심각하지만 않다면 말이다! 한국엔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꼭 가보고 싶다. 아트 갤러리를 열면 더 좋고! 내가 살고 있는 LA의 코리아타운에는 아주 좋은 식당이 많은데, 난 특히 불고기에 환장한다. 한국에 가면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싶다!

올해 UFC는 빅 매치가 많다. 가장 기대되는 경기는?

경기마다 엄청난 파이터들이 많이 등장한다! 가장 기대하는 경기는 오는 6월 클레이 구이이다와 그레이 매이나드의 경기다. 그리고 물론 코리안 좀비가 챔피언 조제 알도와 붙는 것도 빨리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귄 생각이 있나? 참고로 한국 남자가 최고다. 군대도 갔다 오고 책임감도 있다. 후후.

하하, 이거 'brittneynedsakoreanboyfriend.com (브리트니가한국인남자친구를찾아요닷컴)'이란 웹 사이트라도 열어야 하나! 📱

브리트니가 뽑은 섹시 MMA 파이터 TOP 3

"와우, 엄청 어려운 질문이다. 모두 가족 같은데!"라며 그녀가 꼽은 3명



유라이어 페이버
"우린 WEC 시절부터 알고 지낸 형제 같은 사이!"



클레이 구이이다
"실력도 성격도 최고!"



코리안 좀비 정찬성
"오즘 새롭게 그림으로 담고 있는 대상! 싸우는 모습이 섹시하다!"



THE FIGHTER

김동현

그는 개척자다. 한국인 최초로 UFC에 진출했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에서도 좋은 파이터가 UFC에 배출되고 있음을 알렸다. 반대로 UFC는 그를 통해 한국 시장에 크게 어필할 수 있었다. 국내 파이터들은 그를 보며 메이저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게 되었다. 올여름 뜨거운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 남자, 김동현 선수를 만났다.

BY 격투칼럼니스트 이용수 PHOTOGRAPH ARC STUDIO
ASSISTANTS 서현우, 손안나, 이영원 DESIGN 서윤정
COOPERATION 김동현 피트니스(팀매드 대진 자관 010-4093-7118)

UFC 진출 이후 5승 1노컨테스트(무효경기) 무패의 전적을 기록하던 그는 2011년 7월 현 UFC 웰터급 잠정 챔피언 카를로스 콘닷에게 지면서 UFC 데뷔 후 첫 패전을 경험했다. 5개월 후 복귀전에서 선 피어슨을 맞아 완승을 거두며 타이틀 전선으로 복귀하는 김동현의 레이더에 포착된 다음 상대는 주짓수 마스터 데미언 마이아다(7월 8일 UFC 148). 이 경기를 앞둔 김동현은 최근 고향 대전에 자신의 이름을 건 피트니스 센터를 열었다. MAXIMI 김동현 선수를 만나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훈련에 매진하며 뜨거운 땀을 쏟아내고 있었다. 필자는 격투기 체육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미모의 여직원들을 보며 “젠장! 부럽다, 부러워!”라며 괜히 열을 내며 땀을 쏟아냈다.

■■■■■■■■■■ 파이터 김동현의 시작 ■■■■■■■■■■

용인대 하면 강한 남자들과 그에 못지않은 만만찮은 여성들이 우글대는 용담호화로 알려져 있다. 해병대의 위상 역시 마찬가지. 용인대 유도학과와 해병대 출신의 김동현은 프로파이터의 길을 선택했다. 보통은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학교와 병과지만 김동현은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데다. 용인대는 예의를 중시하는 만큼 선배들 간에 잘 챙겨주고 해병대도 마찬가지다. 인생에서 용인대와 해병대만큼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드가 매우 인기였고 국내에서도 스피릿 MC가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었다. 2004년 4월 10일, 그는 스피릿 MC로 프로 데뷔를 했다. 데뷔전 상대는 이미 프로 무대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노영암이었다. 이 경기에서 김동현은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같은 해 9월, 김동현의 프로 두 번째 경기가 열렸다. 여기서 김동현은 〈사망유혹〉의 이소룡 복장을 하고 쌍절곤을 둘러며 등장했다. 그 자신도 멋쩍은 웃음을 짓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다. 김동현은 이에 대해 “경기도 경기지만 소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장 형들과 의논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약간 민망하긴 했다”고 고백했다. 결과는 여유 있는 3:0 판정승. 순조로운 2연승을 달리던 중, 이 경기 직후 김동현은 갑작스럽게 뉴질랜드로 유학을 떠났다.

“격투기가 좋아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20대 중반에 접어드니 답이 안 나왔다. 운동에 대한 욕구 만큼 돈을 벌고 싶은 욕심도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사업으로 성공 한 다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선 정든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니 운동을 그만두지 못할 것 같았다.”

김동현의 뉴질랜드 생활은 치열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낮에는 노동판에서, 저녁에는 노래방에서 일하면서 쓰리 잡을 뛰었다. 남은 시간은 모두 영어 공부에 투자했다.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추억이 깊다”고 그가 말했다.

■■■■■■■■■■ 압도적인 신인 ■■■■■■■■■■

외유는 길지 않았다. 약 16개월 후인 2006년 4월 일본의 DEEP에서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의 ‘조 실버(UFC의 매치메이커)’라고 불리는 천창욱 프로모터가 일본 진로를 소개했던 것이다. 김동현은 무대를 압도하는 무서운 신인이었다. 일본 진출 직후 6연승을 거두었는데, 그의 상대 6명 중 판정까지 살아남은 선수는 단 1명이었다. 7, 8전도 압도적인 KO였다. 특히 8전의 상대 마에지마 유키하루가 서 있을 수 있던 시간은 단 1초였다.

9전째 상대는 DEEP 웰터급 챔피언 하세가와 히데히코(14승 7패 4무)였다. 경기는 논타이틀전이었다. 하세가와는 초반부터 강하게 나왔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거의 일방적인 우세를 가져가던 김동현은 3라운드 종료 1분여를 앞두고 그라운드 위 상대의 머리에 사커 킥을 적용시키고 파운딩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이어진 스탠딩에서 하세가와는 김동현에게 백을 내주고 뺨쳐 들린 후 슬랩을 당했다. 머리부터 떨어진 하세가와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즉각 마운트를 점유했던 김동현은 파운딩 폭격을 퍼부어 TKO 선언을 이끌어냈다.

다음 경기에서 김동현과 하세가와는 타이틀을 놓고 리턴 매치를 벌였다. 경기 내용은 사실 김동현이 우세했는데, 적지다 보니 판정은 하세가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렀다. 아이없는 판정으로 김동현의 생애 첫 타이틀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운동하면서 챔피언 벨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하세가와 히데히코전이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경기가 끝나고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다.” 그 눈물은 이후 제대로 보상받게 된다.

■■■■■■■■■■ 최초의 코리안 UFC 맨 ■■■■■■■■■■

한국에 돌아온 그는 함께 운동하던 선배인 양성훈 관장과 함께 팀매드를 결성해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 스피릿 MC와 계약을 앞둔 어느 날 천창욱은 WEC의 계약서를 가지고 김동현을 찾았다. 당시 WEC는 UFC로 가는 동용문으로 사실상 DEEP과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DEEP 시절을 반복해 UFC를 노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피릿 MC를 통해 국내 일선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김동현은 이 대목에서 강수를 둔다. 천창욱에게 “UFC가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WEC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이다. 천창욱도 대단한 사람이다. 대답을 듣고 그는 기어이 UFC와 계약을 따내 김동현에게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믿을 수 없었다. UFC 계약서를 보고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더라. 계약 조건도 너무 좋았다. 첫 경기 파이트 머니가 2만 달러였는데, 이게 공이 하나 더 붙은 건가 싶기도 했다. 알고 보니 UFC 국내 중계권을 갖고 있던 슈퍼액션 측에서 UFC 쪽에 한국인으로서의 최초 진출이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힘을 실어준 거였다.”

■■■■■■■■■■ 옥타곤 무대를 밟다 ■■■■■■■■■■

라스베이거스. 천문학적인 판돈이 오가는 도박과 거대한 수익 기관을 출렁이며 눈을 현혹하는 미녀들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남자들이 겨루는 프로 격투 스포츠의 메카다. 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일급 파이팅임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라스베이거스의 3대 실내 경기장 중 하나인 MGM 그랜드가든 아레나에서 김동현은 세인 카운이 출전한 UFC 84로 데뷔했다. 당시 관중수는 무려 14,773명. 그가 옥타곤에서 처음 마주한 선수는 당시까지 5승 2패의 전적을 기록하던 제이슨 탄이라는 영국산 파이터였다. 김동현은 이 데뷔전에서 적극적인 기세로 3라운드 TKO 승을 거두며 UFC에 안착했다. 대전료 2만 달러와 승리수당 2만 달러가 김동현에게 돌아갔다.

그의 UFC 2차전은 2008년 9월 6일 UFC 88에서 벌어졌다. 상대 맷 브라운은 2007년 8월까지 7승 6패를 기록하고 있던 복싱 베이스 타격 전문가이자 그라운드 실력도 좋은 유망주였다. 그때까지 김동현이 상대했던 선수들에 비해 확실히 수준 높은 상대였다. 힘이나 체격 면에서는 김동현과 대등했고 체력은 한 수 위였다. 스탠딩에서는 브라운이 점수를 따고,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에서는 김동현이 앞섰다. 박빙의 접전이었지만 승리의 여신은 김동현을 선택했다. 김동현의 승리였다.

■■■■■■■■■■ 김동현 vs. 카로 파리시안 ■■■■■■■■■■

2009년 1월 9일, 11승 무패 1무(6KO 1SUB)의 김동현은 UFC 94에서 카로 파리시안과 대전했다. 전 WEC 웰터급 챔피언 파리시안은 닉 디아즈와 맷 세라를 판정으로 꺾었고, 생피에르와 맞붙었던 체급대 상위랭커였다. 많은 팬과 전문가들이 이 경기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필자 역시 차마 “김동현이 질 것이다”라고 말만 못했을 뿐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다. 경기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김동현은 파리시안과 대등하게 싸웠다. 냉정하게 보자면 승자를 꼽을 수 없는 경기였다. 경기 후 데이나 화이트조차 “김동현이 이긴 경기”라는 찬평을 남겼다. 세계 10위 이내의 랭커와 김동현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는 스피릿 디시전의 판정패였다.

경기 다음 날 파리시안의 약물 복용이 발각되었다. 프로 데뷔 이후 첫 패전 기록이 될 뻔했던 파리시안은 전은 무효가 선언되면서 김동현의 전적은 11승 무패 1무 1노컨테스트가 됐다. 김동현이 약물의 힘을 빌린 난적을 상대로 호각을 이루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발견이었다. “일단 패가 없어진 건 좋았지만 그가 약물을 안 했더라면 더 갈끔하게 이길 수도 있었을 거다. 예전에는 UFC가 어느 정도 약물을 신경 쓰는 것 같더니 요즘은 거의 풀어주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정직하면 손해 보는 세상이 된 것 같다. 공정하게 싸우고 싶지만, 약물 때문에 공정한 실력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스트레스.” UFC의 약물 문제에 대한 김동현의 솔직한 생각이다.

||||| 펀치 or 그레플링 |||||

2009년 7월, UFC 100에서 김동현은 14승 2패의 전적을 가진 TJ 그랜트를 상대했다. 14전 중 12경기를 서브미션으로 끝낸 그랜트의 유술은 김동현에게 통하지 않았다. 2라운드 끝난 후 자신의 코너에서 그랜트는 고개를 내저으며 “그는 레슬러였어”라고 읊조린다. 김동현의 완벽한 승리였다.

UFC 114에서 만난 아미르 사둘라 역시 김동현의 컨트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김동현은 “사둘라는 카로와의 시합을 준비할 때 몇 번 붙어봤다. 그가 타격을 좋아하고 레슬링이나 그라운드 능력은 별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었다”고 말했다.

팬들 사이에선 김동현의 파이트 스타일에 대해 일본에서와 UFC에서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에서의 그는 레슬링과 그라운드 능력도 출중했지만, 타격이 매우 두드러졌다. 김동현은 파워풀한 레프트, 깔끔한 라이트, 위력적인 올러치기와 살인적인 니킥, 로직 하이킥도 자주 구사했고 뭐든지 걸리면 상대가 맥을 못추었으니 ‘스텐 건’이라는 별명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없었다. 하지만 UFC에서의 그는 별명과는 다른, 레슬링과 그라운드 위주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였다. 이에 대한 김동현의 설명은 일반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펀치력은 좋지만 타격 시합을 나간 적도 없고 그렇게 자신있지는 않았다. 원래 그레플링을 더 좋아했다. 일본에서는 CMA 사장님이 KO가 나는 시합이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고 워낙 강하게 말씀했다. UFC에서는 그렇게 채찍질하는 사람도 없고 이기는 게 최고니까 원래 내 스타일대로 하게 됐다.”

즉 UFC에서의 레슬링과 그라운드 위주의 그레플링 파이트가 본래 성향이며 일본에서는 분위기를 맞추느라 그런 스타일을 취했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는 김동현 선수가 본인의 타격 재능에 대해 너무 겸손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펀치력을 가지지 못한 선수들의 입장에서 김동현이 얼마만큼 보일 수도 있을 테니.

2011년 1월 김동현은 턱이 강한 왼손잡이 파이터 닉 디아즈의 동생 네이트 디아즈와 붙었다. 디아즈 형제는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강한 체력과 턱, 정신력에 유술도 수준급인 데다 상대의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불량한 태도와 강한 도발이 특징인, 한마디로 파곤한 스타일이다. 그런 네이트 디아즈를 김동현은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꺾었다.

||||| vs. 콘딧: 첫 번째 패배 |||||

2011년 7월 김동현은 카를로스 콘딧과 대전했다. 콘딧은 당시 26승 5패 12KO 13SUB를 기록하고 있었다. 콘딧은 스탠딩에서 상대의 테이크다운 기술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과감한 타격가다. 테이크다운 허용률이 높지만 상위에 있는 상대를 털어내고 일어나는 기교가 일품이라 스탠딩에서의 타격기가 빛을 보는 스타일이다. 멧집이 워낙 세고 체력도 체급대

최고 수준인, 한마디로 엄청나게 강한 상대였다. 김동현은 콘딧을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얻어냈지만 순식간에 탈출을 허용했다. 그리고 콘딧의 압력에 밀려 뒷걸음질치던 김동현의 턱에 통탄의 플라잉 니킥이 적중되면서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프로 데뷔 후 첫 패배였다.

콘딧은 그 니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김동현이 상대에게 공격 타이밍을 넘겨주고 발을 움직여 피할 상황이 오면 거의 직후방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내 코치 그레그 잭슨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동현을 몰려서게 만들고 그 기술을 구사했을 때 (플라잉 니킥이)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다.” 콘딧은 김동현을 이긴 후 닉 디아즈와의 웰터급 잠정 타이틀 매치에서도 승기를 거두면서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았다.

“콘딧과의 2차전 오퍼가 들어오면 OK할 거냐”는 질문에 김동현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1차전 때의 약점을 좌우 움직임으로 보완하고 콘딧의 타격을 역이용해 테이크다운시키고 그가 빠져나가면 다시 잡아 넘어뜨리는 레슬링 지옥을 구사한다면 재전에서 결과는 사뭇 다르지 않을까? 콘딧의 약점은 레슬링이고 김동현의 특기는 레슬링이니 말이다.

||||| 멋진 복귀전 승리 |||||

2011년 12월 30일, 김동현은 상당한 레슬링과 묵직한 파워 펀치를 구사하는 왼손잡이 선 피어슨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다. 김동현은 레프트 로직, 앞손 라이트 그리고 기습적인 프런트킥을 활용해 완승했다. 특히 2라운드 말경 정확하게 들어간 그의 이단 앞차기에 피어슨은 빈사 상태에 몰리기도 했다. 1, 2라운드에서는 타격을 위주로 풀어가던 김동현이 3라운드에서는 기습적인 테이크다운을 선보였다.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영리한 경기 운영이었다. 피어슨이 경기 초반에 조심하던 것은 테이크다운이었을 텐데 이때는 다이내믹한 타격전을 걸었고, 3라운드에 상대가 타격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역으로 타이밍 태클을 앞세운 그라운드 게임을 걸어서 상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린 것이다.

“경기 전 양성훈 관장님과 타격 훈련을 많이 해서 자신감이 있던 상태였다. 변화가 없으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어떻게든 타격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똑같은 작전을 계속 쓰면 상대가 준비하게 되고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타격 위주로 나갔다. 3라운드에는 상대가 테이크다운에 대한 생각을 못할 거고, 자기가 지고 있으니까 더 격렬하게 치고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다.”

||||| 김동현 vs. 마이아, 예측은? |||||

오는 7월 8일 김동현은 데미언 마이아와 대전한다. 마이아는 유도, 쿡푸, 가라테를 거쳐 19세 때 주짓수

를 시작해, 보통은 따는 데 약 10년이 걸리는 블랙 벨트를 불과 4년 7개월 만에 취득했고, 각종 세계 대회에서 다섯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MMA 데뷔 11연승을 달리던 마이아는 네이트 마퀴트와의 경기에서 정통 강타를 맞고 초살패를 당했으나 복귀전에서 맨 밀러를 판정승으로 꺾은 다음 UFC 미들급 챔피언 앤더슨 실바를 만났다. 이 경기는 실바의 ‘태업’ 해프닝으로 유명하다. 마이아가 그라운드 게임을 걸려고 했으나 실바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그 행동이 대단히 과장했다. 실바의 3패는 모두 그라운드에서의 주짓수에 당한 것이니 실바에게 주짓수 고수 마이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즉 마이아는 실바가 평정심을 잃을 정도로 주짓수 초고수인 것이다. 실바전 이후의 5경기에서 마이아는 타격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변신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 크리스 워터만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판정패한 그는 체급을 옮겨 웰터급으로 내려왔고 김동현이 그의 웰터급 첫 상대로 낙점됐다.

둘의 경기에 대해 이승재 MARC 아카데미 원장(주짓수 블랙 벨트)은 이렇게 말했다.

“김동현은 그라운드 능력이 진품이고 상위 포지션에서 깊이 들어가 서브미션을 노리기보다는 파운딩 위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상대는 매우 위험한 ‘주짓떼로’다. 싱글 랙을 잡은 상태나 그라운드 하프가드에서 백 포지션을 잡는 게 마이아 특유의 루틴이다. 특히 그라운드에서는 백을 잡혀 실점하거나 초크 위기에 몰리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타격 부분에서는 김동현이 조금 앞설 것으로 본다. 둘 다 왼손잡이라서 앞손 라이트의 활용이 중요한데 앞손의 수준이나 왼손잡이와의 대전 경험 모두 김동현이 앞선다. 스텝 속도와 핸드 스피드도 김동현이 우위에 있으며 리치도 김동현이 약 10cm 더 길다. 그리고 마이아는 펀치 연타를 구사할 때 고개를 앞으로 크게 숙이는 버릇이 있는데, 펀치 사이의 딜레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김동현이 그 틈에 어퍼컷을 선물할 기회도 찾아볼 것이다. 물론 마이아의 왼손은 꽤 정확하고 파워도 상당하니 조심해야 한다. 트랜지션 면에서 마이아는 원래와 보디록에서의 덧걸이, 그리고 왼쪽 오버훅, 오른쪽 언더훅을 잡고 상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 다리로 상대의 왼쪽 발목을 걸어 넘기는 레터럴 드롭(발목 받치기)이 특기이나 유도가 베이스인 김동현은 이를 잘 막아낼 것이다. 알다시피 김동현은 상단을 잡고 던지는 유도식 매치기와 하단 태클에 능숙하니 테이크다운 싸움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다만 마이아는 주짓수 고수 밑에 걸려 있다가도 포지션을 역전시키거나 서브미션기의 구사에 능숙하기 때문에 김동현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UFC 파이터 김동현 선수의 짜릿한 승리 행진을 기대해본다. 



김동현 7문 7답

유부녀를 납치한 동명의 축구 선수
김동현에게 한마디?

김동현 선수, 걸리면 호남니다.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다네!

옥타곤걸 중 좋아하는 사람?

외국 여자는 관심 없다. 한국인이니까.

외모에 신경 쓰는 편?

쇼핑은 너무 피곤하다. 원관이 워낙 좋아서
안 꾸며도 상관없다.

외모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엄마한테 물려받은 어깨. 남자는 어깨지.

강경호 선수와 당신 중 누가 더 잘 생겼나?

당연히 경호 근데 키는 내가 훨씬 크다.
남자는 일단 키가 커야지.

정찬성 선수와 당신 중 누가 더 잘 생겼나?

잘생긴 건 모르겠고 하이튼 남자는 어깨대
그러므로 같은 나.

그렇다면 양봉이 선수와 비교한다면?

잘 이겨내 대답이다. 그냥 잘.

못다한
이야기



맞아도 좀 덜 아프게 맞는 자기 방어 기술

더 이상 X방법으로 살 수 없게 사는 데 진짜로 도움이 되는 자기 방어 기술을 익히자!

HELP 이홍수 MODEL 김동현, 이영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똑바로 가르쳐달라고!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고 싶나?

Q. 나의 가녀린 상체 쪽으로 놈의 킥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다. 어떻게 맞아야 데미지가 적을까?

A.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면 충격이 그대로 목표 지점에 전해진다. 방어 시에는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러운 상태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타격의 운동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것은 부드러움이다. 쉽게 말하면 주먹으로 벽돌은 박살낼 수 있어도 돼지고기를 부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즉 몸이 경직된 벽돌이기보다는 돼지고기여야 피해를 덜 받게 된다.

그리고 보통 상대의 주먹은 나의 급소를 노리고 오는데, 양 팔의 가드를 활용해 막으면 효과적일 거다. 마지막 팁. 가만히 서 있지 마라. 공격이 들어오는 사이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다. 보통 뒤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몸을 트는 것, 그리고 무릎을 굽히며 상체를 숙이는 것 등이 일반적이다. 상대의 조준점에서 나의 급소를 조금이라도 이동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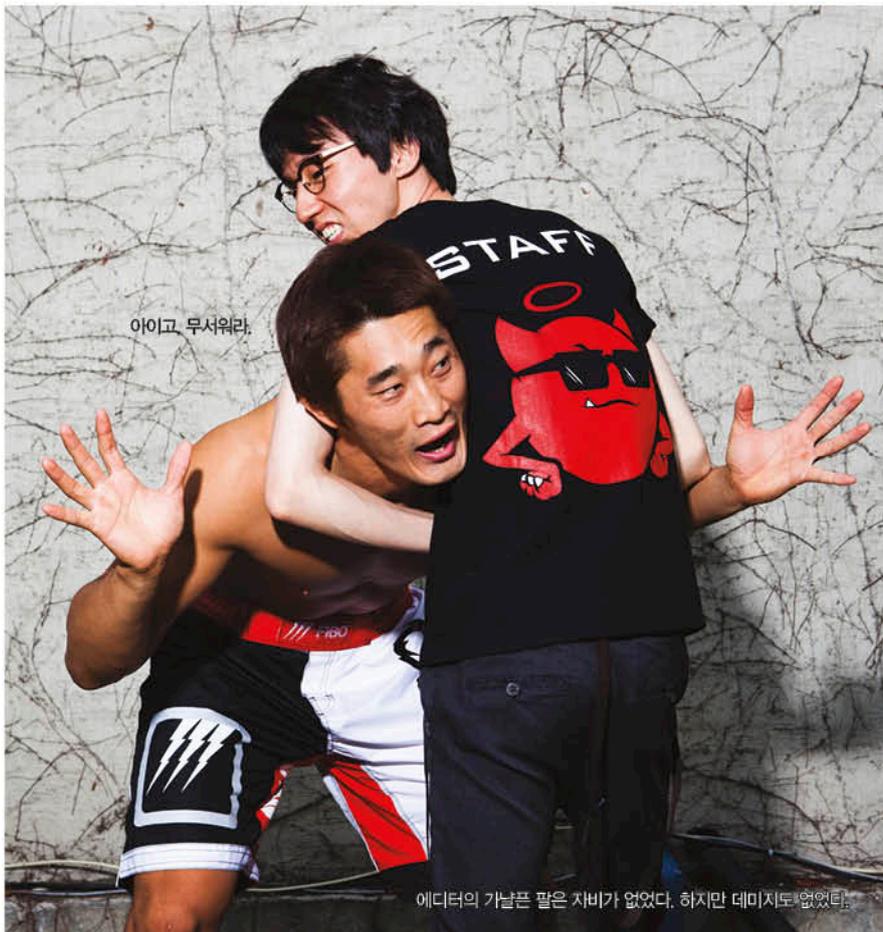
Q.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는 좋은 비법이 있을까?
기를 죽여놓고 시작하고 싶은데.



겁도 없이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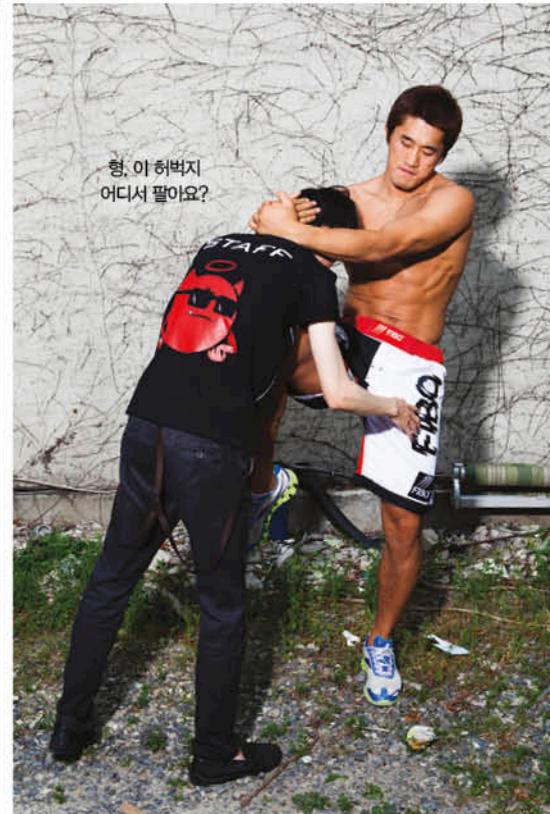


A. 사진 속 겁 없는 에디터처럼 김동현 선수 같은 사람을 열받게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떤 연출을 해봐야 크게 소용은 없다. 개인적으로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즉 분노도, 공포도 아닌 그냥 평소의 눈빛과 목소리 톤을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 격투 직전의 상황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람은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겁이 정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막 이상한 연출하고 건들거리고, 분노의 외침 시전하고 이러면 더 때려주고 싶어진다. 아무 일도 아닌 듯 무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먹고 들어간 것.



아이고, 무서워라.

에디터의 가냘픈 팔은 자비가 없었다. 하지만 데미지도 없었다.



형, 이 허벅지 어디서 팔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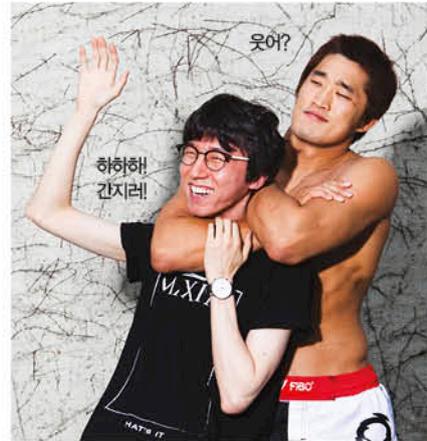
Q. 가슴에 니킥을 맞았다! 제길, 상대가 내 뒤통수를 잡고 있어서 빠져 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갈비뼈가 뺏사지고 내장이 터지는 걸 막을 수 있을까?

A. 타이 클린치(뺨 클린치)에 걸린 거다. 두 손을 상대의 팔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허리를 세우며 내 몸과 상대의 몸을 밀착시키고 좌우로 흔들어서 팔부터 풀어라. 상대의 팔을 그냥 둔 채로 팔로 상대의 무릎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는 잠시 후 죽는다.

Q. 상대의 목을 잡았다. 유후! 이제 어디에 힘을 줘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까?

A. 길로틴 초크네. 이걸 유술가들에게 답변을 구해야 하지만 형이 오지랴를 떨어보자면, 그림상 오른손으로 왼쪽 팔뚝을 당겨주면서 왼팔로 상대의 기도를 압박해야 하는데, 팔 힘만으로는 피니시(결장)가 안 날 거다. 팔은 일종의 고리일뿐이라고 생각해라. 실제로 조르는 힘은 허리의 움직임에서 나온다. 즉 허리를 뒤로 한껏 젖혀서 팔이 상대의 목을 조르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공격자의 신장이 수비자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에디터가 김동현을 피니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보통 선수들은 가드, 즉 양 다리로 상대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다리를 지지대로 삼고 허리를 있는 힘을 다해 뒤로 젖혀서 게임을 끝낸다.

Q. 뒤에서 무서운 형이 팔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의식이 희미해진다. 이때 어떻게 해야 요단강 트레블을 피할 수 있을까?



A. 그림대로라면 당신은 리어네이크드 초크에 걸린 거다. 앞으로 대략 6~10초 사이에 당신은 잠들게 된다. 상대가 그 상태를 2분 정도 유지한다면 대뇌 피질 세포들이 붕괴하기 시작한다. 약 5분이 지나면 당신의 뇌는 산소 부족에 의한 영구적 손상이 시작되겠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 정도가 커질 거고, 아마 잠시 후 사망에 이를 것이다. 당신이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 정도다. 상대가 고수라면 더 짧을 것이고 하수라면 시간이 좀 더 남았다. 양손을 이용해 상대의 완팔부터 푸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사진처럼 팔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다. 남은 힘을 다해 손으로 상대의 고환을 쥐어 터뜨리는 수를 생각해볼 때다. 그것이 실패하면 손가락으로 상대의 눈썹을 찌르는 시도 정도가 가능할 것 같다... 만 슬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은 이미 끝났다. 위에서 말한 방법으로 당신이 살아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상대에게 리어 네이크드 초크를 내줬다면 당신의 목숨은 상대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도 좋은 것이다. 미안한데... 여기서의 인정에 호소해 일단 목숨부터 건지고 후일을 도모하자.



못다한
쌘구경



에디터의 얼굴이 오히려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MAXIM STORE

고교부에서 부탁만 하면
고교서도 MAXIM식으로
만들어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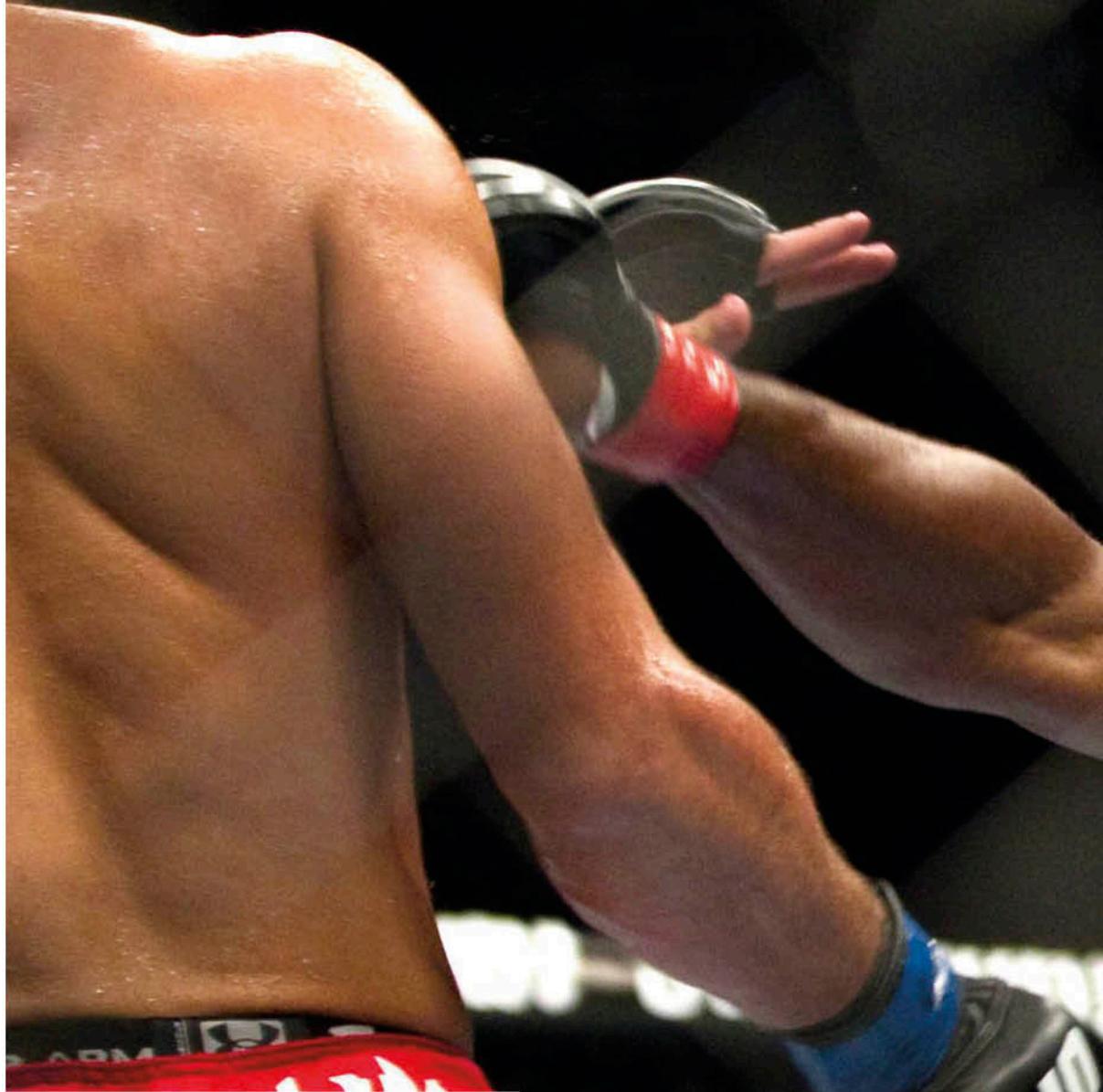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십시오!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그대 진정한 MAXIM의 매니아인가? www.maximkorea.net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1 미공개 고화질 화보, 동영상 화보와 월페이퍼 다운로드
- 2 잡지보다 저렴하고 볼거리는 뽕뽕한 E-매거진 보기
- 3 다음달 MISS MAXIM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기회
- 4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폭격



BAD BO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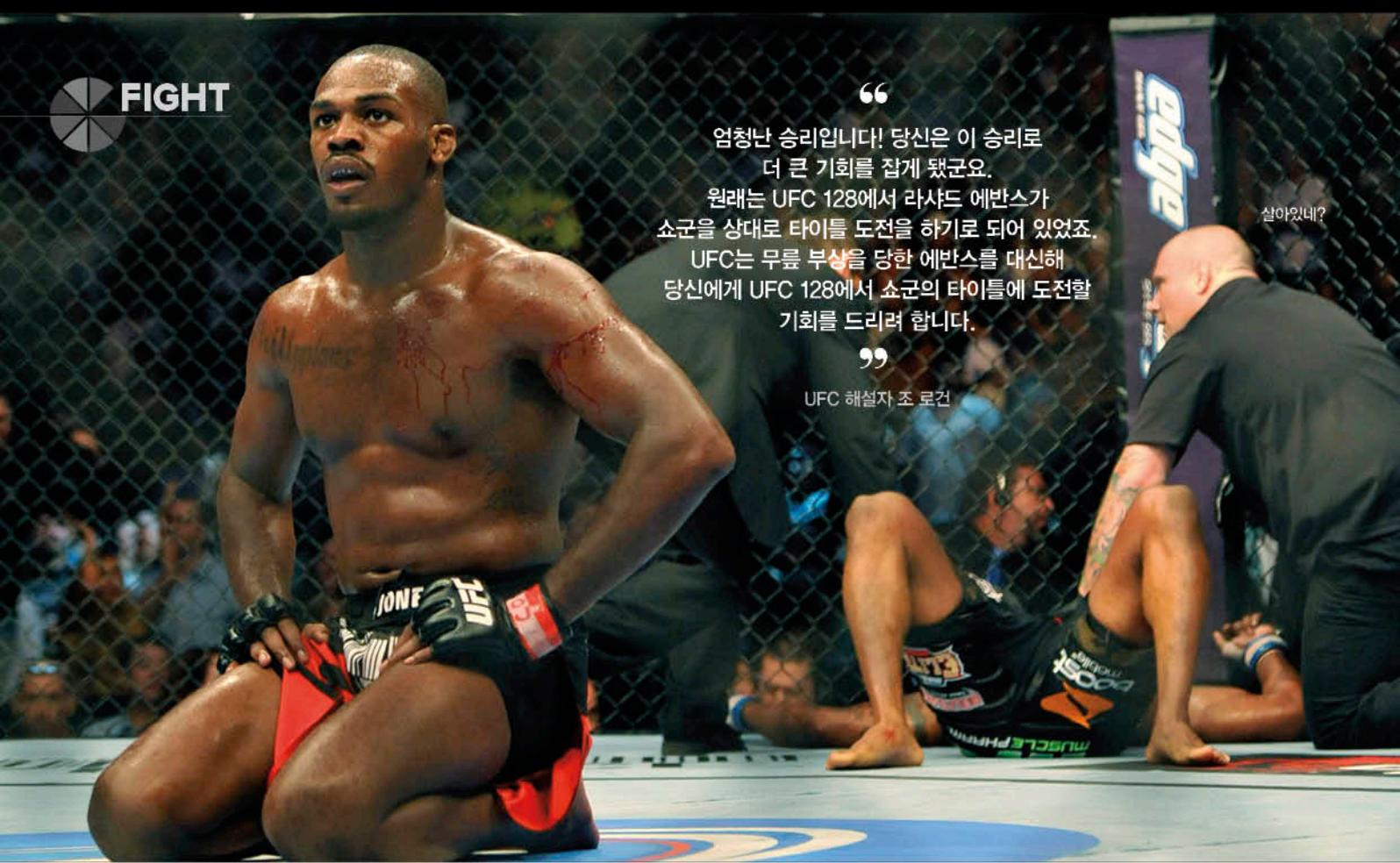
답 없는 흑형들 # 2

존 존스

입식의 조르지오 페트로시안, 복싱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종합격투기의 존 존스.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흔히 격투계의 3대 문제아라고 부른다. 지난달 소개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에 이은 또 한 명의 답 없는 흑형 존 존스를 탈탈 털어보자.

BY 격투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신속희 IMAGE 연합뉴스





“

엄청난 승리입니다! 당신은 이 승리로 더 큰 기회를 잡게 됐군요. 원래는 UFC 128에서 라샤드 에반스가 쇼군을 상대로 타이틀 도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UFC는 무릎 부상을 당한 에반스를 대신해 당신에게 UFC 128에서 쇼군의 타이틀에 도전할 기회를 드리려 합니다.

”

UFC 해설자 조 로건

살아있네?

신인 같지 않은 신인



존스는 첫 12전 동안 보통 신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키 193cm, 리치 215cm의 우수한 체격 조건에,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고 레슬링 실력도 출중했다. 그는 오버헤드 수플렉스나 저먼 수플렉스 등 UFC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큰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했다. 이 기술들은 본인 힘만으로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가능한데, 존스는 맞잡은 상태에서 상대의 힘이 흐르는 방향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그것을 유리한 방향으로 역이용하는 선수인 것이다. 상위포지션에서 구사하는 팔꿈치 파운딩 등의 테크닉도 매우 특수하고 효과적이었다. 스탠드업 상태의 타격 능력은 데뷔 초반 해도 빈틈이 많았지만, 경기를 거듭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크게 스파링하면서 돌리는 팔꿈치 공격이나 점프킥 또한 팬들의 주목을 끌기 충분했다.

ROUND 1 경찰이 되고 싶었던 소년

존 존스는 1987년 미국 뉴욕 주 로체스터에서 태어나고 고교 때부터 레슬링 선수로 활동했다. 주니어 칼리지 재학 시절 출전한 뉴욕 주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NJCAA 올 아메리칸으로도 선발됐다. 그의 형인 아서 존스는 미식축구에서 재능을 보이며 NFL로 진출했고, 동생인 캔들러 존스도 미식축구에 매진하고 있었다. 존 존스 역시 NFL의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큰 키에 날씬한 체형인 존스에게 미식축구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대학에서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았다.

2007년 아이오와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 시절 교제하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뜻하지 않던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양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존스는 프로 격투기 무대로 진출했다. 2008년 그는 FFP라는 마이너 단체를 통해 MMA계에 등장했다.

ROUND 2 UFC에 서다

첫 6경기를 전승(5KO 1SU)으로 돌파한 존스는 2008년 8월 UFC의 지명을 받았다. 안드레 구스마오라는 선수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른 존스는 라이트 헤비급의 베테랑 스테판 보너와 헤비급에서 내려온 제이크 오브라이언을 손쉽게 처리했다. 2009년 12월 존스는 청각 장애인 파이터 맷 해밀과 대전했다. 존스는 첫 라운드부터 해밀을 넘어뜨리고 상위

포지션을 잡은 후 파운딩을 퍼붓던 도중 팔꿈치를 수직으로 내려치는 반칙을 범했다. 해밀은 이미 빈사 상태였고 경기는 속행불가했기 때문에 존스는 반칙패라고 말했다. 이것이 존 존스의 유일한 패배다. 고의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반칙이 아니었다면 존스의 압도적 승리가 되었을 내용의 경기였다.

이듬해 존스는 베테랑 브랜든 베라와 싸웠다. 1라운드 3분 19초쯤에 바닥에 깔린 베라의 안면에 존스의 팔꿈치 파운딩이 정확히 적중해 베라의 얼굴뼈에 골절이 발생했다. 베라는 즉각 기권 의사를 보였고 경기는 거기까지였다. 존스가 12번째 경기에서 마주한 선수는 블라디미르 마추센코였다. 그는 노장이었지만 상위 랭커로 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유망주를 울린 수문장 같은 파이터였다. 하지만 존스가 마추센코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ROUND 3 라이언 베이더

2011년 2월, UFC 126에서 존 존스와 라이언 베이더가 대전했다. 두 선수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차기 대권 구도를 향하기는 젊은 실세였다. 당시 라이트 헤비급에서는 도전권을 기다리는 중견 및 노장 선수들과 아직 쟁쟁한 전 챔피언들이 피투성이의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연령대나 경력 면에서도 자주 비교되는 등 베이더로서는 UFC 126에서 만난 존 존스야말로 상위 랭킹에 진입하기 위해 꼭 넘어야 할 주 경쟁자였다. 하지만 막상 경기를 해보니 베이더는 존 존스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타격 면에서 베이더는 존스의 레인지를 전혀 돌파하지 못하고 헛손질 몇 번 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로키를 무수히 얻어맞았다. 레슬링 면에서도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다. 존스는 베이더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문제 없이 막아냈고 심지어 베이더를 마음먹은 대로 굴렸다. 결국, 2라운드 4분 2초만에 베이더는 존스의 길로틴 초크 공격에 턱을 치고 만다.

ROUND 4 쇼군, 잭슨, 마치다, 에반스

존스의 타이틀 도전은 베이더전의 다음 달이었던 2011년 3월에 벌어졌다. 상대는 챔피언 마우리시우 쇼군 후야. 그는 극도로 위험한 파이터였다. 스탠딩에서의 막강한 화력과 그라운드에서의 수준급 실력으로 2005년쯤부터 체급을 대표해온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경기는 존스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초반부터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면서 챔피언 쇼군을 마구 두들긴 존스는 3라운드에 쇼군을 침몰시켰고 UFC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했다.

존스의 1차 방어전 상대는 전 챔피언이던 쿼튼 잭슨이었다. 잭슨은 4라운드까지 겨우 버티고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 당했다. 2차 방어전도 전 챔피언인 료토 마치다의 도전이었다. 마치다는 1라운드에 특유의 움직임과 카운터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라운드에 스탠딩 길로틴 초크에 걸려 실신했다. 3차 방어전은 지난 4월에 벌어진 또 한 명의 전 챔피언 라샤드 에반스가 상대였다. 에반스는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판정까지 버텼다. 피니시 당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외하면 이전 세 선수와 다를 바 없는 참패였다.

ROUND 5 타고난 능력치

쇼군, 잭슨, 마치다, 에반스 이들 전 챔피언 4인은 프라이드와 UFC가 통합된 이후 라이트 헤비급을 피바다로 만든 주인공들이다. 4명 모두 매우 뛰어나고 개성 있으며 매력적인 파이터였고 이들의 경쟁 구도는 극도로 치열했다. 자고 일어나면 챔피언이 바뀌는 처참한 역사를 자랑하며 팬들의 시선을 끌던 이 체급을 불과 24세의 신인이 정복했다는 것은 사실 기절초풍할 일이다. 한 3년 전쯤에 누군가가, 앞으로 한 선수가 일어나 이 4명을 모두 압도하며 라이트 헤비급에 1인 천하를 이룩할 것이라 예견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 존 존스가 전 챔피언 4인을 차례로 해치운 일은 어마어마한 업적이다.

존스의 특징은 타격, 트랜지션, 그라운드 전반에 걸쳐 매우 우수한 능력치를 보유했다는 점이다. 장신에 긴 팔다리를 이용해 존스 본인은 상대를 공격하되 상대의 공격은 자신에게 닿지 않는 거리에서 타격전을 안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 테이크다운 능력도 극도로 뛰어나지만, 상대의 테이크다운은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데뷔 후 17전을 싸우는 동안 존스는 단 한 번의 테이크다운도 허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라운드에서 구사하는 팔꿈치 파운딩은 존스의 최종 병기 중 하나다. 어깨부터 팔꿈치까지가 워낙 길어서 하위 상대가 방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또 변칙적인 조르기 기술도 아차하는 순간에 들어가 상대의 숨통을 막아버린다.

ROUND 6 존스를 누가 알려?

존스는 가장 많은 정타를 터뜨리면서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는 비율은 가장 낮다. 테이크다운 부분에서는 에반스에 비해 다소 밀리지만 다른 선수들보다는 한 수 위의 수치를 보인다. 에반스가 통계 수치상으로는 좀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에반스와의 경기에서 존스는 에반스의 테이크다운 시도 4번을 모조리 막아냈고 자신이 시도한 2회 중 한 번을 성공시켰다. 서브미션 시도 횟수는 쇼군이 존스보다 좀 더 높지만 서브미션 승리는 존스가 (17경기에서) 5회, 쇼군은 (27전 중) 단 1회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 즉 시도를 기준으로는 쇼군의 수치가 우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기준으로는 존스가 서브미션면에서도 나머지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다.

스탠딩에서 까다롭기에는 미들급의 앤더슨 실바가 최고다. 하지만 앤더슨 실바는 트랜지션에 약하다. 상대의 테이크다운을 가끔 허용하며, 그라운드에서 서브미션에 의한 피니시를 당한 적도 수차례에 이른다. 차일 소년전에서도 (비록 막판에 대역전 승을 거두었지만) 그는 테이크다운을 계속 허용하면서 심하게 당한 적이 있다. 그라운드에서 강한 선수도 많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스탠딩에서 약점을 보인다. 존스는 스탠딩에서 적중 횟수, 적중률, 정타 방어율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단 한 번도 테이크다운당한 적이 없으며 존스에게 테이크다운당한 선수 대부분은 큰 손해를 보거나 그 자리에서 피니시 당했다.

존스는 서서 상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확고한 타격 능력을 확립했고, 넘길 수도 없다. 그리고 존스가 상대를 넘기면 그 상대는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이 선수를 상대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존스는 쇼군처럼 많이 때리면서 마치다만큼 방어력이 뛰어나고 에반스 이상의 트랜지션(레슬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브미션 능력도 출중한 완성형 파이터인 것이다. 이런 선수는 MMA 역사상 존스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존 존스의 진정한 위기는 헤비급으로 올라가야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 라이트 헤비급에서 존스의 독주를 저지할 선수나 타낼 것인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우리 입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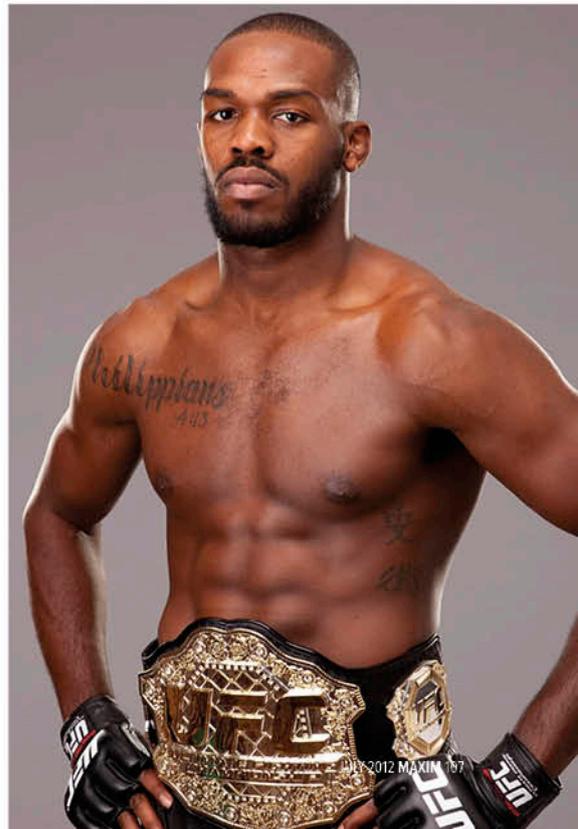


답 없는 흑형들의 공통점

메이웨더와 존스는 복싱과 MMA를 대표하는 절정 고수이나 안티팬도 상당히 많다. 메이웨더는 오만방자함과 아버지와 의 불화로 유명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존스는 왜 미운털이 박혔을까? 쿼튼 잭슨, 에반스와의 경기 전 설전에서 존스가 건방진 태도를 보여서? 사실 상대도 매너가 없진 마찬가지였다. 반면 존스는 상대의 거친 발언에도 상당히 절제된 언행으로 대응했다.

존스의 안티는 태도, 성격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빈틈없이 철저하게 이기는 경기를 하는 스타일이 대중에게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오직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을 약간 차사하게 여기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존스나 메이웨더 같은 선수는 잠재의식 속 열등감을 자극하고 반감을 부른다. 그들의 타고난 재능과 유전적, 가족사적 행은 역시 보통 사람의 형평성에 대한 의심 혹은 감수성을 건드린다.

대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선수들은 눈에 띄는 약점을 실력으로 극복하는 타입이다. 그리고 이기는 경기를 하는 냉정한 선수에 비해서 끝장을 보려고 달려드는 열정적인 파이터가 인기가 높다. 작은 체격이라는 불리함을 딛고 일인자가 된 타이슨이나 호도르가 좋은 예다.



2012 16th JUNE MAXIM PARTY

IN BANYANTREE THE OASIS

반얀트리 서울의 야외풀을 한여름보다 더 뜨겁게 달군 MAXIM PARTY. 비키니 차림의 미녀들과 강렬한 비트, 술과 담배와 댄스가 뒤섞인 주저웁림의 현장 속으로!

BY 유승민

PHOTOGRAPHS ARC STUDIO, 서현우 DESIGN 천은경

SPONSORED BY DIAMOND TEARS, DJAGEO KOREA, BMW KOREA, CASS LIGHT, JE NE SAIS QUOI, FX CHANNEL

COOPERATION BANYAN TREE SEOUL, RAON, JK Corporation, MOON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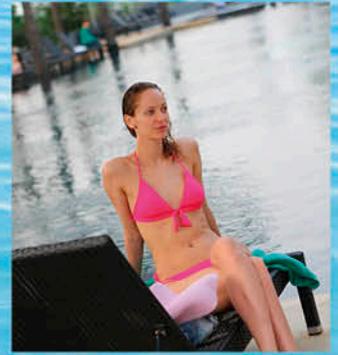
MAXIM PARTY
예고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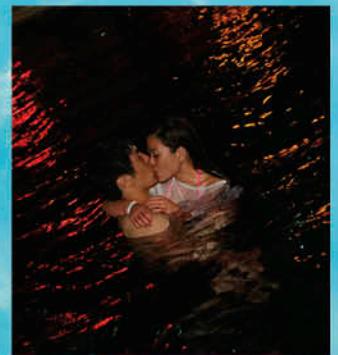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한 건 역시 MISS MAXIM들이었다. 이번 풀 파티를 시작으로 주욱 계속될 MAXIM 파티에서 이들은 MAXIM 전속 파티플레이어로 활동할 예정이다. 최고의 파티에 플레이어로 함께하고 싶은 여성들은? 빨리 빨리 MISS MAXIM에 지원하라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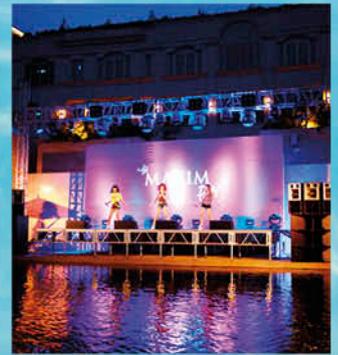
광란의 공연을 선사한 LM와 G.NA 외에도 수많은 연예계 슈퍼스타가 MAXIM PARTY를 찾았다. 물총을 쏘며 돌아다니던 파티폰서 JYP, 에디터들과 함께 도시락을 까먹은 장근석을 비롯해 SS501, 슈퍼주니어, FT아일랜드, 비스트, 차두리, 이정진, 남규리 등이 현장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사진이 작아서 아쉽지? MAXIM 웹사이트 및 MAXIM 아이패드 버전에서 더 많은 사진과 생생한 파티현장 영상 플버전을 훈훈하게 감상하기 바란다.

MAXIM PARTY의 뜨거운 함장 속으로





MAXIM PARTY에서 직원 면상 최초공개

에디터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파티에 온 고마운 독자들도 적지 않았다! 감사할 따름이다. 어차피 이날 파티에서 다 얼굴 팔린 거, 독자들에게 시원하게 공개한다. 실망해도 어쩔 수 없다. 지면이 부족해서 못 실은 동료님들께는 미안. 섭섭하면 이직해.



에디터 박한빛누리

"연락처 따고 싶으면 번호표 뽑아"



마케터 원정운

미스맥심 성추행 혐의 구속 수사중 ▼



경영지원팀장 최인영

웃어 이년들아



허는 안 나왔더구요



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

장님이 그림 그리는 거 구경하세요.



에디터 이진영

중년만 꼬이는 팜프파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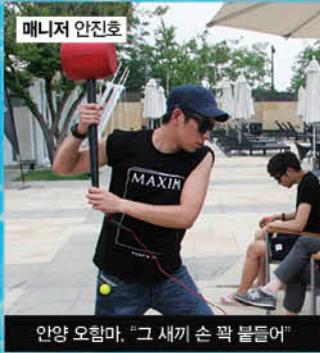
매니저 장선영

MAXIM 얼짱. 애가 우리 가게 예이스예요.



에디터 조종재

밴드 활동 배고파 MAXIM 입사. 밥 좀 주쇼.



매니저 안진호

안양 오함마. "그 새끼 손 꼭 붙들어"



에디터 손안나

술로 금매물. 분양문의 323-1182



디자이너 전은경

파티는 부킹이 없어요?



디자이너 서윤정

근데 아이패드 리젝됐는데요.



마케팅팀장 김진욱

중국 관광객 아님. 컷을 마시는 중.



에디터 송종민

넌네임: 독거노인. 잔여수명 체크 중



편집장 이영비

마감 기간 파티 무리수. 멸망 예정



에디터 유승민

걸렸어?

발기부전에 빠진 색정광 교미왕



에디터 김효성

한국클럽파티라진흥협회 위원장



디자이너 신숙희

눈썹 붙이다 실명 위기. "119 좀 불러주게"



마케터 정진선

오늘 몸 좋은 남자 저렇게 많은데 왜...



이년들이 허리는 안하고!

*The
MAXIM
Party*



걸그룹 비키니(Bikiny)가 진짜 비키니를 입고 MAXIM PARTY에 놀러왔다. 'DANCE PARTY'란 곡으로 데뷔를 앞둔 화끈한 걸그룹의 등장에 반안트리 홀장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다(아쉽게도 한 명은 미성년자라 못 왔다). 이렇게 핫한 걸그룹은 너희가 처음이야!

BY 유승민 PHOTOGRAPH ARC STUDIO
HAIR 아도우 MAKEUP 고영은 DESIGN 전은경 ASSISTANTS 이진영, 손인나, 조종재
COOPERATIONS 빈앤릿(02-540-8448), 룩지(02-546-7764), 슈즈원(02-3443-1703),
엘주(02-3446-3069), 톱스토리(02-2117-7000)



재인
티셔츠 핀업셋
마케니 북시

하이
비키니 북시
팔찌 엠쥬

미치
팔찌 엠쥬
구두 슈즈윈

JAEIN



MIZI

재인
비키니 룩시
미지
셔츠 몸스토리



해이

생년월일: 1989년 3월 2일

매력 포인트: 애교 넘치는 목소리

이상형: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남자

그룹 내 담당: 브레인과 귀여움. 느릿느릿한 말투가 귀엽다고들 하던데?

당신을 제외한 다른 멤버는 다 B형이다. 가끔씩 멤버들이 으스스한 데로 불러 내 집단 조인트라도 끼는 거 아닌가? 오히려 다른 멤버들이 나 때문에 시달리는 느낌이다.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우유부단해서 다른 멤버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언니들은 그런 내 모습을 귀엽게 봐주는 편이다.

데뷔 전에 좋아하던 아이들은?

비스트 선배들과는 인연이 특이했다. 오마리온의 내한 공연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무대로 올라가 춤을 추게 되었는데, 그때 멀찌감치서 보던 양요섭 선배님이 나를 향해 "너 잘 추더라"라고 말하는 입모양을 봤다(정말?).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HAEI

구두 모두 슈즈원



MAXIM POOL PARTY에 온 걸 환영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 사람들 앞에서 비키니를 입어보는 건 처음이다.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금세 주변 분위기에 익숙해졌다.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 신나게 놀다 갈 일만 남았네?

파티 물은 어떤가?

사실 처음엔 조금 퇴폐적이면 어쩌하나 걱정했는데 건강미 넘치는 훈남훈녀들이 자유분방하게 즐기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 완전 '급수대' 최고!

'비키니'라니, 걸그룹 작명치곤 파격적인데?

여름엔 '비키니'라는 단어만 한 게 또 있나?(웃음)

타이틀 곡 'DANCE PARTY'는 신나는 비트가 인상적이다.

문자 그대로 춤을 추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곡이다. 일렉트로닉풍 클럽 사운드가 들어간 신나는 곡이다. 몸이 절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걸?

다른 걸그룹과는 뭐가 다른가?

체계화되고 잘 만들어진 느낌보다는 자유분방하고 각자의 개성이 잘 살아 있다. MAXIM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원더걸스 컴백 시기가 데뷔가 겹친다. 소속사가 안티인가?

부담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저 영상이 파격적이다. 방송 불가 판정이 걱정되진 않나?

문제가 되든 섹시 아이콘이 되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름을 알리는 차원에서 보자면 충분히 강한 한 방을 날린 셈이니까. 우리의 쇼킹한 흥보를 좋게 봐주면 좋겠다.

당신들의 미모를 보니 조만간 CF도 들어올 기세다. 어떤 CF를 찍고 싶나?

해이: 아이스크림 CF를 찍고 싶다(특별히 모 편의점에서 파는 바나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미지: 가늘고 곧게 뻗은 팔과 다리가 돋보이는 걸로. 예쁜 팔, 다리의 아이콘이 되는 것이 목표거든.

재인: 화장품이나 냉장고 CF?(웃음) 그리고 당대 섹시 아이콘이 아니면 못 한다는 소주 광고를 찍고 싶다. 이효리 선배님을 따라잡기 위해 매일 열심히 흔들어대는 연습을 하고 있다!

비키니의 막내 요아는 마성년자라 MAXIM PARTY에 못 왔다. 요아가 성인이 되면 네 명에서 손잡고 놀러 올 거지?

당연하잖! 요아가 크면 되려 우리를 데리고 갈걸? (웃음) 오늘 요아가 엄청 오고 싶어 했던 말이다!

다들 말만 그렇게 하고 안 오던데...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맞지? 나중에 구두 계약 증거물로 제시해도 좋다.(웃음) 



미지

생년월일: 1988년 5월 17일

매력 포인트: 작고 아담한 얼굴

이상형: 말 많고 유머러스하고
적극적인 남자

그룹 내 담당: 제일 예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웃음)

당신의 이미지를 한 마디로?
애늬은이?(웃음) 늘 걱정이 많다.

**키가 멤버 중 가장 작다.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전혀 하지만 때때로 멤버들과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 불편한 느낌은
든다. 까치발을 들어서라도 커버할
자신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다.

미스코리아 대회에 참가했었네?
왕관이 욕심이 나서라기보다
최고로 예쁜 나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막상 가보니
후광이 비칠 정도로 예쁜 사람이
너무 많더라.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내려놓았지.



재인

생년월일: 1988년 12월 31일

매력 포인트: 미소가 예쁜 얼굴

이상형: 리액션 좋고 똑똑한 남자

그룹 내 담당: 리더, 분위기 메이커,
그 외에도 21세기가 원하는 다방면의
엔터테이너 역할!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8등신
한가인'으로 유명하다. 솔직한
한가인보다 당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점?

통통 튀는 매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더 어리다.(웃음)

특기가 연기라더니 촬영도 정말
능숙했다. 당신의 연기력에 몇 점을
줄 건가?

10점 만점에 8.5점. 지금도 실전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디서든
빨리 불러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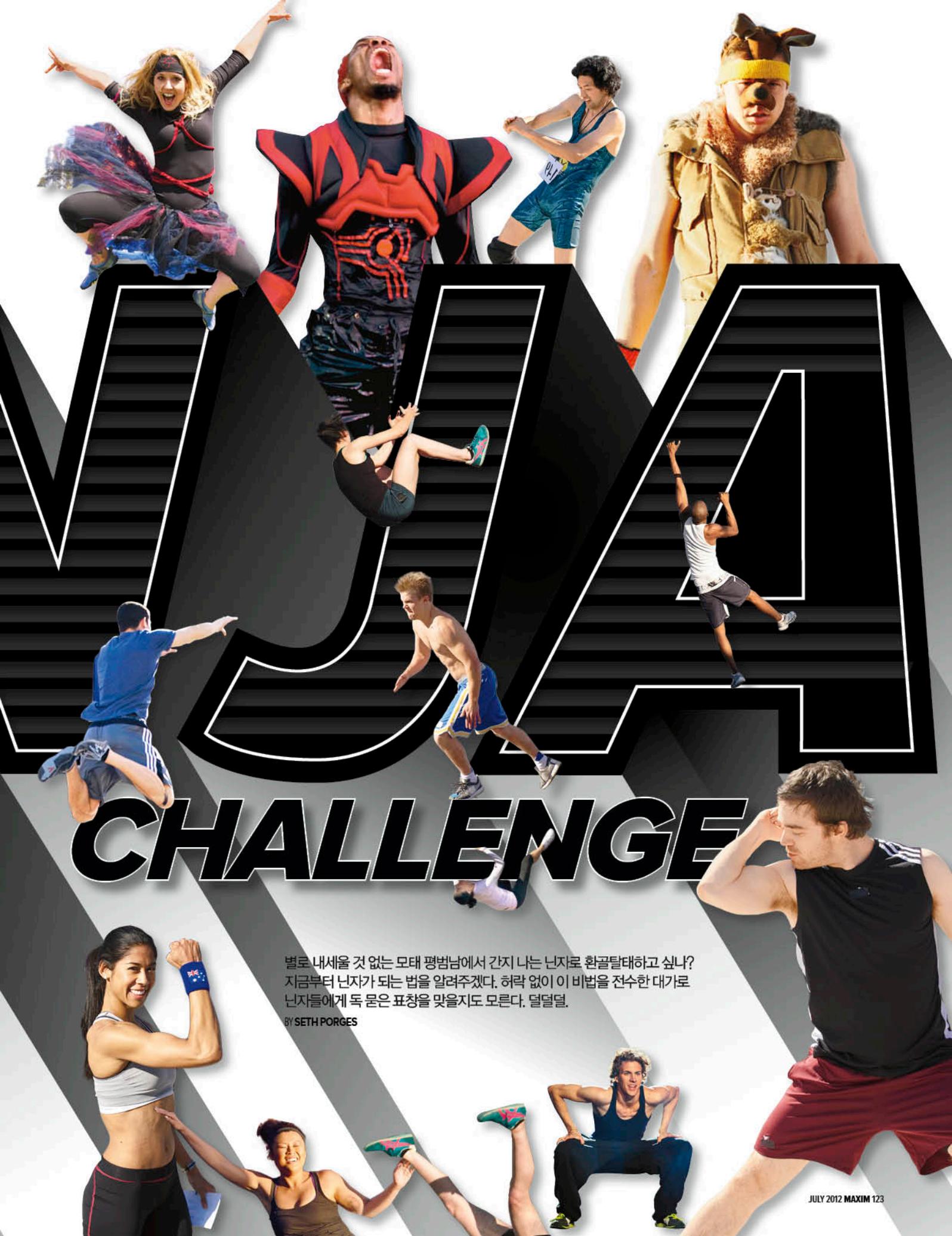
뭘 먹었길래 키가 이렇게 큰가!

어릴 때 줄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 밖에도 달리기나 철봉도 많이
해서 사지(?)가 늘어난 것 같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가.(웃음)

THE

WARRIOR





CHALLENGE

별로 내세울 것 없는 모태 평범남에서 간지나는 닌자로 환골탈태하고 싶나?
지금부터 닌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 허락 없이 이 비법을 전수한 대가로
닌자들에게 독 물은 표창을 맞을지도 모른다. 달덜덜.

BY SETH PORGES



"5, 4..."

에디터는 지금 TV 프로그램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의 도전자로서, 그 장엄한 출발선에 서 있다. 아직 카메라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 출발까지 몇 초 남지 않은 떨리는 순간, 고개를 돌려 참가자들로 북적거리는 대기실 쪽을 바라본다. 공통점이라고는 찾기 힘들 만큼 뚜렷한 개성의 사람들이 한데 섞여 있다. 튀고 싶어 독특한 차림으로 온 사람들, <기인열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괴짜들, 그리고 내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근육을 지닌 운동선수들도 몇 명 보인다. "...3, 2..."

출발 신호에 온 신경을 집중하던 나는 *하이플라이 플립을 연습하던 '파코아워' 팀 선수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됐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 도전을 위해 체육관에도 등록하고 척 노리스식 유머도 마스터해야 했는데...' 그러나 이미 늦었다. MAXIM 에디터가 방송 중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TV로 방송되기 전에 깔끔하게 퇴사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1. 출발!"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한 마리 새처럼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하이플라이 플립: 높이 날아 뒹굴링하는 기술

내가 지금 뭘 생중계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가 뭘지 짧게 설명해 주겠다. 일본에서 건너온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방송 중인 TV 프로그램이다. 도전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실패한 사람에게는 사타구니 근처에 끔찍한 상처만 남는다. 노력과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정직한 도전이지만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장애물들이 널려 있고 성공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총 2,700명의 도전자 중 최종 라운드까지 살아 남는 사람은 단 23명뿐. 그들 중 3명만 '임무 완수'라고 부르는 최종 단



<댄싱 위드 더 스타> 출연자가 세트장을 잘못 찾아왔다.

1



그가 오늘 아침 사타구니 뚫린 바지를 고집한 이유

2

계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 때문에 그 최종 3인도 '임무 완수'를 통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몇 년간 50만 달러의 상금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도전 코스에는 절대 간단히 통과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지점들이 있다. 참가자들에게 강한 의지와 본인만의 비결, 충분한 힘, 폐활량, 그리고 기초 체력이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프로그램의 제작 책임자 홀리 월포드가 단단히 겁을 줬다.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는 1980~90년대 TV를 보며 자란 세대들엔겐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당시 이들이 보던 프로그램은 경쟁자들의 도전을 재미있게 그려내 인기를 끈 것이었는데, 물을 가득 채운 경기장

에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는 운동회식 게임 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에 여러 번 참가한 베테랑 도전자 브라이언 오로스코는 말한다. "도전자들끼리 모여 우리 쇼와 성격이 비슷한 <더블 데어>, <거츠>, <레전드 오브 히든 팀플> 같은 프로그램을 보곤 했다. 우리 모두 그쪽 도전자들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기회가 온다면 재네틀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데!'라고. 자 어쨌든,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지금 도전해라!"
지난 몇 년간 채널 *G4는 미국 내에 숨어 있는 '신예 닌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해왔다. 그리



팔팔팔

닌자의 성스러운 짝짓기 의식

3



이 남자는 기량이 사이의 검은 띠 때문에 거시기에 1도 화상을 입고, 찢꼭지는 빛줄에 쓸려 3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

4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타라.

5



거기서 뭐해? 동네 개가 더 잘할 듯.

6

NINJA'S COURSE

1. Quad Steps: 네 발 뛰기

경사진 나무판 4개를 밟고 건너가는 건데, 이것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아래는 온통 물바다다. 까딱 잘못해 스텝이 꼬이거나 거리 계산을 잘못 하면 끝이다! 잠수용 코마개를 필히 지참할 것.

2. Log Grip: 통나무 잡고 하강하기

공중에 매달린 통나무를 끌어안고 트랙을 따라 쓴살같이 내려가는 코스. 트랙이 울퉁불퉁해 통나무가 미친 듯이 흔들리므로 결코 끝까지 매달려 있을 수 없다.

3. Spinning Log: 회전하는 통나무

계속 돌아가는 회전 기둥을 건너가야 한다.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는 날에는 고환이 심하게 쓸리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4. Jump Hang: 점프해서 매달리기

트램플린에서 힘껏 바운스해 저~얼리, 그것도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물에 매달린다. 진짜 멋있게 성공하지 않으면, 매우 허접한 스파이더맨 덕후처럼 보일 수 있다.

5. Devil Steps: 악마의 계단

오직 손의 힘만으로 계단 형태의 장애물에 매달려 오르려내 리락하는 코스. 세상에서 가장 뻥센 열두 계단.

6. Warped Wall: 휘어있는 벽

4미터 높이의 약간 경사진 벽을 사정없이 뛰어올라 넘어야 한다. 쉽?

에서 고배를 마시고는, 자신은 사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TV 출연에 의의를 두고 왔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특이한 차림이라고 해서 모두 재미로 여길 것은 아니다. 코스튬에 각별히 신경 쓴 일부 도전자들은 전 세계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온 듯 비장했다. 미국 NBA 농구팀 새크라멘토 킹스의 '슬랩손 더 라이온'(사자 마스크)이 입는 털옷을 입고 온 참가자 토드 마를도가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은 불리한 판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웃긴 농담'에 불과하다는 선입견을 깨주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엔 변장을 다 벗어던지고 도전할 거다. 사실 14kg이나 되는 복장을 안 입고 하면 훨씬 쉽지 뭐." 그는 4단계에서 탈락했다.

그럼 나는 왜 왔냐? 삼국 때문에 왔다. 어쨌거나 나와 우리 MAXIM 패밀리의 연상에 동침을 하지 않으려면 대회를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걸 못 했다는 거다! 나는 경기 일주일 전까지도 모든 준비를 미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베테랑 참가자 오로스코와 그의 트레이너 칼 파울리에게 막판에 전화를 걸어 코스를 통과할 팁을 좀 달라

고 이들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경쟁을 펼쳤다(일본 관중들은 미국에서 온 도전자들이 그들 앞에서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구경하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G4가 NBC와 자매결연을 하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대규모 닌자 대회를 열었다. NBC는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이번 대회의 에피소드들을 간추려 방송하기로 했으며, 무려 750명에 가까운 미국 내 도전자들이 LA, 달라스, 마이애미에서 예선을 치른다. 예선을 통과한 예비 닌자들은 LA에서 열리는 파이널 스테이지에 도전할 자격을 얻으며, 최종 우승자는 5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하게 된다. *G4: LA에 위치한 게임 방송국

나와 함께 대기실에 있는 경쟁자 125명은 단지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다. 이들 중 몇 명은 스스로를 테스트하기 위해 왔다고 한다. 지난 경기 때의 약점이 보완됐는지 보러 왔으며, 그중 영화 <모탈 컴뱃>의 무술 고수들처럼 검은색 도복으로 무장한 료가 비가 입을 열었다. "거의 통과할 뻔했는데... 너무 빨리 떨어졌군." 이번이 벌써 4번째 도전인 그는 5단계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또 다른 도전자들은 명성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TV에 출연하고 싶었다. 성공할 만한 능력은 없다"고 도전자 케빈은 말했다. 개구리를 연상시키는 특이한 복장 때문에 '개구리맨'이라 불리던 26세의 이 참가자는 2단계 장애물



주의 발가락 엉덩이의 부작용: 머리가 뿔어지고 웃음을 멈출 수 없음.



이날 강풍에 날아간 남자 후보들이 몇몇 있었다.

고 애원했다. 그들은 고압계도 내 간곡한 부탁을 들어줬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닌자 훈련법도 알려주었다(이 운동법은 다음 장을 참고하도록). 오로스코는 본인이 경기하는 데 내가 방해물이라도 될까 걱정이 됐는지 단계별 훈련법을 알려줬다(내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쟁심은 단 1g도 없어 보였다). 그는 최후의 닌자가 되기 위한 수행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이걸 견뎌내면 내년 대회까지는 나를 준비된 도전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올해는 어렵단 얘기군. 제길.

아, 다시 경기 얘기로 돌아가자.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기 무섭게, 나는 첫 번째 장애물로 돌진했다. TV에서는 이 장애물이 서로 가깝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장애물 사이의 폭은 엄청나게 멀다. 그 사이에서 출렁대는 물은 강이라고



진정한 반지의 제왕

“ 나는 통나무에 매달려 타잔처럼 목청껏 울부짖었다. ‘아~아아~!’ 그제서야 관객 몇 명이 내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

해도 무방할 정도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다음 장애물까지는 1~3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나는 한 번 점프할 때마다 사력을 다해 장애물에 매달렸다. 몇 번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죽기 살기로 뛰여, 결국 나는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다. 물론 하나 뛰어 넘을 때마다 5초씩은 물에 반쯤 잠겨 버둥거려야 했지만. 다음 단계는 ‘로그 그림(통나무 잡고 하강하기)’이었다. 도전자들은 거대한 통나무를 잡고 트랙 아래로 빠르게 굴러 내려가는데, 이 트랙은 매우 울퉁불퉁해서 도전자들은 요동치는 나무를 잡고 버티다 물속

에 빠지고 만다. 나는 통나무에 힘껏 팔을 감고서 트랙 아래로 돌진해 내려갔다. 성공! 내가 성공했다! 나는 무려 2개의 장애물을 통과했고 지금은 세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 누가 아냐? 결국 내가 최후의 닌자가 될지, 나는 햇볕에 벌겋게 탄 채 관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외쳤다. “아~아아~” 타잔처럼 목청껏 울부짖으며 트랙을 따라 내려갔지만 사람들은 ‘저 미친놈은 뭐지?’ 하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었다. 하긴, 물에 빠졌다 올라오기를 계속하며 여기까지 온 내 꼴이 말이 아니었겠지.

다음 단계는 ‘스피닝 로그(회전 통나무)’였다. 평균 대 위를 굴러가는 원기둥 모양의 코스다. 하루 종일 나보다 훨씬 더 ‘닌자다운’ 도전자들이 이번 단계에서 몰락하는 걸 지켜봤다. 나는 처음엔 좀 소심한 전략을 세웠다. ‘만약 내가 이 단계까지 살아남는다면, 저건 기어서 통과해야지’ 하고 말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다리를 벌리고 통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아주 천천히 지나가기로 했다. 그럼 아마 관객은 내 찌질함에 짜증 섞인 한숨을 쉬겠지만 무서운 걸 어떡해! 하지만 막상 건널 때가 되니 전략이 옳고, 그냥 빨리 뛰어서 건너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만약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2초 후에 떨어졌다. 자존심 따위는 전혀 못 챙겼다. 나는 아래에 깔린 매트에 머리부터 떨어졌다. 뭐, 대충 이렇게 나의 (아메리칸 닌자 워리어) 도전은 30초 만에 끝이 났다. 결국, 50만 달러의 상금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크게 실망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나같은 사람 중 26명만이 라운드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개구리맨’보다 오래 버텼다. 후후. 🐸

TRAIN LIKE A NINJA



힘, 스피드, 체력? 그래, 닌자가 되고픈 당신에겐 이 모든 게 필요할 거다. 하지만 하늘을 찌르는 점프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이소룡의 악력 또한 필요하다. 닌자 워리어가 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받기 위해, 우리는 '닌자들의 스승' 브라이언 오로스코(오른쪽)와 그의 트레이너 칼 파울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식 훈련은 가르쳐줘도 못할 테니,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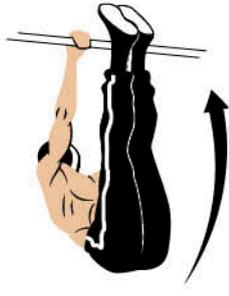
닌자 훈련법 1 체력 및 컨디션 관리

다음 단계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 각각의 동작을 1분씩 진행하되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하라. 1라운드를 완벽히 끝냈다면 잠시 휴식을 취한다. 아래의 모든 동작을 3회 반복한다(3분간 진행하고 1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1분 쉰다. 총 18분간 진행한다). 총 몇 번 성공했는지 횟수를 잘 세두었다가 다음번에는 자신의 이전 기록을 깔끔하게 척살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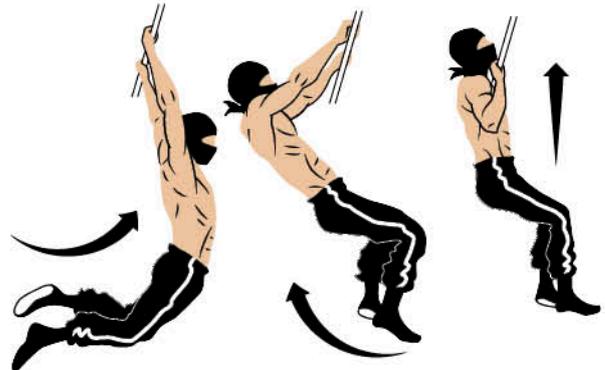
상자 오르기

50~60cm 높이의 상자를 놓고, 그 위로 점프했다가 내려온다. 성공 횟수는 상자 위에 정확히 뛰어올라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일어섰을 때만 세도록!



매달려 다리 차올리기

철봉에 매달려 발끝이 봉에 닿을 때까지 다리를 들어올린다. 너무 어렵다고? 그럼 다리를 구부리고 발끝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가져온다.



발로 차올라 턱걸이하기

이 턱걸이 동작은 발과 엉덩이에 반대 방향으로 반동을 주어 가속도를 얻는 동작이다(멀리서 보면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 같아 보일 거다). 반드시 턱이 철봉 위로 완전히 올라가야 성공한 것으로 친다.

닌자 훈련법 2 몸의 중심부와 팔 그리고 악력 기르기

아마 이번 단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거다.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의 동작을 각각 3회씩 실시한다. 라운드당 30초씩만 쉬되, 개별 동작 사이에는 쉬지 말 것. 점점 시간을 늘려 매 회 자신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한다.

1단계: 베벌리힐스 닌자 훈련법



농부의 집 나르기 동작

15~25kg의 덤벨을 양손에 쥐고 가능한 오랫동안 걷는다.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게 포인트.



턱 걸고 매달리기

다리를 위로 들어올린 채 철봉에 최대한 오래 매달린다. 이때 다리는 가능한 쪽 뻗는다. 턱이 철봉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시간 측정을 멈춘다.

2단계: 이소룡 훈련법



원반 들고 버티기

10~20kg의 원반을 가능한 오랫동안 양손에 쥐고 버틴다. 강도를 높으려면, 양팔이 땅과 수평이 되게 올려라. 마치 팔에 귀신이라도 들린 듯 부들부들 떨게 될 거다.



원반 2개씩 들고 버티기

2kg짜리 원반을 양손에 각각 2개씩, 총 4개를 든다. 강도를 높여 훈련하고 싶다면 팔을 바깥쪽으로 뻗어라. 조금만 힘내, 당신도 닌자가 될 수 있어!

이 신을 따라 오려라. 그리고 기우는 제자리에서 갖다 두라고, 이 게으른 인간아!



Sexy Surfer Attack!

서퍼 주변엔 항상 쪽뺱한 처자들이 꼬인다.
올여름, 멋진 서퍼가 되어 바닷가 새끼녀를
휩쓸어보는 건 어때? 당신도 <폭풍 속으로>의
키아누 리브스가 될 수 있다고!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교영은

MODELS 엄성미, 이연아, 신일호, 황상순

DESIGN 신속희 ASSISTANTS 손안나, 이진영, 이영환, 서현우

COOPERATIONS 슈가포인트(070-7731-3596),

룩시(02-546-7764), 에잇세컨즈(070-7130-2272),

JEEP(02-3445-3283), 디젤, 비비안웨스트우드 by 다리

F&S(02-546-7764)

핑크색 쇼트 팬츠 슈가포인트(왼쪽)

청록색 비키니 목시
하얀색 선글라스 디젤

서핑보다는
몸매 감상



서핑이란

서핑은 큰 파도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해안에서 즐기는 수컷 중의 수컷 스포츠다.
혼자 보드 위에 서서 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카누
처럼 노를 다루는 '서프 스키나 4명이 타는 '서프 보드'
등도 있다. 경기에서는 파도타기의 테크닉을 겨루지만,
대중에게는 기술보다 스릴을 즐기는 레저 스포츠로 인기가
 많다. 서핑을 돈 있는 사람만 타는 고급 스포츠로 인식하
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장비 대여료 2만 원 신이면
체력이 달아 자취하기도 어려울 때 까지 신나게
바다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강원도로 출발하도록!

바다에서 물어주면 있어 보이는 서핑 용어

베렐 (Barrel)

튜브 같은 모양의 파도 안을 뚫고 가는
스킬. 코쟁이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대한민국에서는 태풍이 왔을 때나
이런 큰 파도를 볼 수 있다.

딩 (Ding)

보드가 손상되었거나 깨졌을 때를
일컫는 말

드롭인 (Drop in)

서핑은 파도가 부서지는 최고점에서
보드 위에 올라선 서퍼에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드롭인은 같은
파도에 다른 서퍼가 끼어드는 새치기 행
위를 말한다. 이래서 파도랑 여자는 같이
타는 게 아니라며...

핀 (Fin)

보드 밑에 있는 지느러미 모양의 핀이
파도 저항을 만들어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요즘은 보드 하나에 핀 3개가
달린 것이 일반적이다.

라인업 (Line-up)

파도가 부서지는 바깥쪽에 있는 서퍼들
이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곳

아웃사이드 (Outside)

"시발, 뒤에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어!"를
말하는 서핑 용어

섹스왁스 (Sex Wax)

가장 많이 알려진 서프보드 왁스 브랜드.
서프보드는 발에 고정 장치가 없어서 미끄
럼을 방지하기 위해 왁스를 바른다. 당신
이 생각하는 거기에 쓰는 왁스가 아니다.



GO TO
MAXIM
IPAD
마공개컷



78

2011년 11월 10일, 포르투갈인 가렛 맥나마라가 포르투갈 나자레 해안에서 78피트(약 23.77미터) 높이의 파도를 타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아파트 10층 높이면 파도가 아니라 거의 해일 수준 아닌가?

73

2006년 9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한 해변에서 서퍼 73명이 동시에 같은 파도에서 서핑했다. 두 개 학급이 한 파도를 탄 셈이다.

혹시 카톡해요?

대한서핑협회

대한서핑협회는 서핑 아카데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검정테스트(KSA Level
Test)를 취득하면 공식 코치 자격을 주며
협회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등재되니 파도를
사랑하는 수컷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자. 문의 051-746-3753
www.ksasurf.org

주황색 쇼트팬츠, 남자 옷 모두 슈가포인트
남색 선글라스 비비안웨스트우드

미국 파도,
살아있네!



개서핑 대회

개소리 같겠지만, 실제로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는 개가 서핑을 타는 '서핑犬 대회'가 열린다. 참가비는 55달러(약 6만 원) 정도이며 수익금은 샌디에이고 경찰관들을 위해 사용된다. 심사 기준은 서핑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개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파도를 탔는지 등이다. 개한테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건 무슨 기준이지?

강원도로 오이소~

서퍼 TK에게 배우는 서핑의 기초

서핑하기엔 발리보단
강원도 양양이제~



1. 패들링 몸을 보드에 붙인 상태에서 수영하듯이 팔을 젓는다. 머리는 고정하고 어깨만 움직여 뒤집히지 않는다.



서퍼TK
경력 7년의 베테랑 서퍼

2. 테이크 오프 팔을 이용해 상체를 일으킨다.



3. 테이크 오프 2 반동을 이용해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짹짹 끌어올린다.



4. 스탠딩 보드에 서서 발을 앞뒤로 벌리고 팔을 이용해 중심을 잡는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는 것이 포인트!



니시코드란?

보드와 발을 연결하는 끈. 파도에 보드가 멀리 떠나는 것을 방지한다.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를 만나다

F-35 LIGHTNING II

“공중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처럼, 오늘날에는 전투기야말로 공중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은 성능이 더욱 뛰어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가운데 오늘날 가장 ‘신상’이라는 번개돌이 F-35 전투기를 미국 텍사스 주 포트워스 현지에서 직접 만나보았다.

BY 김대영 DESIGN 전은경 IMAGE 록히드 마틴사



F-35 전투기는 미 공군, 해군, 해병대 3군의 통합 전투기로 개발되었다.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언론 분야에 종사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F-35 전투기는 레이더뿐 아니라 적외선과 적의 전자 정찰에도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한다.

3군 통합 전투기

F-35 전투기는 JSF(Joint Strike Fighter), '3군 통합 전투기'라고도 불린다. 미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군, 즉 공군, 해군, 해병대가 모두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다. 이처럼 3군이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각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투기의 개발과 도입에 사용한다. 1990년대에 구 소련이 붕괴하고 국방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1993년 미 국방부는 3군의 각종 전투기를 통합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3군 통합 전투기인 F-35 전투기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전투기는 미 공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해군과 해병대의 F/A-18 호넷, 그리고 해병대의 AV-8B 해리어 II 등 3군이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를 대부분 대체할 예정이다.

일석삼조(一石三鳥)

F-35 전투기는 세 가지 형태의 기체로 개발된다. 가장 기본형인 F-35A 전투기는 통상적인 이착륙 방식의 공군용 전투기이며, 이 외에 단거리 이륙/수직 착륙 모델인 F-35B 전투기와, 함재기인 F-35C 전투기가 있다. F-35 전투기는 하나의 전투기에서 세 가지 형태로 개발되지만, 기체 간의 공통성을 80%가량 끌어올려 생산 공정과 가격 상승을 최소화했다. 현재까지 미군이 도입할 예정인 F-35 전투기는 무려 2,243대로 모두 3,824억 달러(한화 약 459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F-35 개발에 동참한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의 소요와 수출까지 감안하면, F-35 전투기의 생산 대수는 3천여 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작년 12월 20일에는 옆집 일본까지 42대의 F-35A 전투기를 지르기로 결정했다.



식당은 이쪽입니다.

기사

(배를 필드)에 등장하는 F-35B 전투기는 미 해병대에서 운용할 차세대 전투기로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크린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기 조종석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전방 시현 장비(HUD)도 없어졌는데, 이 기능은 통합 헬멧 시현기로 옮겨갔다. 통합 헬멧 시현기는 야간 투시경 기능과 함께 공대공미사일과도 연동된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F-35 전투기의 조종석을 '아이폰 세대를 위한 조종석'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무시무시한 공중의 스포츠카

F-35 전투기는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와 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기체 안에는 무시무시한 각종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 이전 전투기들은 각종 무장을 기체 외부에 장착했기 때문에, 공기 저항으로 인해 실제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러나 F-35 전투기는 무장을 기체 내부에 장착해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공중전 시에도 다른 기종에 비해 높은 기동성을 자랑한다. 표준 무장으로는 AIM-120 암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제이담(JDAM) 폭탄을 각각 2발씩 동체 내부 폭탄창에 탑재하는데, F-35A 전투기는 고정 무장으로 GAU-12 25mm 포를 탑재한다. F-35B와 F-35C는 포드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GAU-12 25mm 벌컨포를 장착하기도 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 외부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도 있다. 한편, 엔진으로는 43,000파운드의 추력을 자랑하는 미 P&W사의 F-135 엔진을 장착하는데, 이륙 시 마치 늑대가 울부짖는 독특한 우피(Wofi)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공중의 천리안 DAS

F-35 전투기는 F-22 전투기에 비해 한층 발전된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한다. F-22 전투기의 AN/APG-77 레이더를 기반으로 만든 AN/APG-81 레이더는 공대공 및 공대지 모드 양면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여기에 최신형 표적 획득 및 추적 체계인 AN/AAQ-40 EOTS(Electro-Optical Targeting System: 광전자 조준 장비)를 탑재해 12km 이상의 고도에서도 지상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공중전 시에는 적군의 전투기를 탐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공중 목표물에 대한 식별 및 위치를 파악하는 6개의 광학 및 적외선 센서로 구성된 AN/AAQ-37 DAS(Distributed Aperture System: 분산형 개구장 비)는 최첨단 광학 감시 장비로 '공중의 천리안'이라 불리며, 치열한 공중전 상황에서도 적군과 아군 전투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실제 시험 평가 과정에서는, 1,3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된 로켓을 탐지해 로켓 추진체의 분리와 대기권 재돌입을 추적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후방으로 접근하는 적 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

그러니까 너도
소용없다고.



F-35를 직접 체험해 보자. 야! 신난다!



F-35 전투기의 기체 표면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샤크 스킨(상어 피부)이라고 불리도록 줄을 만큼 요철 하나 없이 매끈하게 제작했다.



F-35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조종석에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최초의 전투기라는 점이다.



전투기의 정비 및 무장 장착 훈련에는 가상현실 체계를 사용한다.



가상현실 체계를 이용해 폭탄이나 미사일을 모의로 장착할 수 있다.



WILD CHILO

에디 머피의 딸이 이렇게 예쁘다니!
그녀를 보면 책상 모서리에 팔꿈치를 부딪쳤을 때보다
더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다.

BY DAN BOVA PHOTOGRAPH CHRIS FORTUNA

지금까지 브리아 머피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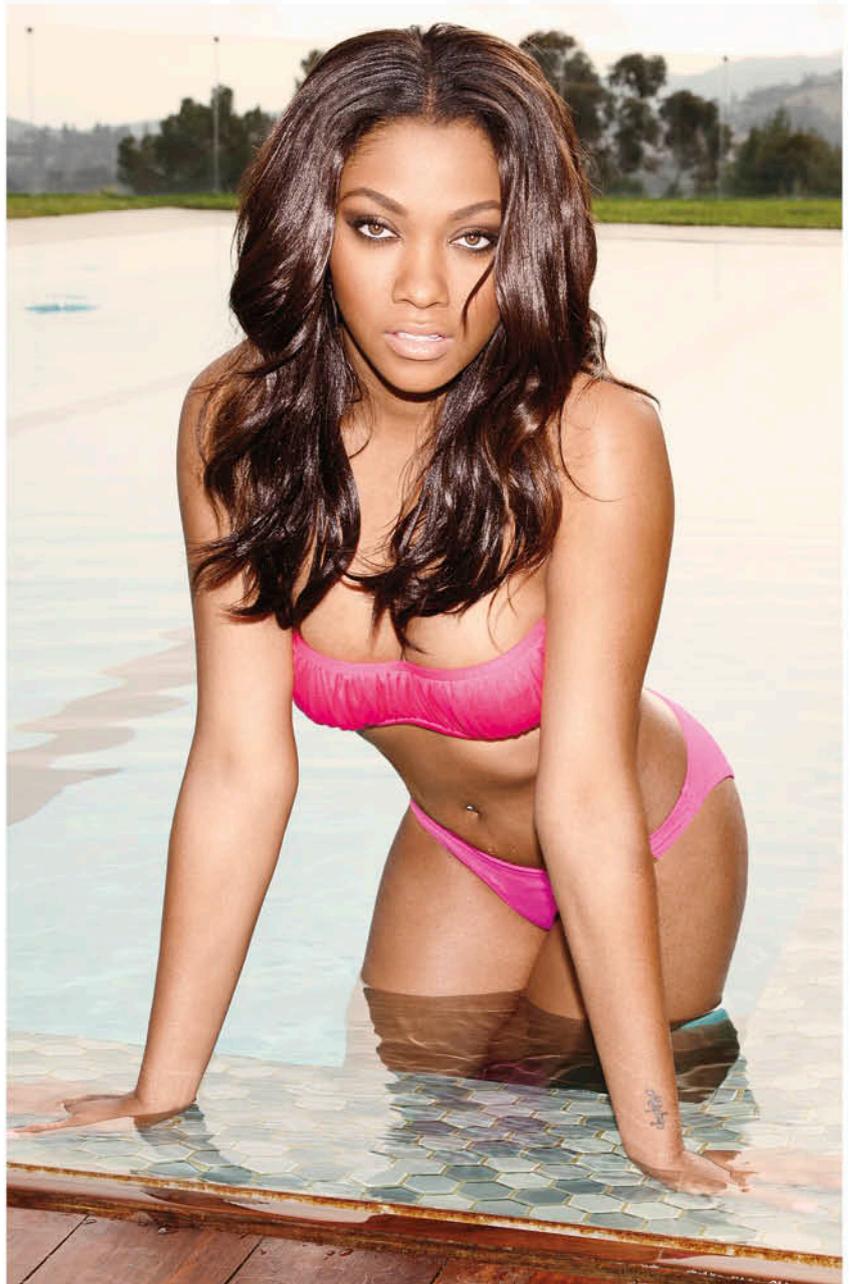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웃긴 코미디 스타'

에디 머피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제 그녀는 스물두 살의 신예 모델로 활동하며

'브리아 머피' 라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중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섹시한 매력을 내뿜으며 말이다.



활동 사진은
더 끝내줘





BRIA MURPHY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생년월일:

1989년 11월 18일

좋아하는 술: 평소엔 모스카토 와인을 좋아하지만, 친구들과 파티할 땐 페이트런 테킬라를 즐겨 마신다.

자신 있는 신체 부위: 다리. 요즘 들어 다리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듣는다. 내 눈엔 배가 제일 예뻐 보이지만.

숨은 재능: 그림 그리기. 일이자 탈출구 같은 거다. 언젠간 갤러리를 열고 내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트위터: @Bria_Murphy.
내 트위터 개그, 기대해도 좋다!



요즘 모델 활동 때문에 외국 출장도 자주 다니고, 무척 바쁘다고 들었다. 쉬 땐 뭘 하나?

놀이동산 가는 거랑 바이크 타는 걸 매우 좋아한다. 특히 더 무섭고 빠를수록 신난다.

어떤 놀이동산에 자주 가나?

주로 *식스플래그에 간다. 진짜 크고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다. 난 롤러코스터가 너무 좋다!

*식스플래그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 체인

당신 같은 미녀가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지 않나?

보통은 줄 서서 대기한다. 물론 아빠와 함께 있을 땐 운 좋게 빨리 탈 수도 있다.

에디 머피가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물론! 아빠는 놀이동산에 가면 뭘 탈 건지 진짜 까다롭게 고른다. 하지만 지난번 플로리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해리포터 파크에 갔을 땐 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었다.

사람들이 당신 부녀에게 사인해달라거나 하면서 괴롭히지는 않던가? 아니면 혹시 다른 연예인들처럼 마법사 같은 걸로 변장하고 다닌다거나...

아니, 우린 변장 같은 건 안 했다. 근데 놀이동산이 너무 붐비고 정신없어서 좀 빠르게 걸어 다니긴 했다.

당신 아버지는 코미디언과 가수 중 어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나?

둘 다 훌륭히 해내시는 것 같다. 아빠의 코미디도 좋지만, 아빠의 음악도 정말 좋아한다. 아빠가 하는 일이라면 다 좋다!

아버지가 걸어난 코미디 배우의 길을 따르고 싶나?

코미디물도 좋지만 호러물도 도전해보고 싶다. 공포 영화를 진짜 좋아하니까. 무서운 영화가 개봉하면 거의 일등으로 달려갈 정도다. 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겁주는 거라면 다 좋다.(웃음)

최근엔 어떤 호러 영화를 봤나?

아빠가 나온 영화를 봤는데 보다가 스크린을 발로 찼다. 정말 무서웠다!

술집 같은 데서 당신에게 작업을 거는 놈들이 분명 있을 거다.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

우선 내게 자신을 소개할 만한 용기가 있는 남자여야 한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다가가기 겁나서 말을 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맘에 드는 여자가 있어도 밤새도록 바라만 보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남자 꽤 귀여웠는데 나한테 다가오진 않았어." 당신과 그녀의 인연은 그 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맘에 들면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라. 남자가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당신에게 관심 있는 남자들이 에디 머피를 만나는 걸 겁내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나?

우리 아빠를 만나는 일이 그들에겐 무척 긴장되고 떨리는 일일수도 있겠지만 아빠는 정말 멋지고 느긋한 사람이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싫어하지도 않는다. 우리 아빤 늘 남자친구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혹시 에디 머피를 옷겨야 당신과 사귄 수 있는 건가?

다들 한 번쯤 아빠를 옷겨 보고 싶어 할 것 같다. 하지만 아빠를 옷기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웃음)

갑자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촬영은 정말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웠다!

고맙다! 나도 무척 즐거웠다!

카메라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나?

우리 엄마는 늘 카메라 앞에선 내가 제일 아름다운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촬영 중엔 카메라를 남자라고 상상하고 예쁜 척을 한다.(웃음) 그것도 내가 만나 본 남자 중 가장 섹시한 남자를 떠올리면서, 기왕이면 '나쁜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카메라를 유혹한다.

예쁜 '척' 이라니... 원래 예쁘단 말이다! 





“
내 남자친구들 모두 한 번쯤
아빠를 웃겨 보고 싶겠지만 아빠를 웃기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다. 쉬운 일이 아니다.
”



STYLE



1

Cool GUY'S ITEM

덥다고 슬리퍼 짝짝 끌고 다니는 것만큼 비호감도 없다.
바람 송송 통하는 여름 신발로 무장해보는 건 어때?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MODEL 엄성미
DESIGN 전은경 ASSISTANTS 손안나, 이진영, 이영환, 서현우

1. 러닝화는 사계절 신어줘야 제맛.
99,000원 퓨마

2. 빈티지한 재봉이 돋보이는 히피 스타일.
179,000원 라코스테

3. 부담 없이 깔끔한 플랫 슈즈.
79,000원 아디다스

4. 펌프로 공기 넣는 재미는 덩이다.
179,000원 리복

5. 청학동 집신 스타일 캔버스화.
69,000원 컨버스

6. 여름에 현란한 신발 하나쯤은 필수.
49,000원 반스



BLOCK KING

작열하는 여름 땀별에 브라질 빈민촌 소년이 되고 싶지 않다면 덕지덕지 발라야 할걸?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엄상미
ASSISTANTS 손안나, 이진영, 이영환, 서현우
DESIGN 서울정
COOPERATIONS 뉴르ोजना(050-024-1414),
리:엔케이(080-200-5100), 더샘(080-080-7500),
아벤노(080-024-1188), RG 11(080-604-1734),
보닌(080-023-7007)



리:엔케이 옴므
퍼펙트 선 프로텍터
(SPF 50+/PA+++)

플장에 한번 들어가면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조오런 같은 물개에게 적합한 제품. 강력한 워터 프루프 효과로 물이나 땀에 씻겨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한다.
60mL 가격 35,000원

SPF: 자외선B(UVB 피부 화상 유발)의 차단 효과를 표시하는 단위로, 보통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한다. 자외선 양이 1일 때 SPF 50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5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PA: 자외선A(UVA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 유발)의 차단지수. PA지수는 PA+, PA++, PA+++ 3가지로 '+'가 많을수록 차단이 잘 된다는 뜻이다.

**RGII 프리미엄 EX 선크림
(SPF 42/PA+++)**

선크림인지 영양크림인지 정체가 궁
금한 녀석. 60mL의 작은 용기에 총
삼 5뿌리분의 RGII 성분이 함유되
어 있어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고
수분을 공급한다. 그렇다고 샤워하고
나서 스킨로션처럼 바르지는 말자.
60mL 가격 50,000원

**뉴트로지나 울트라 쉬어
컴플리트 UV 모이스처
(SPF 50+/PA+++)**

두세 시간마다 계속 발라줘야 하는
다른 제품과 달리 하루 한 번 발라도
저녁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지워 외
에는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이하
는 수컷에게 적합하다.
30mL 가격 18,800원

**아벤느 트레 오프 프로텍시옹
에멀전 SPF 50+
(SPF 50+)**

손끝만 닿아도 쓰나미처럼 피부가 뒤
집어지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
아벤느 온천수가 피지 분비를 조절해
주니 개기름에 파라도 미끄러지는 지
성인이라면 군침 흘릴 제품이다.
50mL 가격 32,000원



**보닌 JSP SPORTS
수퍼세이프 BB선스틱
(SPF 50+/PA+++)**

작고 휴대가 간편해서 수시로 바를
수 있다. 피부 톤 보정 기능이 있어
얼굴을 선스틱으로 도배해 해도 경
극 배우처럼 얼굴이 하얘지지 않
다. 스틱형 제품이라 여러 사람이 들
려쓰기에는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게
단점이다.
19g 가격 24,000원



**더샘 유브이엑스 에센셜 선
베이스 밀크
(SPF 50+/PA+++)**

비타민 나무라고 불리는 신자나무
열매 성분을 함유해 바르는 순간, 피
부가 비치 발리볼 선수 허벅지처럼
탱탱해진다. 울긋불긋 잡티 많은 파
부 색깔을 정돈해주는 베이스 기능
은 덤이다.
50mL 가격 21,000원

야구장 응원 패션

SK와 LG의 경기가 있던 지난 6월 13일,
잠실 야구장에서 스타일 좋은 야구팬들을 만나고 왔다.
BY 손안나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전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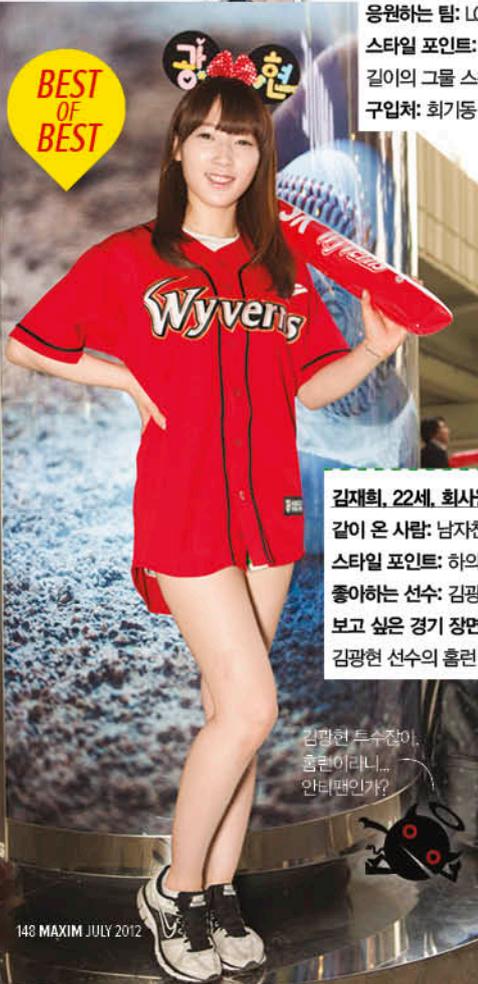
박소정, 28세, 승무원
같이 온 사람: 남자친구
스타일 포인트: 팔찌
구입처: 호주 여행 중 구입
좋아하는 선수: 주키치
2012 한국시리즈 우승은?
SK와이번스

오한우리, 22세, 회사원
같이 온 사람: 남자 사람
친구 3명
응원하는 팀: LG트윈스
스타일 포인트: 언밸런스
길이의 그늘 스웨터
구입처: 희기동 옷 가게

전혜수, 20세, 학생
같이 온 사람: 친구,
친구의 남자친구
스타일 포인트: 머리띠
구입처: 야구장 내 LG
트윈스 매장
좋아하는 선수: 이병규
보고 싶은 경기 장면:
만루 홈런



최유선, 25세, 학생
같이 온 사람: 남자친구
스타일 포인트: 구슬이
박힌 슬리퍼
구입처: ABC 마트
보고 싶은 경기 장면:
홈런, 지금까지 한번도
못 봤다.



김재희, 22세, 회사원
같이 온 사람: 남자친구
스타일 포인트: 하의실종
좋아하는 선수: 김광현
보고 싶은 경기 장면:
김광현 선수의 홈런

김광현 투수잖아.
홈런이러니...
안타팬인가?



탁유은, 30세, 회사원
같이 온 사람: 친구들
스타일 포인트: 편안한
탐스 운동화
좋아하는 선수: 박용택
"경기 보려고 퇴근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최윤, 23세, 학생
같이 온 사람: 남자
사람 친구
스타일 포인트:
번지지 않는 아이라인
"야구는 잘 모르지만 재미
있을 것 같아 친구 따라
왔어요."



유호림, 27세, 애플 코리아 직원
 같이 온 사람: 여자 사람 친구
 스타일 포인트: 선글라스
 구입처: 신사동 가로수길 옷 가게
 2012 한국시리즈 우승은?
 넥센하이로즈

MAXIM 어플
 좀 잘 바꿔!!
 현기증 난다고



김상현, 29세,
헤어 디자이너
 같이 온 사람: 친구들
 응원하는 팀: LG트윈스
 스타일 포인트:
 직접 만든 헤어



정가람(20세, 학생) 김재호(21세, 학생)
 좋아하는 선수: 오지환, 박용택
 스타일 포인트: 휴대폰 케이스
 구입처: 야구장 내 LG트윈스 매장
 "요즘은 주말마다 야구장에 오는 것
 같아요."

전구현, 23세, 학생
 스타일 포인트: LG 트윈스 응원 수건
 구입처: 친구에게 선물 받았다
 좋아하는 선수: 이병규
 2012 한국시리즈 우승은? 넥센하이로즈



정해연, 25세, 회사원
 같이 온 사람: 여자친구
 응원하는 팀: SK와이번스
 스타일 포인트: 무늬가
 화려한 스카프
 "야구장에 실제로 온 건
 처음이에요"

송길호, 31세, 자영업
 같이 온 사람: 여자친구,
 친한 누나
 스타일 포인트: 편안한
 체크무늬 바지
 좋아하는 선수: 오지환
 2012 한국시리즈 우승은?
 롯데자이언츠



정령우, 28세, 옷 가게 운영
 같이 온 사람: 친구들
 스타일 포인트: 연두색
 나이키 운동화
 구입처: 내 가게
 좋아하는 선수: 최정
 보고 싶은 경기 장면:
 최정 선수의 활약



WATCH FOR FRIDAY NIGHT

밤에 더욱 멋진 시계들로 허전한 손목에 여자들 시선 좀 꽂아보자.

PHOTO-ILLUSTRATION ARUN+ANWITA(MAXIM INDIA)

올 시즌 당신의 상복 패션에 고급스러운 화이트 포인트를 주자. 깔끔충한다고 금 목걸이, 금반지 끼면 곤란해.

살바토레 페레가모



배트맨 놀이에 정신 나간 어른에게 안성맞춤, 개성 있는 시계로 시선을 끌어보자!

타이탄



아무 데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시계는 활용도가 높은 밤, 캐주얼이든 슈트든 무엇이든 걸쳐보세요.

디올



당치가 작다고 튼튼하지 말란 법은 없다. 광란의 클럽 파티에는 술 취한 아가씨 토사물쯤이야 거뜬히 버티내는 이런 용맹스러운 녀석이 필요하다.

빅토리녹스



사각 프레임에 섹시한 투톤 컬러 시계가 말한다. "현재 시각 책시 35분"

디젤

평소 스타일리시한 남자와는 거리가 멀다면 어쭙잡은 골값은 그만 떨고 이런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라! 이게 바로 포멀함의 정석이지.

엠포리오 아르마니

STYLE NEWS

브루노 신크 글라슈테의 새 모델 MILANO GMT

독일 시계의 메카 글라슈테 지역에서 SA 등급을 받은 milano GMT 모델을 이제 유로 타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SA'는 시계 제작국 중 최고로 인정받는 스위스, 독일 지역에서 마련한 높은 기준을 통과한 브랜드에만 붙이는 등급. 스위스 무브먼트에 브루노 신크 글라슈테가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해 성능을 배가했다. 날짜 창이 시계판 위쪽에 위치해 독특한 멋을 살렸으며, 로고를 양각으로 새긴 가죽 스트랩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해 럭셔리함을 더했다.

문의 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www.eurotime.co.kr)



자스페로(ZASPERO) Perfetto 라인으로 퍼펙트한 남자로 거듭나다

큰맘 먹고 지른 명품 슈트에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을 법한 시계를 매치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클래식한 멋을 추구하는 남성들을 위해 화룡점정이 될 워치로 자스페로 Perfetto MG201-06.LW 모델을 소개한다. 자스페로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칼리버 3540D.Z1 무브먼트에 역회전 방지 베젤을 넣어 품질을 높였다.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글라스에 베젤 주위를 날렵하고 디테일하게 커팅한 장식이 여성들에게 당신을 매력적인 남자로 각인시켜주기에 충분하다.

가격 640,000원

문의 자스페로(1688-8907, www.asper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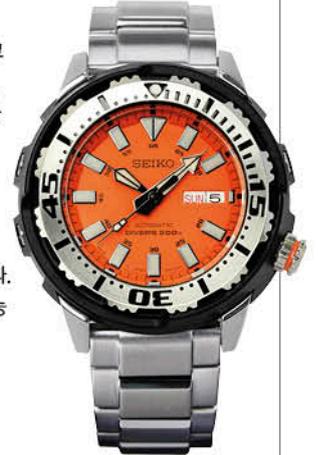


전통 다이버 워치, SEIKO SRP251J 출시

40년 동안 모험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세이코 다이버 워치가 신모델 SRP251J를 출시한다. 200m 방수 기능과 다이빙 시간 확인을 위한 역회전 방지 베젤을 채택해 강력한 다이빙 퍼포먼스 능력을 보장한다. 또 세이코만의 기술력으로 탄생한 루미브라이트 야광 기능과 오렌지 컬러의 시계판을 사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 확인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케이스 주변을 감싼 케이스 가드는 방수 기능을 높이고 디자인의 포인트를 더했다.

가격 540,000원

문의 삼정시계(02-511-3182, www.seikokorea.co.kr)



잠수 세계 기록과 함께한 루미노스

1525 Scott Cassell Special Dive watch

루미노스가 해저 탐험가이자 전투 다이버 스콧 카셀이 30마일을 잠수로 건너 세계 기록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는 1525 Scott Cassell Special Dive Watch를 선보인다. 자동 헬륨 릴리스 밸브, 루미노스 베젤 로킹 시스템을 채택하고 사파이어 글라스와 블랙 PVD 코팅 처리한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로 내부를 감싸 수심 500미터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보장한다. 스위스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루미노스 발광 테크놀로지는 기본이다. 한정판으로 제품마다 고유 번호가 발급되며 특별한 시계를 원한다면 이번 기회를 잡아보자.

가격 2,380,000원 문의 미림시계(02-757-9866,

www.luminowatch.co.kr)



올여름 피지와의 전쟁을 해결해줄 소우스킨 내추럴 컴플렉션 릴리버

더운 여름을 맞아 소우스킨이 남성들의 개기름을 잡아줄 제품을 소개한다. 내추럴 컴플렉션 릴리버는 아침 세안 후 바르기만 하면 오후까지 과잉 피지를 잡아주어 보송보송한 피부를 유지해 준다. 게다가 잔주름과 넓어진 모공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어려 보이는 효과까지! 소비자를 생각해 유기농 천연 성분만 사용했다니 이번 여름 내추럴 컴플렉션 릴리버로 건강한 피부 미남이 되어보자.

가격 28,000원 문의 소우스킨(02-445-5760, www.souskin.com)

DIESEL, 프랜차이즈 DZA4251

모델로 라인업

디젤에서 빈티지 밀리터리 워치 라인의 신제품인 프랜차이즈 DZA4251 모델을 내놓았다. DZA4251은 기존 디젤 타임 프레임에서 선보인 프랜차이즈 워치 시리즈와 동일하게 숫자 2, 3, 4만을 크게 강조해 디젤만의 독특함을 강조했으며,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미해 남성스러움과 실용성을 더했다. 무광택의 고급스러운 다크 카키 컬러가 매력적이다. 군인의 상징색으로만 생각되던 카키색도 누가 만드느냐에 느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가격 450,000원 문의 파슬코리아(02-3440-6500)





LADIES'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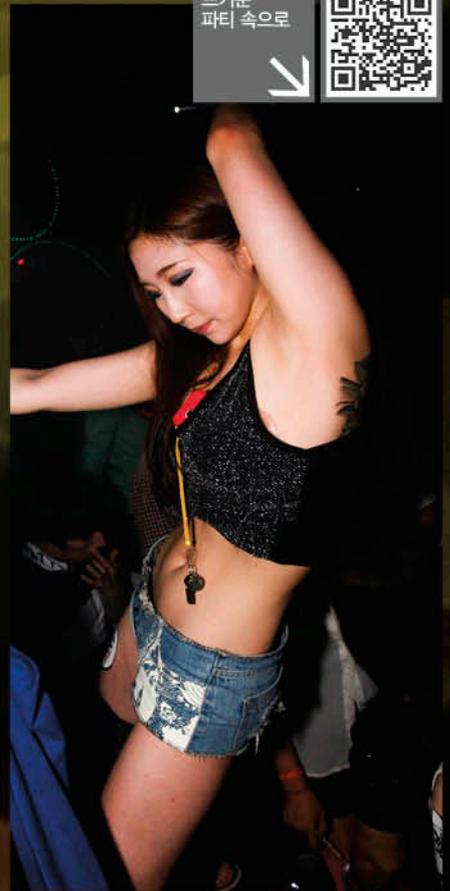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지.
BY 김희성 PHOTOGRAPH 이원덕 DESIGN 전은경
COOPERATION 夜花





WOMEN'S HOT SPOT...?

클럽 파티엔 예쁜 여자들이 늘 상주하고 있어 당신을 행복케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은 존재한다. 바로 압수비율. 대부분은 클럽인지 남탕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수컷만 뺨뺨하게 들어차 있고 심한 날은 남녀 비율이 20:80에 육박하니, 그동안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기 좀 뻘컘했지?



NO MORE LONELY NIGHT

세상 만사가 전부 당신 뜻대로야 되겠소만, 사실 직심하고 멋지게 치러주고 즐동한 클럽행인데 아무 소독이 없는 것은커녕 여자 근처에도 못 가보고 서성대기만 하다가 돌아온다고 생각해보라. 울고 싶어 질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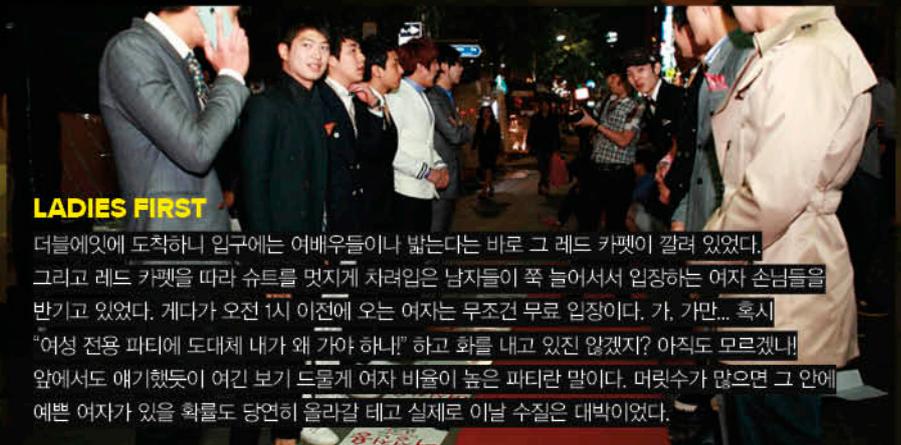
IT'S LADIES NIGHT

그래서 에디터가 암컷 서식 비율이 높은 파티를 찾아냈다. 지난 5월 18일,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CLUB DOUBLE EIGHT(더블에잇)에서 열린 '여성 전용 파티'가 바로 그 낙원이다. 이 파티의 콘셉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자들을 여왕으로 모시는, 오직 여성을 위한 파티'.



LADIES FIRST

더블에잇에 도착하니 입구에는 여배우들이나 밟는다는 바로 그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레드 카펫을 따라 슈트를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쪽 늘어서 입장하는 여자 손님들을 반기고 있었다. 게다가 오전 1시 이전에 오는 여자는 무조건 무료 입장이다. 가. 가만... 혹시 "여성 전용 파티에 도대체 내가 왜 가야 하나?" 하고 화를 내고 있진 않겠지? 아직도 모르겠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긴 보기 드물게 여자 비율이 높은 파티란 말이다. 머릿수가 많으면 그 안에 예쁜 여자가 있을 확률도 당연히 올라갈 테고 실제로 이날 수질은 대박이었다.





ELECTRONIC FINGIRLS

그리고 당신이 이 파티에 가야 하는 이유 하나 더. 미녀 3인방으로 구성된 키보드팀 '일렉트로닉 핑걸스'가 왔기 때문이다. 오전 2시쯤 등장해 현란한 연주와 퍼포먼스로 파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지만 사실 클러버들이 달아오른 진짜 이유는 아마 그녀들의 미모 때문이었겠지.



NEXT PARTY SCHEDULE

레드 카펫에 줄 지어 있었던 슈트남들은 이날 파티를 기획한 파티 브랜드 '야화(夜花)'의 파티플래너들이었다. 오는 7월에 그들이 두 번째 파티를 한다고 하니 궁금하면 야화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라(www.야화.com).

FITNESS PARTY

가기만 해도 몸짱이 될 것만 같지 않나?

BY 김희성 PHOTOGRAPH 허문수 DESIGN 서윤정
COOPERATION (주)나루씨아엠(www.naroo.net, 02-3474-9776)

광란의
파티 영상



THANKS GOD IT'S FRIDAY

매월 1일은 어차피 사할도 못가 포기하게 될 것들을 결심하게 되는 날. 보통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따위를 결심하게 된다. 일부러 노력한 건지 얻어 걸린 건지 지난 6월 1일, 청담동 CLUB ANSWER에서 피트니스를 콘셉트로 한 파티가 열렸다.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콘셉트의 파티라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핑계로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클럽으로 직행했다).



HOT MUSCLE GIRL IN DA CLUB

국내 최초의 피트니스 파티는 그렇게 시작됐다.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다이어트도 내일로 미루는 에디터에게 경고라도 하듯 클럽에는 몸 좋고 얼굴도 착한 남 녀가 우글댔다. 한마디로 물이 좋았던 얘기다. 술술 분위기가 최고조로 치달는 오전 1시 30쯤부터는 탄탄한 근육질의 남 녀 모델들이 펼쳐는 뜨거운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는데,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잘 어울리는 여신들을 아주 실컷 구경할 수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니었다. 관계자가 술에 취했는지 피트니스용품들을 나눠주고 샴페인도 마구 뿌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덕분에 아주 밝은 금요일을 보내게 되지. 땡큐!



HOSTED BY NAROO

피트니스 파티를 연 곳은 2002년부터 고기능성 스포츠용품을 개발하고 수출해온 브랜드 '나루(NAROO)'다. 스포츠용품을 파는 길로는 성이 안 찾는지 내친 김에 2011년 압구정에 '나루 프라이빗 짐'을 오픈해 피트니스 분야에도 진출했다. 이날 파티는 나루 프라이빗 짐이 문을 연 지 1주년을 기념해서 열렸다. 그래서인지 모델, 연예인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소녀시대 효연과 방송인 최여진도 손잡고 왔는데 둘 다 너무 이뻐서헐! 

이달의 도전 과제

● BEAT THIS CAPTION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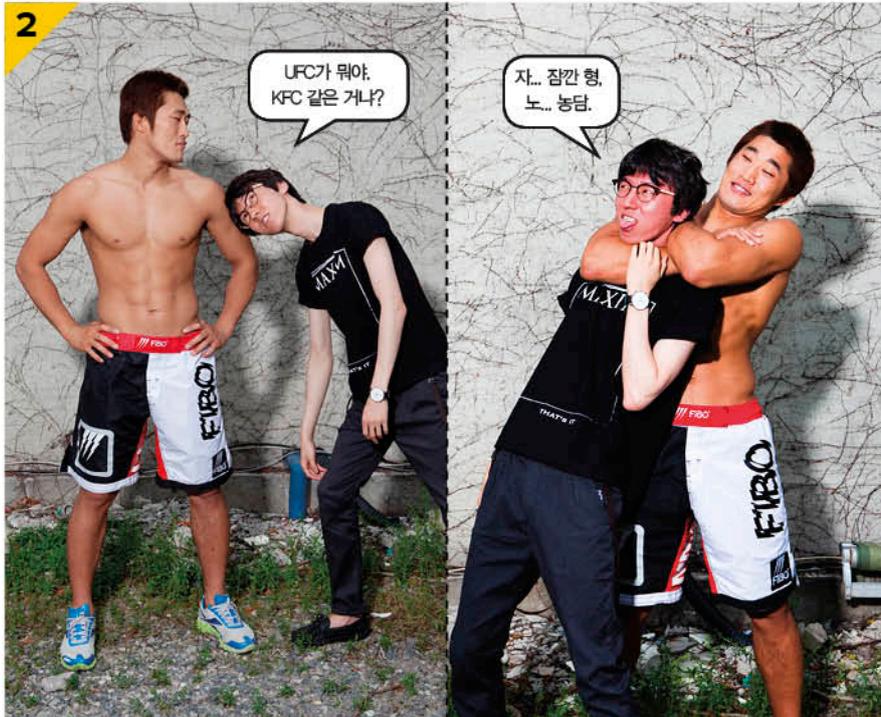
WINNER

지난달 우승자



양중맞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데니스 강 사진에 허를 찌르는 상상력을 발휘한 똥's 독자님이 이번 달 승자로 선정됐다. 떡라면, 만두라면, 치즈라면도 아니고 파김치 라면을 끓여 먹겠다니... 당신 혹시 에드워드 권 아니야?

2



3
BONUS CUT



응모하기

- 1번, 2번, 보너스 문제 중 하나를 골라 재치 있는 말풍선을 달아라. 그리하면 민사가 형통하고 옥체에서 빛이 난다!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6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스웨거 헤어 스티너 왁스**를 선물로 주겠다.



말풍선
달라가기



MAXIM BUYER'S EDGE



만다리나덕, 여름 시즌 캐리어 할인 행사

만다리나덕이 바캉스 시즌을 맞아 메인 아이템인 트래블백 라인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세일 기간 내 캐리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만다리나덕의 우산도 증정한다. 지금 전국에 있는 만다리나덕 매장을 방문해 실속 있고 즐거운 바캉스를 준비하자. 단, 아웃렛 매장은 제외.

문의 만다리나덕(02-3496-8080,
www.mandarinaduck.co.kr)

에르메네질도 제냐, 스퀘어 프레임 시리즈 출시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도시 남성을 위한 모던하면서 트렌디한 디자인의 스퀘어 프레임 아이웨어를 선보인다.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스퀘어 프레임 아이웨어는 안정적인 사각 볼테 스타일로 안구 옆 라인과 템플에 핀을 박아 트렌디하면서 클래식한 멋을 표현한다. 블랙, 그레이 컬러와 레오 퍼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에르메네질도 제냐(www.zegna.com)

NEW 아스테라 수딩 세럼으로 민감한 두피에 활기를 불어넣자!

뜨거운 열기에 민감해진 두피를 신속하게 진정시키는 아스테라 수딩 세럼이 강력한 보습력을 더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었다. 연약한 두피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하여 민감성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이 제품은 모든 타입의 두피에 사용할 수 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고 싶다면 NEW 아스테라 수딩 세럼을 잊지 말도록!

가격 42,000원(75mL)

문의 르네튀테르
(02-584-6002,
www.renefurterer.co.kr)



트라이 내의로 더위 사냥 OK!

쌍방울이 내놓은 콕맥스 소재의 트라이 내의는 땀 흡수와 건조가 빨라 땀을 분수처럼 뿜어내는 육수냄도 쾌적하게 야외 활동을 즐기도록 해주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시원한 고기능성 소재에 착용감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된 트라이 내의라면 여름 열대야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겠지?

문의 쌍방울
(02-3485-6230~1,
www.sbw.co.kr)



쿨비즈 스타일 연출을 위한 크로스 아이슬랜더 스포츠

아이슬랜더 스포츠는 크로스만의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신발 여러 부분을 방수 처리한 가죽 소재와 끈으로 장식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가볍고 편안한 쿠셔닝으로 최상의 착화감을 제공하는 이 제품은 한 번 신으면 벗을 수 없는 매력이다. 여름에는 역시 발에 바람 송풍 들어오는 크로스가 최고!

가격 80,000원대 문의 크로스몰(www.crocsmall.co.kr)

DIADORA



**디아도라(DIADORA),
2012 런던 올림픽
티셔츠 출시**

디아도라가 오는 7월에 열리는 런던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영국, 이탈리아 3개국의 고유 색상을 사용한 국가 응원 티셔츠와 레전드 그래픽 티셔츠를 출시했다. 또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diadora_kor)를 통해 런던 올림픽 개최 시점에 디아도라의 전설의 올림픽 선수 쿼츠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올림픽 티셔츠를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디아도라 코리아
(www.diadorakorea.com)



청바지를 입은 SUN BB?

라네즈 옴므가 SUN BB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한다. 여름 시즌 한정으로 판매하는 라네즈 옴므 SUN BB는 라네즈 옴므와 리바이스의 콜라베이션을 거쳐 탄생했다. 특별히 데님 파우치에 담아 선보일 예정이니, 자외선 차단과 피부 커버, 스타일 그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MAXIM 독자들은 서둘러라!
가격 25,000원(50mL)
문의 라네즈 옴므(080-023-5454)



PUMA 에픽 샌들로 스타일리시한 여름 시즌 준비하자!

푸마가 여름 시즌을 맞아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에픽 샌들을 선보인다. 비비드한 컬러의 아웃솔과 배색 컬러를 매치해 바캉스 룩에 포인트를 준다. 게다가 발가락에 닿는 부분은 유연한 직물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폭신한 쿠션 소재여서 장시간 착용해도 발에 부담이 없다. 여름철 활동량이 많은 휴가를 계획했다면 PUMA 에픽 샌들로 편안한 바캉스를 보내는 건 어떨까?
가격 39,000원 문의 푸마(www.puma.com)



손에 물리지 말고 피부에 100% 흡수하자! 안티링클 엠케어 세트
당신의 주름을 책임질 히어로가 나타났다. 그건 바로 안티링클 트리트먼트 에센스와 마사제(Massager)로 구성된 엠도씨 엠케어 세트. 천연 효모 발효 추출수를 함유해 피부에 탄력을 주는 에센스를 엠케어 마사제를 사용하여 피부 구석구석에 흡수되도록 구성했다. 술, 담배, 각종 여자 문제로 생긴 자글자글한 스트레스성 주름도 퍼지는 것 맞죠?!
가격 68,000원 문의 엠도씨(www.mdockorea.com)



FX 채널이 대머리 독수리와 함께 범죄에 맞짱을 청하노라!

전 UFC 헤비급 챔피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말 더빙이 구수한 영상 (자기 방어 시스템)의 대머리 독수리로 더 유명한 바스 루텐(Bas Rutten). 그가 당신에게 격투 노하우를 전수한다. 친근하게 어깨동무를 해오며 당신의 돈을 나눠 쓰자는 동네 형이를 흔내줄 비법이 가득하다. 이 흥흥한 세상에 당신의 무기는 오로지 존슨뿐이라면 TV 앞에 모여 7월부터 방영하는 FX 채널의 (범죄 맞짱 매뉴얼: 맞선 남)을 시청하라!
문의 FX 채널(www.fxchannel.co.kr)

MAXIM INSIDER



MAXIM 곳곳에 숨은 선물을 공략해라! 재테크가 별 게 아니야!

← 퍼즐 때 가져와라!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한다면 푸쳐헌셉!
그리고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세상에 공짜 따윈 없어!

- 1 MAXIM 홈페이지 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2 웹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광클하며 둘러본다. (악플 밑에 선물도 좀 달아줘, 제발)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퍼간다. 워든 좋다! 게시물 개수가 많을수록, 첨부한 이미지가 때깔이 날수록, 내용이 알찰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차솟는다! 아주 그냥 다~ 퍼가라.
- 4 해당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나 SNS의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 적어 reader@maximkorea.net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다음호 MAXIM INSIDER 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한다. 2012년 7월호의 승리자는 무려 15개의 MAXIM 기사를 블로그에 스크랩하신 ID 이명희LOVE 독자님. 이토록 치열한 폴라로이드 쟁탈전이라니!

MAXIM을 가장 빠르고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

생생한 촬영 현장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마구 타지는 곳은? 웹과 스마트 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MAXIM 공식 다음 마이피플 채널과 트위터로 오래 정중 나간 스타프들의 천태만상도 볼 수 있다.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도록!

SNS로
모이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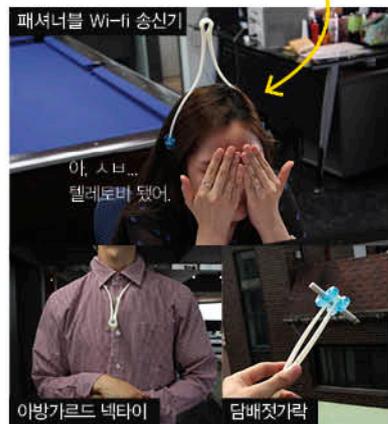
GIFT LIST

BMW 미니 폴딩 바이크 // 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 뮤지컬 <미라클> 티켓 // 연극 <라이어턴> 티켓 // 연극 <The Lover> 티켓 // 맨즈 클래식 더블이펙트 BB크림 // 클리어스 달팽이 세안제 루마카 // 우노 매트 크리에이터 왁스 // 스웨거 헤어 스테터 왁스 // 플뤼에 가족 방수제 // 플뤼에 가족 태닝제 // 도서 <마음의소리 Ver.1> 초석 // 도서 <무인도에 떨어져도 음악> 권오섭 // 뉴트로 지나 맨 쿨링 클렌징 젤 // 게스트맨 클렌징폼 앤 셰이빙 젤 투인원 // 랩시리즈 멀티액션 페이스 워시 // 소우 스킨 쏘 콜린 클렌저 // MAXIM 한정판 캐릭터 티셔츠 // HELL DIVER 손목시계 // 대니쉬 디자인 손목시계 // 마누스 그림 // TASK Active Moisturiser

RANDOM GIFT

MAXIM이 준비한 이달의 선물:
하얗고 긴 패션 IT 기기 겸 넥타이

평소 '꿀초' 소리 듣는 것도 모자라서 손에 찌든 담배 냄새 때문에 그나마 있는 여친에게마저 멀리받던 독자, Wi-Fi 공유기 설치할 돈이 없어 고뇌에 빠진 독자, 레이디가 가 못지않은 패션 쇼크를 날려주고 싶은 독자는 모두 여기에 집중하라. 여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만한 초강력 스타일리시 아이템이 랜덤 발송 준비 중이다!



이방가르드 넥타이

담배젓가락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더 이상 맞지 말고 선뺑을 날려라!



범 죄 에 맞 장 뜰 그 가 온 다 !

맞선남 트레이너

바스루텐

전 UFC 헤비급 챔피언
판크라스 챔피언

스캔하고
MAXIM 받자



범죄 맞짱 매뉴얼
맞선남
Coming Soon!

MAXIM



KOREA

FIGHT

한국 최초의 UFC 파이터 김동현과의 만남
자기 방어 기술로 X밥 뺑셔를 탈출!
러블리함의 정수, 옥타곤 걸 브리트니 팔머
존 존스가 밍상인 이유

MOTOR

경쾌한 디젤차, 볼보 S60
MINI가 파티에 남긴 선물
이니셜 D의 추억을 4천에 사?

MUSIC LEGEND

음악의 神 롤라 이상민에게
고무젓꼭지를 물렸어!
기타의 전설 슬래시가
록을 말하다

MILITARY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신상 전투기와
진짜 탐건을 만나다

김기범

곰상한 도련님인줄
알았더니 거친 남잘세!

STUPID FUN

성인물 줄거리 완벽 분석
모기한테 미움 받는 법
들보잡 라면계란 다섯 제약
타투할 때 제일 아픈 곳?
닌자 대회에 나가 MAXIM에 뚝칠하고 온 에디터
지상 최고의 색깔 20

JULY 2012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